

호남의 보고

김 발제 전 사

저자_ 우쓰기 하쓰사부로(宇津木初三郎)
역자_ 최혜주



전북학연구센터

호남의 보고
김제
발원지
전사

(일러두기)

1. 일본을 지칭하는 용어('내지', '아국', '본방' '우리나라')는 모두 '일본'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다만 '내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통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 그대로 두었다. 특히 '천황'은 역사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2. '이조'는 조선으로 '지나'는 중국으로 표기하였다.
3. '메이지', '다이쇼', '쇼와' 등 당시의 일본 연호는 서력으로 표기하였다.
4. 본문에 언급되는 화폐 단위인 '원'은 당시 일본 화폐 단위인 '엔(円)'을 한국식 독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5.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곳에 각주를 넣었다.
6. 원문에는 해제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었다.
7. 원문에는 인명이나 인물의 생몰연대가 없으나 일본식 인명표기와 함께 생몰연대를 넣어서 보충하였다.
8. 외래어 표기는 현행 한글어문규정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랐다.
9. 수록된 사진 중 원문에 없는 사진과 표지 사진은 출처를 표기하였다.

허균의 퇴거
김제
발전사

호남의 보고 김발제 전사

목차

006 발간사

011 해제

028 자서

030 도판

035 총설

045 제1편 교육 및 종교

060 제2편 농업

075 제3편 교통 · 운수 및 통신

087 제4편 수리

099 제5편 관공서 단체

134 제6편 상업

139 제7편 공업

141 제8편 금융기관

144 제9편 오락 시설

147 제10편 명승고적

155	김제의 추억
186	김제발전책에 대한 사건
189	김제 장래에 대한 소견
193	내지 자본가는 조선에 투자하라
204	내지 청년은 조선에서 활로를 찾아라
213	김제의 저명 인물 및 각종기관
255	사회특별사업 군청 이전 문제
257	김제 평야의 추억
261	쓰키가와(月川) 광업소

아픈 역사의 기록을 넘어, 미래를 위한 성찰의 거울로

지역사는 국가 역사의 근간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뿌리입니다. 오늘날 지역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군산, 익산, 김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가장 짙게 투영된 현장이기에, 그 시기의 기록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일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옥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를 품은 김제는 일제강점기 호남 농업의 중심지이자, 일제가 식량 수탈의 거점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번에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전북학총서’ 제19권으로 발간하는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1934)는 당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군산일보 기자 우쓰기 하쓰사부로(宇津木初三郎)가 저술한 이 책은 1905년을 전후해 1934년까지 김제의 농업, 상업, 공업 등 산업 전반의 변화상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죽산 하시모토 농장, 이시카와현 농업주식회사, 아베이치 상점 김제농장 등 김제 평야를 장악했던 일본인 경영 농장들의 실태와 하시모토 히로시, 이케 마사미 등 당시 지역 유력자로 활동했던 일본인들의 면면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록의 이면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표면적으로 김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야기하고 일본인의 조선 이주를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제의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고 수탈을 효율화하려는 야욕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1930년대 김제의 지역사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사료임과 동시에, 일본이 우리 국토와 민중을 어떻게 수탈하고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번역서를 통해 당시 일본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재편해 나갔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이 남긴 기록을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전북학이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치밀하게 번역하여 역사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 최혜주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전북연구원장

호남의 보고

김제
밭제
전사

해제

자서

도판

총설

해제

일제강점기 지방사 편찬과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는 1934년, 군산일보 기자 우쓰기 하쓰사부로(宇津木初三郎)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선에서의 일본 식민 통치 성과를 과시하고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간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제강점기 김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사료로 평가된다. 본 해제에서는 이 책의 저술 배경이 된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 활동과 저자 우쓰기의 경력과 지역 내 활동, 그리고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

일제강점기의 지방사 편찬은 지방 유림, 재조일본인, 그리고 각 지방의 관청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지방 유림들이 주도한 지방사 편찬은 조선시대 읍지 편찬 전통을 계승하거나 이를 보완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해방 이후의 지방사 편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였다. 한편 재

조일본인이나 조선총독부 지방관청에서 편찬한 지방사는 도사(道史), 부사(府史), 발달사, 발전사, 향토사 등의 명칭으로 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발전지, 연혁지, 향토지, 산업지, 요람, 안내, 부세일반(府勢一般), 사정, 대관(大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¹⁾ 이러한 편찬물은 식민지 통치 이후 조선 각지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총독부의 시정을 홍보하고, 그 통치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재조일본인들의 지방사 편찬 활동은 크게 관찬과 사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찬에 해당하는 편찬물은 주로 도청이나 부청이 주관하여, 조선총독부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고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도사’나 ‘부사’ 편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행정적 성과와 근대화의 진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사찬은 첫째, 민간 차원의 편찬으로, 그중에서도 1914년 부제(府制) 실시로 거류민단이 폐지된 이후, 민단의 활동과 역사를 정리하려는 ‘민단사’ 편찬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민단사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재조일본인들의 노력과 희생을 부각 시킴으로써, 조선 사회에서 일본인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그 공헌을 과시하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京城發達史』(1912, 경성거류민단역소, 靑柳綱太郎 축탁), 『대구민단사』(대구부, 1914), 『平壤發展史』(1914, 평양민단역소, 熊谷直亮 민장), 『元山發展史』(1916, 高尾新右衛門, 민단 축탁)가 있다.

둘째, 학교나 교육회에서 편찬한 ‘향토사’가 있다. 이는 일선 학교에

1) 최혜주,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 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103, 2011.

서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식민사관에 입각해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왜곡·미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향토사에서는 고대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거나 보호해왔다는 식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향토자료)京城五百年』(1926, 경성부공립보통학교), 『慶南略史』(1929, 木村晴光), 『晉州概史』(1931, 진주군교육회), 『京城史話』(1935, 岡田貢), 『大邱讀本』(1937, 竹尾款作) 등이 있다. 이들 향토사는 지역사를 식민지 교육 체제 속에 통합하여 조선인의 역사 인식을 일본 중심의 질서로 재편하려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셋째, 언론사를 중심으로 편찬된 '발전사'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방사는 1930년대 이후 부원개발과 침략전쟁 수행에 협조하기 위한 선전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忠南論山發展史』(1913, 富村六郎, 代書業), 『鮮南發展史』(1913, 尾西要太郎, 조선신문사, 인천), 『發展せる水原』(1914, 酒井政之助, 조선신문 수원지국장), 『鳥致院發展誌』(1915, 酒井俊三郎, 조선신문사 충청충지사), 『忠州發展誌』(1916, 金谷雅城, 경성일보·매일신보·호남일보 충주지국장), 『大田發展誌』(1917, 田中麗水, 조선민보 기자), 『金泉發展誌』(1918, 達無門, 조선시보 김천지국), 『湖南寶庫 裡里案内-益山發展史』(1927, 山下英爾, 호남일보), 『全羅北道發展史』(1928, 宇津木初三郎, 군산일보 기자), 『麗水發展史』(1928, 片岡議, 광주일보사장), 『慶北沿線發展誌』(1931, 達捨藏), 『忠清南道發展史』(1932, 安齋霞堂, 호남일보 기자), 『忠州發展史』(1933, 李英, 기자), 『鮮滿發達史』(1933, 大森

頑石, 오사카), 『金堤發展史』(1934, 宇津木初三郎, 군산일보 기자) 등이다.

대표적인 예로 군산일보 기자 우쓰기 하쓰사부로(宇津木初三郎)가 편찬한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1928)와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1934)를 들 수 있다. 우쓰기의 저술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와 김제 지역의 물산·산업·사회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편찬 주체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문사의 기자였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 시대 전라북도 지역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지방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기자나 사장 등이 간행한 발전사는 각 지방이 식민 통치의 결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선전하고, 나아가 자원의 개발과 경제적 동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하의 지방신문은 재조일본인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거나, 일본인 지방 유지들이 경영진에 참여하여 식민지 통치 이념을 확산시키는 의사소통의 매개로 기능하였다.²⁾

우쓰기 하쓰사부로의 출신 지역이나 조선으로 건너온 시기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러 사료를 통해 그의 활동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25년 8월 20일자 『조선신문』 「지방인사」란에 따르면 그는 당시 군산일보 이리지사 주임기자로 근무하며 익산군 익산면 이리 758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1928년에는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발전사-일명 전북안내(朝

2) 박용규,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과 지방신문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06, 73쪽.

鮮의寶庫全羅北道發展史—一名 全北案内)』(이리 문화상회 발행)를 출간할 정도로 전라북도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셋째, 1929년에는 월간지 『조선지산업(朝鮮之産業)』의 창간과 함께 주필로 활동하였고, 1931년 이후에는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서 이리의 합자회사 조선지산업사에서 잡지를 발행하였다.³⁾ 이 잡지에는 조선 각지의 산업과 자원 개발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실려 있었으며, 이는 우쓰기가 후에 지방 발전사를 편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1939년 8월 15일 이리소학교에서 열린 이리 배영(排英) 시민 대회에 이리배영동지회(裡里排英同志會) 이사로 참가하여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배영동지회는 1939년 6월 15일 경성 조선신궁 앞에서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신문, 조선일일신문 등 주요 신문사가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로, 당시 영일회담 결렬 이후 “타도 영국”을 외치며 “동양의 성지에 화근을 가져올 노획한 영국을 타도하자”는 구호 아래 결성된 반영 단체였다.⁴⁾ 이리 지역의 배영시민대회는 신문기자단, 공직자구락부, 재향군인분회, 정신총동원 이리연맹 등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우쓰기는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전시체제하 일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한 인물로 평가된다.

우쓰기의 두 번째 저서인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는 「자서(自叙)」에서 밝히고 있듯이 김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한 결과물로, 이주 일본인들의 개척과 분투를 통해 김제 지역사회가 발전했다는

3) 최혜주, 「재조일본인의 지방 발전사 간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 『전북학연구』7, 2022.

4) 『조선신문』 1939.8.17. 회장 板井信藏, 부회장 丸山文吾, 襄憲, 이사 松村松一, 大木房男, 永井總六, 林東夏, 窪田常九, 朴春, 宇津木初三郎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편찬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일본인 이주를 장려하고, 식민지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 책은 김제읍장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1934년 군산일보 이리지사에서 발행되었으며, 당시 식민지 지방의 개발 성과를 선전하고 일본인의 정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언론·행정 협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호남선 개통 이전 1904-1905년의 김제는 적막한 광경이었으며, 오늘날의 발전상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적으로 김제 시민들의 20여 년간의 헌신적 노력과 분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김제의 근대사가 치열한 분투의 역사로 기록될 가치가 있다.——김제에는 아직 제대로 된 역사적 기록물이 부재하다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김제읍장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였고, 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33년 10월에 집필을 시작하여 마침내 『김제발전사』를 완성하게 되었다. (『자서(自叙)』)

옮긴이가 우쓰기의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에 주목한 이유는, 1905년 이후 김제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김제의 도시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개척해 나갔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김제 지역에서 활동한 일본인 유력자들과 조선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식민지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새로운 지역 연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의 내용은 1905년 전후부터 1934년까지의 김제의 발전사를 다루고 있으며, 자서와 총설을 비롯해 10편으로 이루어진 본문(총 172쪽)과 김제의 저명 인물 및 각종 기관을 상세히 기록한 부록(70쪽)으로 이루어졌다. 목차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교육 및 종교에서는 김제소학교, 김제교육회, 청년교육회, 김제신사 창립을 다루었다. 우쓰기는 조선인 교육사업의 목적을 “조선인에게 일본어와 보통학을 가르쳐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문명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 일본인과 동화시키려 한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그는 교육과 종교 활동을 ‘문명화’와 ‘동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식민지 교육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시각에서 김제 지역의 근대화를 기술하였다.

제2편 농업에서는 경지가격, 양잠업, 하시모토(橋本)농장, 이시카와(石川)현 농업주식회사, 아베이치(阿部市) 상점의 김제농장, 동진농업주식회사, 마스토미(槲富)농장, 나카시바(中柴)산업주식회사, 미조테(溝手)농장, 히라토미(平富)농장, 다키(多木)농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쓰기는 이들 일본인 경영 농장을 통해 김제의 농업이 근대적 기술과 자본에 의해 발전했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김제평야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일본인 지주농장이 설립된 것이었다. 그는 또한 김제 지역을 “호남지방에서도 가장 유망한 농업지”로 묘사하며, 풍부한 수리 시설과 비옥한 토지를 근거로 일본인의 농업 이익 확대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일본인 농업 자본의 침투와 식민지 수탈 구조를 정당화하려는 식민주의적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제3편 교통 운수 및 통신에서는 도로, 호남철도, 철도선로 변경운동, 동진강 가교, 시구(市區) 개정, 통신 시설 등 지역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를 다루었다. 우쓰기는 한일병합 이후 호남선 철도 개통으로 교통기관이 확충되면서, 김제평야의 풍부한 자원과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그는 교통과 통신 인프라의 발전이 지역사회 성장과 일본인 이주 및 경제적 이익 확대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김제 발전사를 서술하였다.

제4편 수리에서는 동진수리조합의 사업 연혁과 주요 공사, 그리고 사업 시행 이후의 성과를 다루었다. 우쓰기는 1921년 동진수리조합 기본계획 수립부터 1931년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주요 공사로 섬진제, 운암터널, 낙양리 취입구, 요수로, 배수시설, 진봉제저수지, 능제저수지 등을 열거하였다. 또한 각 공사의 총공사비 내역을 정리함으로써, 동진수리조합 사업이 김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했음을 강조하였다. 이 편은 특히 김제평야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개·배수 시설의 중요성과 일본인 자본 및 기술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 실태를 기록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제5편 관공서 단체에서는 군청, 농회, 경찰서, 우편소, 김제역, 김제 학교조합, 교사 신축, 기예학교, 김제소방조, 김제미곡상조합 등 김제 지역의 주요 관공서와 단체를 소개하였다. 우쓰기는 이를 통해 김제가 호남지방에서 대구나 평양에 견줄만한 중심지로, 교통과 행정의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김제가 지역 행정과 경제, 교육, 치안 등

다방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정착과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6편 상업에서는 김제시장, 도·소매 상점, 대표적 회사 상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상업 활동을 다루었다. 우쓰기는 조선에서 정기시장이 각지에서 열리며 물자 수급의 유일한 통로이자 지방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호남선 철도 개통이 김제시장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김제시장이 호남지방 내 대규모 상업 중심지로 발전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 편은 철도망과 시장 경제의 연계가 지역 상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제7편 공업에서는 정미업, 철공업, 양조업, 인쇄업, 통조림 제조업 등 김제 지역의 주요 산업과 관련 공산액 통계를 소개하였다. 우쓰기는 이를 근거로 김제가 전라북도는 물론 전라남도까지 아우르는 공업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편은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적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당시 김제의 공업적 성장 전망과 일본인 투자자 및 경영인의 관심을 부각시키는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

제8편 금융기관에서는 조선식산은행 김제지점, 김제금융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금융 체계를 다루었다. 우쓰기는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김제 지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해졌으며, 각종 산업의 발흥을 촉진하고 토지개발에도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대부분이 농업과 상업 분야에 투입되어, 지역 자본의 효율적 운용과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금

용 제도가 일본인 자본과 식민지 정책의 연계 속에서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제9편 오락 시설은 신문잡지, 여관, 요리점, 음식점 등 김제 지역의 여가·문화 시설을 다루었다. 우쓰기는 이를 통해 김제가 교통이 편리하고 장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임을 강조하며, 언젠가 김제에서도 일간신문이 발간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편은 단순한 오락 시설 소개를 넘어, 지역 인프라와 경제·문화 발전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고, 일본인 정착과 상업적·문화적 확장 전망을 시사하는 자료로 기능한다.

제10편 명승고적에서는 김제 지역의 고찰 금산사와 벽골제를 소개하며,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부록에서는 김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를 중심으로 그의 치적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학교조합 관리자, 소학교사 개축, 죽산소학교 신축, 김제군청 이전, 세무서 설치, 김제신사 설립, 동진강 가교 문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김제 장래 발전책에 대한 소견」에서는 “우체국·은행·회사·경찰·학교 등이 벽지의 작은 마을에까지 들어서 있으며, 원시시대를 연상케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선도 문명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히며, 김제 지역의 근대화와 발전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지의 자본가는 조선에 투자하라」, 「내지의 청년은 조선에서 활로를 찾아라」라는 글을 게재하여,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와 투자 참여를 촉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책의 본문에는 김제에서 활동한 일본인 약 200여 명이 소개되

어 있다. 이들은 대지주, 부호, 미곡상, 수리조합, 농장 경영자로 활동했으며, 김제학교조합회, 면협의회, 학무위원, 전북평의회 등 지역 유지로서 다양한 공적·행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부록에서는 김제에서 활동한 일본인 61명과 조선인 9명의 신상을 상세히 정리하였다.(〈표1〉 참조) 김제 지역에 정착한 일본인 중 최초는 1906년 구마모토현 출신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였으며, 이어 1908년에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가 이시카와현 농장을 개척하였다. 이들의 영향으로 출신지가 밝혀진 일본인 가운데 구마모토현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시카와현이었다. 조선인으로는 배석린(군수), 조재식, 강동희, 노경일, 조재돈, 이기호, 박연, 홍종만, 조재희가 수록되었으며, 신용있는 대표적 상점에 조기선상점, 조재희상점(포목상), 조재식상점(잡화상, 정미업)이 포함되었다.(〈표2〉 참조) 이 기록을 통해 김제 지역 내 일본인과 조선인 간 경제·사회적 관계 및 일본인 정착 초기의 경향과 출신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표1〉 부록에 소개된 김제의 저명 인물

유력자 이름	직업	출신	비고
이리에 미키오(入江幹夫)	경찰서장	오카야마현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김제읍장	구마모토현	도평의원, 학교조합관리자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비료·석유·잡화업	히로시마현	
이케 마사미(池眞澄)	미곡상조합 조합장		고베고상 졸업
모토야 아이지로(本谷愛次郎)	이시카와현 농업주식회사		
가와사키 도메지로(川崎留次郎)	아베농장, 소방소 조두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아베농장 주임		
마스토미 타로(槇富太郎)	마스토미농장 지배인		
나카츠카사 기요시(中務潔)	미조테 농장 주임	오카야마현	

나가토미 야사쿠(長富彌作)	동진수리조합 이사		관방주사, 익산군수 역임
이타바시 가즈미(板橋勝已)	식산은행 김제지점장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기성회 상설위원		
하토모토 우메타로(波戸元梅太郎)	미곡상	오사카부	김제읍회의원
이치카와 다쓰지(市川辰次)	미곡상, 비료상	이시카와현	
후루키 도쿠타로(古木徳太郎)	과수원	효고현	경찰관 역임
구로다 겐타로(黒田健太郎)	구로다 재목점	구마모토현	건축청부업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양조업	구마모토시	학교조합원, 소방소 두장, 신사총대
오카모토 겐지(岡本健次)	미곡정미업		
요시마루 요사쿠(吉丸與作)	히라토미농장 관리인		
고바사 도요헤이(小場佐豊平)	미곡업, 정미소		김제학교조합회의원
구라하라 이치지(倉原市次)	김제학교조합회 의원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미곡상	후쿠오카현	
아마다 가이치로(山田嘉一郎)	미곡업	와카야마현	김제학교조합회의원
마쓰이 요조(松井與藏)	김제군청 내무주임		군산부청
시노기 히데오(篠本秀雄)	김제군청 서무주임		
노자카 무네키치(野坂宗吉)	김제금융조합 이사		
기노시타 다카모리(木下生盛)	동진수리조합 출납역	이시카와현	
우치야마 도요지(内山豊次)	운송업, 군산일보 판매	아마구치현	
신메이 기요시(新明清)	김제농업창고 주임	미야자키현	
사토 테루(佐藤照)	농업, 김제학교조합회 의원	미야기현	
가메다 다다시(龜田正)	김제공립기예학교 교장	이시카와현	도 시학 역임
요네쿠라 토다(米倉藤太)	김제보통학교장	후쿠오카현	함라보통학교
도다 고키치(戸田孝吉)	김제역장	도야마현	
곤도 스테(近藤捨)	김제우편소장	돗토리현	
아리타 쇼조(有田庄藏)	토목건설 청부업		
가네코 야스이치(金子保一)	금융업	아마구치현	
야기 시게지로(八木茂次郎)	김제읍회의원	가가와현	
치하라 리쿠조우(千原陸三)	동진수리조합 기사장	기후현	
후쿠가와 시게이치(深川重市)	양품잡화상, 김제읍회 의원	히로시마현	
미야자키 유키(宮崎勇喜)	농업	구마모토현	
미야자키 마키히사(宮崎幹壽)	농업	구마모토현	
타이라 세이이치(平精市)	잡화상, 김제읍회 의원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사진업, 전북일보 김제지국장		

미기다 야스히코(右田保彦)	미기다농장, 학교조합의원, 면협의원	구마모토현	
하시모토 가쓰오(橋本勝雄)	동척상농조합장, 김제학교조합 의원	구마모토현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김제학교조합 출납역	구마모토현	
마쓰모토 마타키(松本又喜)	아베농장 농감		
시로시타 기타로(城下喜太郎)	농업 경영		
시로시타 스에오(城下末雄)	농업 경영		
쓰쓰미 호우조우(堤實藏)	제월상농조합장	구마모토현	
쓰카모토 쓰네오(塚本恒雄)	정미업, 김제학교조합 의원	구마모토현	
혼고 쓰토무(本郷勳)	혼고의원 원장		
이토 기요미(伊藤清美)	목재업	야마구치현	
사토가타 스에조(里形末藏)	미곡상	구마모토현	
나카야마 주조(中山重三)	미곡상, 정미업		
마쓰시타 다이로쿠(松下太六)	김제학교조합회 의원	구마모토현	
이토 야이치(伊藤彌市)	김제학교조합회 의원	나가사키현	
나카무라 류세이(中村龍生)	죽산공립소학교 교장		
타다 시게지로(多田繁次郎)	우콘상사 김제수납소 주임		
시모무라 주사쿠(下村重作)	농업 경영	아이치현	
아카쓰카 다쓰지로(赤塚辰次郎)	김제학교조합회 의원	미야기현	
배석린(裴錫麟)	김제군수		
조재식(趙在軾)	잡화상, 정미업		
강동희(姜東曦)	농업 경영, 전북도평의원		
노경일(魯晷日)	농업 경영, 김제읍회 의원		
조재돈(趙在敦)	농업 경영, 김제읍회 의원		
이기호(李箕鎬)	김제읍회 의원		
박연(朴淵)	잡화상, 김제읍회 의원		
홍종만(洪鐘萬)	김제읍회 의원		
조재희(趙在熙)	포목상, 김제읍회 의원		

<표2> 대표적 회사 상점

다음은 김제에서 가장 신용있는 회사 및 상점이다

이시카와(石川)현농업주식회사, 이케 마사미(池眞澄)상점, 이마이(今井)상점,
이치카와 다쓰지(市川辰二)상점, 이노우에(井上)상점, 이토(伊藤)자전거점,
하시다(橋田)상점, 하라다(原田)상점, 하토모토(波戸元)상점, 니시무라(西村)상점,
혼다(本田)상점, 벳푸(別府)상점, 도치야(栃谷)상점, 동진농업주식회사,
조기선(趙紀宣)상점, 조재희(趙在熙)상점, 조재식(趙在軾)상점, 고바사(小場佐)상점,
오카모토(岡本)상점, 하기타(萩田)상점, 오자와(小澤)시계점, 와타나베(渡邊)백화점,
가와노(河野)상점, 가도와키(門脇)인쇄소, 요시다(吉田)상점, 다카다(高田)상점,
다카하시(高橋)상점, 다이라(平)상점, 쓰지무라(辻村)재목점 김제지점,
노자키(野崎)사진관, 라이온사진관, 무카에다(迎田)상점, 우치야마(内山)운송점,
노지마(野島)상점, 쿠니다(國田)상점, 구보 슈이치(久保秀一)상점 읍내,
구보(久保)상점 역전, 구라사와(倉澤)상점, 구로다(黒田)재목점, 야마다(山田)상점,
야기(八木)상점, 후지타(藤田)상점, 마쓰모토(松本)상점, 후쿠이(福井)상점,
후타미(二見)식당, 후카가와(深川)상점, 고마쓰(小松)상점, 곤도(近藤)자전거점,
아베 이치(阿部市)상점 김제농장, 아베(阿部)약점, 아리타(有田)상점,
아카자와(赤澤)상점, 사사키(佐佐木)상점, 김제자동차상회, 김제 금융조합,
김만(金萬)자동차조합, 미쓰비시(三菱)광업소, 미조테(溝水)농장,
식산은행 김제지점, 히라야마 감심당(平山甘心堂), 히노(日野)상점,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상점, 스즈키(鈴木)상점

일제강점기 일본은 전북평야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군산항을 개항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 지역에는 대규모 일본인 지주농장이 설립되었다. 김제 지역에는 특히 죽산 하시모토(橋本) 농장,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아베이치(阿部市) 상점 김제농장, 동진농업주식회사, 마스토미(槌富) 농장, 나카시바(中柴)산업주식회사, 미조테(溝水) 농장, 히라토미(平富) 농장, 만경 다키(多木) 농장

등이 자리 잡았다. 이들 농장은 일본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식민지적 수탈 구조의 핵심 요소로, 김제 평야의 풍부한 농업자원을 일본 본토로 이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에는 일본인 지주와 농장 경영자들이 “조선 개척의 은인”으로 분투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소작인들에 대한 식민지적 수탈보다는 시혜를 베풀 것처럼 서술하고, 소작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 책이 단순히 김제 지역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김제 발전의 주체가 재조일본 인임을 증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을 자료로 활용할 때, 식민지근대화론 관점에서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점을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일본인 중심의 발전 서술과 조선인 역할 축소 여부, 수탈과 지배를 시혜로 미화한 표현, 재조일본인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과장 여부, 식민지 근대화 논리의 선전적 사용 등이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편향을 인식하고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김제 지역사 연구에 활용할 때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에는 네 가지 대표적인 식민사관적 서술이 나타난다. 첫째, 치안 혼란의 책임을 조선 의병과 탈주병에게 전가하고, 진위대 해산을 일본 병합의 성과로 기술하는 서술이 있는데, 이는 의병이 국권회복을 위한 조직적 항전이었음에도 ‘폭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성을 지우려는 식민주의적 편향이다.(총설, 폭도 횡행시대, 38쪽)

둘째, 조선의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낙후했다고 강조하여 일제의

개설 사업을 ‘근대화’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실제 목적은 조선인의 생활개선이 아니라 식민지 수탈과 자원 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었으며 ‘문명개화’라는 외피로 식민 지배를 미화한 것이다.(제3편 교통·운수 및 통신, 75-79쪽)

셋째, 일본 내지 자본가에게 조선 투자를 촉구하면서 조선을 ‘미완의 발전지대’로 규정하고 일본 자본의 진출을 유도하는 서술로, 식민지 개발을 문명·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경제 침탈을 정당화하는 담론이다.〔내지의 자본가는 조선에 투자하라, 201쪽〕

넷째, 일본 본토 청년의 조선 진출과 투자 정착을 정당화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동양 평화’와 ‘인류 행복’의 수호자로 미화하고, 조선 진출을 ‘문명적 사명’으로 포장하는 서술로, 실제로는 침략과 지배를 도덕적 의무로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이다.〔내지의 청년은 조선에서 활로를 찾아라, 209-210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조일본인들의 지방사 편찬은 일본의 식량부족과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부원개발과 일본인의 조선 이주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 아래 편찬된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에는 조선인 사회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김제가 일본인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과 일본인의 개척 및 분투 역사를 강조하는 한계가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는 방대한 주요 통계⁵⁾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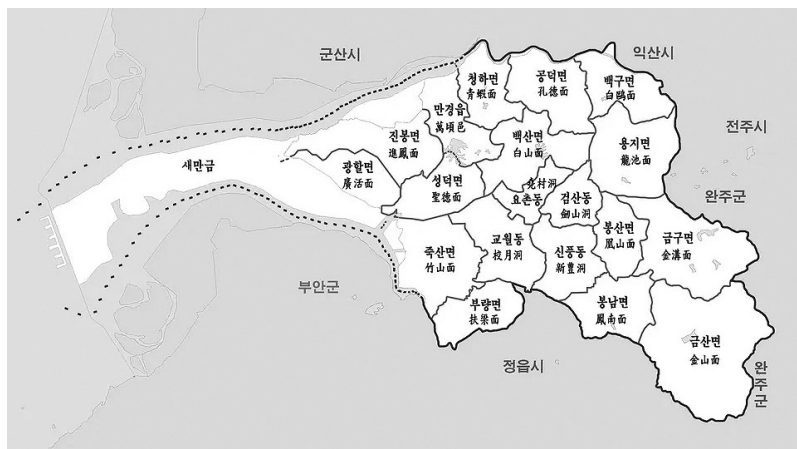
5) 예를 들면 김제읍 호구표 읍총계(1923-1932), 직원 이동 일람표(1910-1934), 전교 아동수 연도별 일람표, 졸업생 연도별 일람표, 전교 생도수 연도별 일람표, 사업비 및 재원, 사업 시행 후 증수 조서(배), 100정보 이상 지주, 토지위치 및 면적표, 행정구획, 종목별 면적, 기상표, 각 리동별 현재 거주 호구, 직업별 현재 거주 호구, 인구동태, 보통교육표(김제공립심상고등소학교, 김제공립보통학교), 실업교육(김제공립기예여학교), 신사, 불교, 기독교 기타 유사종교 단체표, 의료기관, 격리병사, 실수, 교통기관, 금융기관, 농장 기타 농영회사, 양잠 사육호 및 산란액, 축산, 시장, 인접소, 주조업, 업종별 인원 및 판매고, 최근 3년간 조세공과 소정표, 읍예산변천 상태, 읍직원, 조합세입출 예산액, 역대 관리자 및 의원, 직원 이동 일람, 대표적 회사상점, 시장매상고 57개년 비교표, 주요 공산액 등이다.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김제 지역에 거주한 일본인의 활동과 경제·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표1>과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를 통해 일본인 정착자와 그들의 대표적 회사(상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일제의 식민 통치의 실상과 지역 사회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인들의 조선 각지 이주와 활동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사 및 발전사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연구, 번역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 연구의 확장과 재평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⁶⁾

-
- 6) 지금까지 번역 간행된 지방사는 다음과 같다.
 손필현, 『대구이야기』, 대구중구문화원, 1998.
 연기향토사연구소, 『(1915년 일본인이 발간한)조치원 발전지』, 2004.
 임학성 외, 『(역주)인천항토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인천항』, 2005.
 정혜중, 『(역주)인천의 사회와 역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손필현, 『개화기의 대구부사』, 서우실, 2009.
 홍성덕·김철배·박현석, 『(국역)전주부사』, 전주시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인천과 인천항』, 2009.
 김인덕·기미지마 가즈히코, 『(국역)경성발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0.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주)인천부세일부:1935-1936』, 2011.
 목포문화원, 『(원역)목포부사』, 2011.
 정삼철, 『충주발전지: 19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2012.
 이연식·오일환·이권희, 『(국역)경성부사』 1-3, 서울시 사사편찬위원회, 2015.
 리진호, 『군산 부세개요』, 지적박물관, 2017.
 리진호, 『충주발전지』, 지적박물관, 2019.
 홍성덕·이정욱·편용우, 『(국역)군산부사』, 전주대, 2019.
 최해주, 『군산개항전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최태화, 『군산안내:1915년』, 제이앤씨, 2020.
 이승윤, 『(조선)대전발전지』, 대전광역시문화유산과 시사편찬위원회, 2020.
 이양희, 『충청남도발전지:국역1』,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임경택,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안지영, 『군산안내:1926년』, 제이앤씨, 2021.
 표세민, 『부의 군산』, 제이앤씨, 2021.
 양은용, 『호남보고 이리안내』,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2.

자서

김제는 아직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나, 호남선 개통 이후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날 약 2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호남지방의 중요한 산업 중심지로까지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 김제의 미곡 수출액은 지역 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 경제, 산업, 교통, 교육, 종교, 위생 등 다방면에서의 발전은 물론, 사고와 오락에 이르기까지 도시 인프라는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에 힘입어 김제는 전라북도 내에서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미래에는 더욱 발전하여 이상적인 대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돌이켜보면, 호남선 개통 이전 1904~1905년의 김제는 적막한 광경이었으며, 오늘날의 발전상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적으로 김제 시민들의 20여 년간의 헌신적 노력과 분투의 결과물이



김제시의 행정구역(1읍 14면 4동, 김제시청 제공)

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김제의 근대사가 치열한 분투의 역사로 기록될 가치가 있다.

근대에 접어들며,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소규모 도시조차 그 유서와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편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설립하여 수년에 걸친 연구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도시의 역사를 편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편찬 사업은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김제에는 아직 역사적 기록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김제읍장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였고, 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33년 10월에 집필을 시작하여 마침내 『김제발전사』를 완성하게 되었다. 물론, 본 저서에는 여전히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독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적 제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개정판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아울러 김제의 각종 사업과 경영자들의 노고와 역사를 함께 기록하여 후대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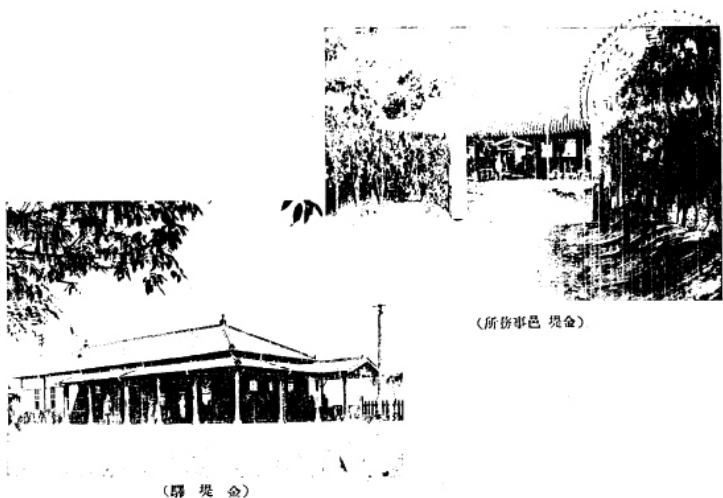
본서의 간행에 즈음하여 김제 시민 각위로부터 받은 크나큰 지도와 아낌없는 후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34년 11월 3일 메이지절(明治節)⁷⁾ 당일

우쓰기 하쓰사부로(宇津木初三郎)

7)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었던 1852년 11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적 기념일. 현재 일본에서는 '문화의 날'로 삼아 이어오고 있다.

도판



<김제역>

<김제읍사무소>



<김제신사>



<김제 시가지>



(廳 郡 堤金)

<김제군청>



(署 察 警 堤金)

<김제경찰서>



(場 農 手 滯 堤金)

<김제 미조테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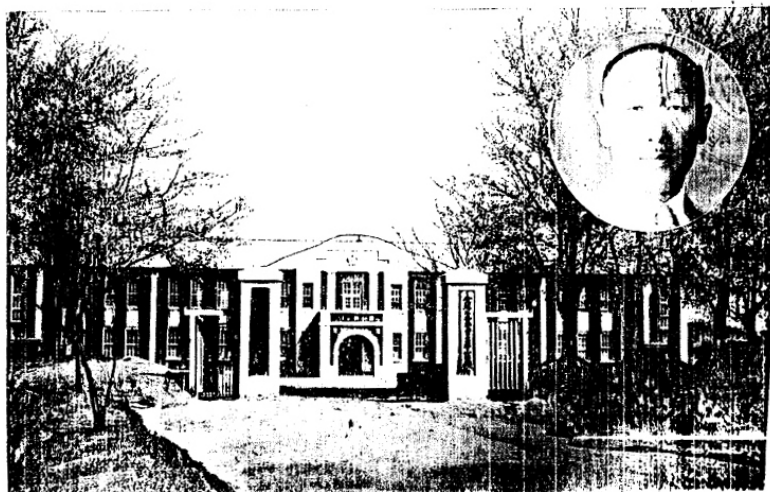
(金堤平富農場)

<김제 히라토미농장>



(社 會 式 株 業 農 縣 川 石 堤金)

<김제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長校田龜と校學女藝技 獎金)

<김제 기예여학교와 가메다교장>



(屋本熊クマヤ 獎金)

(合和融金 獎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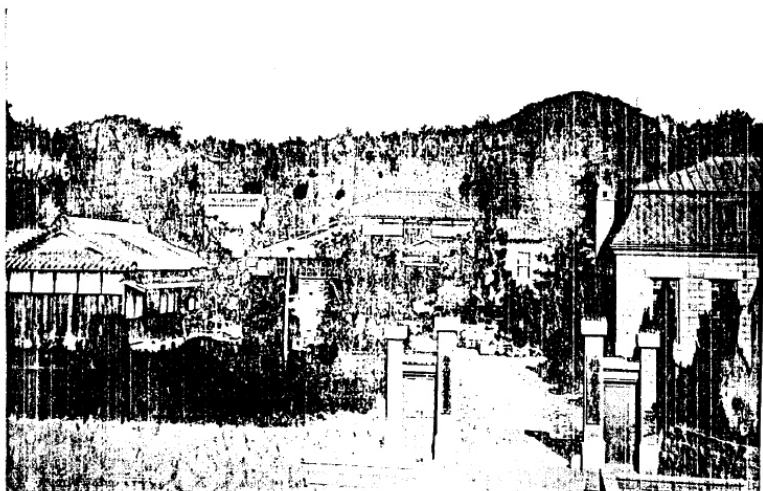


(場農律阿 獎金)

<김제 야마쿠 구마모토옥>

<김제 아베농장>

<김제 금융조합>



(釜山農本場 堤金)

<김제 하시모토농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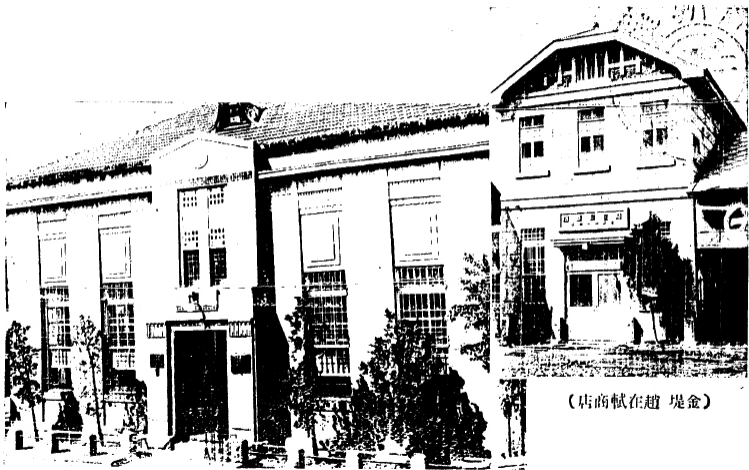
(金堤小學校舍)

(金堤正大旅館)

<김제 소학교교사>

<김제 동진수리조합>

<김제 대정여관>



（店商軒在趙堤金）

（店支行銀產殖堤金）

<김제 식산은행지점>

<김제 조재식상점>



氏央本橋長邑堤金
署理管合組校學獎金

<김제 읍장·학교조합관리자 하시모토 히로시>

총설

순로---시모노세키(下關)에서 부관(釜關)연락선을 이용하면 8시간 만에 조선의 대현관이라 할 수 있는 부산항에 도착한다. 이 부관연락선은 일본 내지와 조선을 연결하는 여객 수송 전용선으로, 철도성이 경영하며, 동요 제지 장치와 기타 제반 설비를 완비하고 있다. 풍파가 일터라도 선박의 동요가 심하지 않아, 험준한 현해탄의 항로에서도 다다미(畳)⁸⁾ 위를 미끄러지듯이 항해할 수 있으며, 해상에 익숙하지 않은 부녀자조차도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 부산항에 도착하여 상륙하면, 바로 경부본선(京釜本線)을 따라 북상하는 열차에 승차하게 되면, 약 6시간 후 호남선과 분기되는 대전역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호남선 열차로 환승하면, 열차는 가수원, 두계, 연산, 논산, 강경, 함열, 황등, 이리, 부용 등의 대소 역들을 차례로 지나 약 2시간 여 만에 김제역에 도착한다. 김제역은 동진(東津) 평야의 산업중심지로서, 이곳이 곧 호남지방의 요지로 널리 알려진 김제읍이다.

위치 및 지세

김제는 전라북도의 약간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김제군 김제면에 속한다. 이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북쪽으로 약 6리 지점에 전주가 있으며, 북쪽으로 약 3리를 가면, 주요 간

8) 일본식 돛자리

선도로인 전군가도(全郡街道)를 따라 이리로 통한다. 서쪽으로는 약 1리만 이동하면 동진강에 닿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호남선 철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운수 및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주 위에는 만경, 화호리, 신태인, 부용 등지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일본인 경영 대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동북부는 산림이 주를 이루며, 농경지는 대부분 밭농사에 적합한 지형이다. 반면 서남동 방향으로의 소위 옥야 천리라 불리는 대규모 평야가 펼쳐져 있어,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없다.

이 지역은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외진 시골 마을에 불과하였으나, 1910년 호남선 철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시카와현(石川縣) 농업회사가 이곳을 거점으로 농업 경영을 개시함에 따라 일본인 이주자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지리적 위치와 지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제는 지방관청이나 병영 등 행정 및 군사 시설의 설치지로서, 나아가 향후 농공업 발전의 중심지로서도 매우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제는 호남지방을 정복할 수 있는 추요지(樞要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풍토 및 기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서남동의 삼방이 개방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소 바람이 많은 편이나, 강풍이나 폭풍 같은 현상은 드물다. 토지의 대부분은 지대가 높고 건조하여 습기가 낮고, 기후

는 온화한 편으로, 한서의 차가 크지 않다. 그 기후 조건은 일본 내지로 환산할 경우, 도쿄 주변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6-7월의 우기를 제외하면 연중 강수량이 매우 적고, 공기는 항상 건조하여 가을 철처럼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아 쾌적한 기후 조건을 체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화씨 95도(섭씨 35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겨울철에도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드물다. 더욱이 조선은 전통적으로 삼한사온이라 불리는 데 한랭한 날씨가 3일 정도 지속되면 이어서 온화한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조선의 겨울이 외부인이 상상하는 것만큼 혹독하지는 않으며, 위생 상태 또한 일본 내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연혁

김제 지방은 고대 마한(馬韓)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기씨(箕氏) 42대 손인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의 난을 피해 해로를 따라 이 지역에 도래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현재 김제에서 동쪽으로 약 6리 떨어진 미륵산 기슭에 기준이 거주하였던 성지가 남아 있으며, 그 지세만으로도 당시의 도읍지 면모를 어렵듯이 엿볼 수 있다. 이후 기준의 세력은 백제 시조 온조왕에게 정복되었고, 백제는 다시 신라에 멸망하였다. 신라 문무왕 대에 이르러 김제는 전주에 속하게 되었다.

근대 이전 김제 지역은 구릉과 산기슭을 따라 3, 5 채의 민가가 드

문드문 흩어져 있는 한적한 촌락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06년 4월 구마모토현(熊本縣) 출신의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 씨가 처음 이곳에 정착하며 일본인에 의한 개척이 시작되었다. 그는 김제 지역에 거주한 최초의 내지인이자, 개척의 선구자이다.

폭도 횡행시대⁹⁾

한일병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감정치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융희 2년(1908년)에 한국 진위대를 해산하여,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권과 함께 병마권까지를 제국 정부의 손에 거둔 것이다. 진위대 해산에 대한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나고, 그 소문이 민간에 퍼지자, 일부 완강한 한인들은 이에 강한 반발을 보였고, 진위대 병사들 중에는 장래에 대한 비관으로 인해 탈주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처럼 탈주병 일부가 지방 폭도¹⁰⁾ 무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지방의 불온한 정도는 한층 위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폭도의 배후에는 경성의 고위 관리 등도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은 일시적으로 무정부상태였다. 김제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사찰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탈주병이 은거하였고, 인근 산 속에는 화도(火盜) 무리 수백 명이 폭도와 서로 섞여서 약탈과 방화를

9) 일제는 1907년 정미의병부터 1909년 남한대토벌작전까지의 호남 의병항쟁을 '폭도 횡행시대'라 규정하며 식민통치를 합리화했다. 이는 의병의 항일투쟁을 단순한 치안 교란으로 왜곡하고, 무단통치와 헌병경찰제 도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시 호남 의병은 국권 회복과 침탈 질서의 교정을 목표로 조직적 규율 속에 항전한 민족운동이었다. 따라서 '폭도'라는 명명은 저항의 정치성과 정당성을 지우려는 식민주의적 담론 전략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10) '폭도'라는 표현은 일제가 독립운동이나 민중 저항을 '질서 교란'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식민지적 용어이다. 이는 조선인의 항일투쟁을 정당한 저항이 아닌 '범죄'나 '난동'으로 왜곡함으로써, 무단통치와 탄압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언어로 기능하였다.

일삼는 일이 벌어졌다. 이 시기 김제 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빈번한 불안과 폭력 사태로 일상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08년 1월 14일 오전 2시 즉 초목조차 잠든 축시(丑時) 무렵, 수십 명에 달하는 폭도들이 김제를 습격하였다. 격렬한 충돌 끝에 중과 부적으로 밀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편소를 비롯해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씨 자택, 도쿠가와(徳川) 씨의 자택 등은 불타고 한두 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때 김제를 방문 중이던 군산의 쌀 상인 가와하라 헤이스케(川原平助) 씨를 포함한 2-3명의 상인들도 습격을 피해 도망쳤고, 그들은 참혹한 상황 속에서 논밭에 몸을 숨기며 밤을 보냈다. 심한 한기 속에 옷자락에는 얼음기둥이 맺힐 정도였으며, 추위를 견디며 밤새 피난해야만 했다.

이 소식은 하루가 지난 뒤 전주에 전해졌다. 전주 수비대에서는 바로 폭도토벌대를 편성하여 진압을 위한 출동에 나섰으며, 현재의 원평 인근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맹렬한 사격을 가하여 그중 두 명을 사살하였다. 이후 1909년 3월, 김제군 부양면 두인리 일대에 4-50명 규모의 무장 폭도들이 집결해 김제 습격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전해졌다. 이에 김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자발적으로 수비대를 조직하고, 총기를 소지한 자는 총을, 일본도를 가진 자는 일본도를 들고 출동하여 부서를 나누어 경계를 강화하였다. 결국 이러한 대응 태세에 위축된 폭도들은 김제 습격을 포기하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김제는 피해 없이 무사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모두 대열을 이루어 밤새 경계에 나섰고, 부녀자들조차도 밤을 세우며 집을 지켜야 했다. 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고 고단

함이 더해졌다. 친척이나 지인의 방문도 끊기고, 그가 지난 밤을 무사히 넘긴 것에 안도하며, 오늘 밤도 평안하길 기원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했으며, 사람들은 오직 생존의 요행을 빌며 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호구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김제의 변영은 일본인에 의해 전개되고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영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 호구의 증감은 어떠하였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6년 4월 12일 구마모토현 출신 미야모토 씨가 이 지역에 거주한 것이 일본인 정착의 시초였다. 이후 이어서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씨 무라마쓰 토라오(村松寅夫) 씨, 도쿠다(德田) 씨 등이 이주한 것이다.

1910년 호남선의 철도 공사에 따라 김제에도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었고, 철도 개통 이후의 변영을 예상한 사람들의 왕래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같은 해 말에는 일본인 거주 가구가 15호, 인구 48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1911년에는 이주자가 현저히 증가하여 29호 87명이 되었다. 철도 개통은 김제 정거장 일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해마다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등 내외 인구의 유입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23년에는 일본인 호수가 227호, 조선인 호수는 1,864호에 이르렀으며, 인



김제명소 정거장 거리 (출처: 김제시청 제공)

구는 일본인 968명, 조선인 8,790명이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1932년 김제읍 조사에 따르면, 김제읍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호구는 일본인 345호 1,344명, 조선인 2,739호 13,629명, 외국인 25호 76명으로, 김제는 이제 호남 지역의 중추적인 산업 도시로 발전한 것이다.(다음은 호구 통계를 표시함)

김제읍 호구표 읍 총계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일본인(호)	227	253	296	232	339	316	302	344	358	345
일본인(인)	968	1,014	1,173	1,404	1,290	1,291	1,251	1,452	1,493	1,344
조선인(호)	1,864	1,808	1,938	1,918	2,135	2,044	2,347	2,683	2,710	2,739
조선인(인)	8,790	8,906	9,001	10,512	10,224	10,253	10,575	13,629	14,276	13,629
외국인(호)	20	22	26	32	37	39	37	47	47	25
외국인(인)	71	72	83	70	118	115	106	163	163	76
계(호)	2,141	3,082	2,260	2,282	2,511	2,399	2,586	3,074	3,113	5,109
계(인)	9,829	9,992	10,207	11,986	11,633	11,659	11,932	15,244	15,932	15,048

호남의 보고 김제 발원지 전사

제1편 교육 및 종교

제2편 농업

제3편 교통 · 운수 및 통신

제4편 수리

제5편 관공서 단체

제6편 상업

제7편 공업

제8편 금융기관

제9편 오락 시설

제10편 명승고적

제1편 교육 및 종교

김제읍의 현재 교육 및 교육기관으로는 김제기예여학교, 김제심상고 등소학교, 죽산심상소학교, 김제공립보통학교 등이 있으며,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매년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중학교나 농업학교 등도 머지않아 설립될 시기가 도래할 것이며, 김제의 교육계 역시 장래가 매우 유망할 것이다.

김제소학교

1911년 2월 25일, 당시 김제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육영 사업을 등한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선인 가옥을 임시 교사로 삼고 자녀들을 위한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생 수는 겨우 7명에 불과했으며, 이것이 본교의 개교 기원이다. 별표와 같은 도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김제소학교 연혁 개요

1910.12.10	김제학교조합 설립인가
1911.2.20	조합 김제심상소학교 설치
1911.2.25	조선인 가옥[射亭]을 임시 교사로 개교 7명
1912.4.1	학제 개정의 결과 김제공립소학교로 개칭
1912.11.3	교육에 관한 칙어 등본 하사

1913.4.1	제2학급 편성
1913.8.2	고등과 병치 김제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
1913.12.3	현재의 교지를 매수하여 2 교실을 증축
1914.4.1	제3학급 편성
1915.4.1	제4학급 편성
1916.1.25	다이쇼(大正)천황의 어진영(御眞影) 봉대
1916.9.1	아동기숙사 설립
1917.2.6	황후 폐하 어진영(御眞影) 봉대
1918.4.1	제5학급 편성, 교사 증축
1918.4.29	보습과 설치 인가
1918.9.1	보습과 설치 제6학급 편성
1919.4.1	제7학급 편성
1922.4.1	제8학급 편성
1922.9.23	3 교실 증축
1924.4.17	어성혼(御成婚) 기념 봉안고(奉安庫) 구입
1927.7.17	어영(御影) 봉안소 설치, 봉천식 거행
1927.12.28	이과 교실 및 기계 표본실 증축
1928.10.5	다이쇼 천황 황태후 폐하 어진영 봉환
1928.10.13	금상 천황폐하 황후 폐하 어진영 봉대
1929.12.8	교사 개축 낙성식 거행
1930.3.1	보습과 폐지
1930.12.17	금상 천황폐하 황후폐하 어진영 봉환
1930.12.22	금상 천황폐하 황후폐하 어진영 봉대

직원 이동 일람표

관직	원직	인명	본교 취임연월일	본교 퇴임연월일	재고기간
교장	후쿠오카현	井上 瀧	1910.2.10	1914.3.31	4년 1개월
동	오이타현	並松 茂	1914.3.31	1919.9.18	5년 6개월
동	구마모토현	伊牟田包雄	1919.11.30	1923.4.27	3년 5개월
동	히로시마현	柿原幹太郎	1923.4.27	1925.3.31	1년 11개월
동	가고시마현	大迫義信	1925.3.31	1931.3.31	6년
동	이시카와현	龜田 正	1931.3.31	현재	
촉탁	가고시마현	松下フジ	1913.2.17	1914.6.19	1년 4개월
훈도	효고현	河本幸一郎	1914.3.31	1916.3.20	2년
동	아마구치현	吉井シヅヲ	1914.6.27	1918.4.10	3년 10개월
동	가고시마현	福森武次	1915.5.25	1920.9.15	5년 4개월

동	가가와현	谷川平次	1916.4.17	1924.3.31	7년 11개월
동	구마모토현	古閑俊男	1918.3.31	1920.5.31	2년 2개월
촉탁	아마구치현	眞木成子	1918.4.11	1925.12.31	7년 8개월
훈도	가가와현	谷川ユキ	1919.7.9	1925.3.31	5년 8개월
동	시마네현	高橋重子	1920.3.8	1921.12.15	1년 9개월
동	와카야마현	木村彌太郎	1920.5.31	1924.3.31	3년 10개월
동	군마현	小野里數馬	1920.10.31	1932.3.31	11년 5개월
촉탁	구마모토현	迎田政人	1922.10.10	1929.3.31	6년 5개월
훈도	에히메현	忽那三郎	1923.5.12	1925.8.31	2년 3개월
동	오이타현	大江鐵男	1924.4.23	1925.1.15	9개월
동	히로시마현	榑原昇	1924.4.28	1925.4.31	11개월
동	가고시마현	坂元弘	1925.1.15	1927.8.31	2년 7개월
동	후쿠오카현	吉田猛雄	1925.3.31	1926.6.16	1년 3개월
동	고치현	廣井淑	1925.3.31	1926.8.31	1년 5개월
동	후쿠오카현	山本善之助	1925.8.31	1933.3.31	8년
동	가고시마현	坂元シゲコ	1926.2.13	현재	
촉탁	아마구치현	藤井ツネ子	1926.3.12	1927.9.7	1년 6개월
훈도	아이치현	丸地義雄	1926.7.2	1928.3.31	1년 8개월
동	교토부	門脇農夫男	1927.8.31	1931.6.30	3년 10개월
동	사가현	北島保恵	1927.8.31	1932.3.31	4년 7개월
촉탁	아마구치현	松本ミツ子	1927.9.20	1929.12.31	2년 3개월
훈도	사가현	柳川宗道	1928.4.23	현재	
촉탁	가고시마현	本田修	1928.8.31	1929.3.31	7개월
훈도	도쿠시마현	國金縫三郎	1929.3.31	1931.1.6	1년 10개월
강사	교토부	門脇繁子	1929.12.31	현재	
동	히로시마현	山名ヲソノ	1930.5.2	현재	
훈도	가고시마현	三坂直	1931.3.31	현재	
동	가가와현	阪上重弉	1931.8.31	현재	
검훈도	시즈오카현	白谷幸子	1931.8.31	현재	
강사	가가와현	渡邊トシ	1931.8.31	현재	
훈도	도쿠시마현	玉井覺	1932.3.31	1933.8.31	1년 5개월
동	아마구치현	溝口チヨ	1932.3.31	1934.3.26	2년
동	돗토리현	前田良實	1933.3.31	1934.3.31	1년
동	가고시마현	三好敬二	1933.3.31	입영	
동	시마네현	門脇文子	1934.3.31	현재	
동	후쿠시마현	五十嵐倭平	1934.4.10	현재	
동	구마모토현	古川三十郎	1934.4.19	현재	

직원이동표 김제공립기여학교

관직	원직	인명	본교 취임연월일	본교 퇴임연월일	재교기간
교장겸 교유	이시카와현	龜田 正	1931.3.31	현재	
교유	교토부	門脇繁子	1930.4.17	현재	
교유	히로시마현	山名ヲソノ	1930.4.23	현재	
교유	후쿠오카현	白谷幸子	1931.4.16	현재	
촉탁	가가와현	渡邊トシ	1931.5.2	현재	
강사	사가현	柳川宗道	1930.4.17	현재	
강사	가고시마현	坂元シゲコ	1930.4.17	현재	
교유	군마현	小野里數馬	1930.4.17	1932.3.31	1년 11개월

조선인 교육사업

청일전쟁 후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이 급속히 전개된 계기로, 조선인에게 일본어와 보통학을 가르쳐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문명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일본인과 동화¹¹⁾시키려 한 것은 우리 대한 경영에 있어 근본적 의도에서 자못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모국(일본)의 유지들로 조직된 해외교육회나 동아동문회 등에서는 경성 및 조선 각지에서 일어학교를 설립하였고, 한국 정부 또한 기존의 경성일어학교¹²⁾를 확장하는 한편, 인천에 관립 일어학교를 신설하고, 부산의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일본어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조선에 거

11) 동화정책은 조선을 일본 국민으로 '동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추진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으로, 실질적으로는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치 수단이었다. 언어·교육·종교·풍속 등에 대한 강제적 일본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내선일체' 구호로 집약되었다. 결국 동화정책은 평등한 통합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문화적 수탈정책이었다.

12) 경성일어학교는 1890년대 후반 일본인의 조선 진출 확대에 따라 설립된 일본어 교육기관으로, 초기에는 조선 내 일본 거류민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병합 이후에는 조선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주입하는 식민지 동화교육의 전초기지로 기능하였다. 이 학교는 이후 경성중학교 등으로 개편되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었다.

주하던 유지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분야에 헌신적으로 힘
쓴 이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 전북에서도 군산 개항 이래, 전주를 비
롯한 여러 지역에서 일어학교 또는 그와 유사한 일본인 운영의 학교
들이 각지에 생겨났다. 비록 그 규모나 성과가 아직 크다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지들의 노력은 전북 지역 조선 민중에게 일정한
호감을 주었고, 수년간 일본인의 사업 운영에 많은 편의를 제공한 공
로에 있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제에서도 조선인 자체의 교육을 위해 사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
으며, 이 학교가 바로 현재 김제공립보통학교의 전신이다. 이 학교는
1911년 6월 24일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으며, 당시에는 3학급에 불
과했으나 해마다 학급 수가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12학급으로 확대되
었다. 초기에는 향교 건물을 임시 교사로 사용했으나, 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공간이 비좁아져 1922년 6월에 현재의 교사로 이전
하게 되었다. 현재 학생 수는 남자 517명, 여자 59명 도합 676명에 달
하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학교로 성장하였다. 한편 이 학교
는 아동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교화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학
부모회를 비롯해 부락 강연회 학예회 등도 끊임없이 개최하면서 농촌
지역의 계몽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도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김제소학교 아동부형후원회

1923년 5월 7일, 학교조합 관리자 하시모토 씨는 김제소학교 강당에 학부모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학교와 가정 간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하여,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가정이 보완하는 기관으로서 ‘아동부형후원회’를 조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회장으로서는 관리자 하시모토 씨를 추대하고, 회칙을 제정한 뒤 각 임원을 임명하였다. 후원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아동 장려에 관한 사항
- 가정 연락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연구 및 표창·조위(弔慰)에 관한 사항
- 그 외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 부회장 다카다 마사오(高田政雄)
- 간사 이케 마사미(池真澄)
- 간사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 간사 회계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 평의원
 - 1정목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 2정목 쓰네마쓰 히로가즈(常松寛一)
 - 3정목 사카에다 신페이(榮田辰平)
 - 3정목 이리베 도미조(入部富藏)

- 옥정 후지타 유이치(藤田祐市) • 원정 쿠니타 도쿠타로(國田徳太郎)
- 금정 다카노 규조(高野九藏) • 대정정 후카가와 마코이치(深川好市)
- 역전 하토모토 우메타로(波戸元梅太郎) • 김산 쓰지 엔지(辻園治)
- 하리 미야자키 유키(宮崎勇喜) • 제월 오가타 긴사쿠(緒方金作)
- 신월 기타가와 사부로(北川三郎) • 월봉 사토 카나메(佐藤要)
- 신타 나카야마 시게조(中山重三) • 성북 사카이 타이리츠(坂井太立)

김제교육회 부속 아동기숙사

이 기숙사는 1916년부터 김제청년교육회의 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김제학교조합 구역 내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락 아동이나 구역 외의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운영 방식은 사감 1명과 숙련된 취사부 1명을 두어 관리하였으며, 아동들로부터는 매월 식사비로 백미 1두(斗) 2승(升)¹³⁾과 부식물 대금 2원을 징수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교육회에서 부담해 왔다. 한편, 때로는 동척(東拓, 동양척식)회사¹⁴⁾로부터 연간 180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3-4회에 걸쳐 지급된 후 중지되었다. 이후 1923년도부터도 지방비에서 연간 350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왔으나, 1931년도부터는 금액이 250원으로 감액되었다.

13) 곡물의 단위로 당시 기준 약 18리터 정도.

14) 동양척식주식회사(1908-1945)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겉으로는 농업 진흥과 금융 지원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인의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거나 저당 잡아 일본인 이주인과 자본가에게 불하함으로써 식민지 토지 소유 구조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 회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조선 농민의 토지 상실과 일본 자본의 축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핵심 기관이었다.

기숙사 아동 수 표

연도	남자	여자	계
1930	15명	13명	28명
1931	11명	6명	17명
1933	10명	5명	15명
1934	10명	5명	15명

식사 담당자[賄方]는 김제학교조합에서 각 장날마다 적절히 구입한 식재료를 받아 이를 취사부에게 전달하고, 취사부는 조리뿐만 아니라 보모 역할도 겸하여, 아침저녁으로 아동을 돌보는 것은 물론 여아의 머리를 빗겨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친자식처럼 정성껏 보살피고 있다. 기숙사의 건물은 처음에는 조선식 가옥을 임차하여 아동들을 수용하였으나, 학생 수의 증가와 건물의 훼손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에 지방법원 김제출장소로 사용되던 관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내부 구조를 개조하고 대대적인 수선을 거쳐 기숙사를 그곳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학교조합이 관유물을 불하받았다.

김제청년교육회

김제청년교육회의 발족은 1915년 3월 22일, 김제군 월촌면에 위치한 마스토미(槲富) 농장의 지배인 히라토미 에이이치(平富榮一), 김제공립소학교장 나미마쓰 시게루(並松茂), 김제공립보통학교장 다카마쓰 류키치(高松龍吉) 이 세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김제청년교육회 취의서’를 발표한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같은 해 5월에 회원을 모집하고

회칙을 제정한 뒤, 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에는 히라토미 에이이치(平富榮一), 상임간사로는 다카마쓰 류키치(高松龍吉), 사무와타리 쓰네히코(猿渡常彦), 나미마쓰 시게루(並松茂), 가와모토 고이치로(河本幸一郎) 이하 생략.

1916년 김제청년교육회 회칙 제5조에 따라 교육회 부속 기관으로서 김제공립소학교 아동 기숙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록에 있음). 1923년 6월 회장 히라토미 에이이치 씨가 일본 본국으로 귀환함에 따라 사임하였고, 그의 후임으로 학교조합 관리자 하시모토 씨가 회장에 추천되어 회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이 사무는 학교조합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다.

〈김제청년교육회 회칙〉

1. 본회는 김제청년교육회라고 칭하고, 사무소는 당분간 김제공립심상고등소학교 내에 둔다.
2.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에 건전한 사상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의 추세에 뒤쳐지지 않도록 함에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찬조회원과 정회원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이 설립 및 유지에 특별히 원조하는 자를 찬조회원으로 하고, 본회의 취지를 찬성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입하며, 기타 회칙을 준수하는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4.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
 - 회장 1명, 상임간사 3명, 간사 8명, 단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5. 본 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성산문고 설치, 독서회, 강연회, 체육회 개최, 기타 관련 활동.
6. 본 회의 회비는 월 20전으로 하며, 매월 3일 이내에 납부한다.
7. 본 회의 유지비는 회비, 찬조회원의 원조,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8.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 임원의 소개를 받아 사무소에 신청한다. 정회원이 퇴회를 원할 경우, 그 뜻을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9.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탈회자로 인정되어 제명된다.
 - ① 3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 ② 본 회의 사업에 불성실한 자
 - ③ 본 회의 취지에 반하고 체면을 손상시킨 자
10. 본회의 회칙은 필요에 따라 적의(適宜)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회는 지금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 상임간사 가메다 다다시(龜田正)
- 상임간사 회계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 간사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男),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이케 마스미(池眞澄), 야나가와 무네타치(柳川宗道), 마에다 요시자네(前田良實), 사카가미 시게이치(阪上重式), 미사카 다케시(三坂式), 미요시 케이지(三好敬二)

김제신사 창립

김제신사의 창립은 김제 지역의 오랜 현안 중 하나였다. 김제의 유지들은 여러 차례 회합을 열어 협의를 거듭했으나, 신사 부지 선정 문제가 늘 쟁점이 되어 사업이 쉽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22년, 마침 김제군청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고, 읍내와 역전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일치되던 시기였다. 이 무렵, 신사 부지 선정을 하시모토 학교조합 관리자에게 일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그의 일임이 결정되었다. 하시모토 관리자는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 및 당시 경찰서장이던 도고(東郷) 씨와 상의한 후, 읍내와 역전 사이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후보지를 조사하였다. 후보지로는 현재의 동진수리조합 뒷산과 성산공원이 있었는데, 전자는 묘지가 인접해 있어 부정(不淨)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성산공원은 옛 성터로 조망이 매우 뛰어나고 청결한 상태를 유



성산공원에서 본 시가 전경 (출처: 김제시청 제공)

지하고 있어, 최적지로 인정되었다. 이에 하시모토 관리자는 1924년 1월, 당시 황태자 전하의 결혼[御成婚]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성산에 신사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군서무주임 야쿠시진 세키타로(藥師神積太郎)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읍내 및 역전의 유지들을 군청에 소집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했다. “역전과 읍내의 중간 지점에 오타비쇼(御旅所)¹⁵⁾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성산에 신사를 건립하자”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1924년 3월 10일, 하시모토 관리자는 김제군 내 각 관공서의 수뇌부, 각 면장, 지방 유지들을 김제소학교 보습과 교실에 초청하여, 김제신사 위치와 건립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신사 명칭을 김제신사로 결정하였다. 숭배의 대상을 김제군 전역의 주민으로 설정하여 드디어 신사 건

15) 제례 때 임시로 神體를 모시는 장소

립을 결의하였다. 이에 하시모토 씨는 김제신사 창립 총대에 추대되어 1924년 3월 10일 자로 조선총독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사 창립비 및 비용 조달 방법

신사 건축비(울타리를 포함) 4,580원

배전(拜殿) 건축비 3,000원

책(柵) 공사비 615원

데아라이바치(手洗鉢)¹⁶⁾ 500원

토공비 450원

도라이(鳥居)¹⁷⁾ 2기 480원

설비비 및 사무비 650원

계 10,275원

위 신사 창립 비용은 경신자(敬神者, 신자나 지역 유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유지 방법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바탕으로, 김제군 내 거주하는 일본인 우지코(氏子)¹⁸⁾로부터 매월 20전, 15전, 10전, 5전 등 차등을 두어 분담금을 징수하였고, 그 외에도 일본인과 조선인 독지가의 기부금 및 사이센(塞錢)¹⁹⁾으로 매년 제전비, 수선비, 신직 수당 및 기타 잡비를 충당하였다.

16) 손을 씻는 물을 넣어 두는 주발

17) 신사의 입구에 세운 신의 영역을 나타내는 일종의 문

18) 김제 신사를 모시는 지역 주민들

19) 신불에 참배하고 올리는 돈

1924년 5월 20일 혼다(本田)²⁰⁾ 임학박사가 김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김제신사의 신전 및 배전의 배치 등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혼다 박사는 성산 정상의 동쪽 일부를 절단하여 그곳을 신전 건립 부지로 삼을 것을 제안했으며, 참배로(參道)는 만경 도로에서 신전 방향으로 새롭게 개간할 것을 지시하였다.

1924년 9월 3일, 김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김제 신사의 설립이 총독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하시모토 대총대(大總代)는 11월 13일 총대회를 소집하여 신사 경내의 정지 작업과 건축 공사 개시에 착수할 것을 협의하였고, 11월 23일에는 기공식[鍬入式]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후 공사는 계속해서 김제 주민들의 손으로 진행되었고, 1925년 4월 20일 군산 신사 사장(社掌)인 스기노 세이조(杉野清造) 씨를 불러 지진제(地鎮祭)를 집행하였다.

이어 1926년 3월 17일, 본전 건축 공사는 익산군 이리읍의 이케다 슈조(池田秀藏) 씨에게 총액 2,620원에 도급 계약되었으며, 3월 20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5월 25일에는 상량제(上棟祭)를 집행하고, 6월 20일에는 낙성식이 무사히 거행되었다.

본전 건축위원은 다음과 같다.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구보 슈이치(久保秀一), 에하라 요시오(榎原義夫), 쓰네마쓰 히로가즈(常松寛一),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나카즈카사 기요시(中務潔),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20) 혼다 세이로쿠(本多静六, 1866-1952)는 일본의 임학자, 造園家로 일본 '공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도쿄제대 농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김제신사에서는 그에 앞서 천조황대신궁(天照皇大神宮)²¹⁾ 별대마(別大麻)²²⁾를 김제신사의 미타마시로(御靈代)²³⁾로 배청하고자 관련 기관에 청원을 제출해 두었다. 1926년 6월 14일 미타마시로가 조선총독부에 도착하였다. 26일 하시모토 대총대는 군수대리 야쿠시진 세키타로(藥師神積太郎), 경찰서장대리 돈구 구스로쿠(頓宮楠六),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씨 등과 함께 성산에 올라 미타마시로를 배수한 뒤 김제로 돌아왔다. 6월 28일, 김제 시민 다수는 신체(神體)를 역 앞까지 나아가 맞이하였고, 그날 어진좌제(御鎮坐祭)²⁴⁾를 집행하였다. 7월 28일, 신직(神職)²⁵⁾으로 오다케 겐조(大竹劔三) 씨를 추천하였으며, 11월 1일 자로 임명되었다.

그 뒤 8월 11일 하시모토 총대는 김제학교조합 내에서 김제신사 총대회를 열고 배전(拜殿) 건축 및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를 거듭한 끝에 도급계약을 마무리하였다. 건축위원으로는 쿠니다(國田), 오카모토(岡本), 마쓰모토(松本), 야기(八木), 가와사키(川崎), 이노우에(井上)의 6인을 선출하였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배전도 무사히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성산공원 일대는 더욱 청정하고 장엄한 신성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아침저녁으로 참배객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늘었고, 매년 춘계·추계 두 차례의 대제(大祭)도 엄숙히 거행되고 있다. 또한 경내에는 신사 사무소가 있다.

21) 天照大神(아미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伊勢神宮의 內宮인 皇大神宮의 별칭.

22) 이세신궁에서 발급되는 산표

23) 신의 영혼을 상징하는 매개물로, 일본 신사에서는 이를 모셔 神體로 삼는다. 靈寶, 위패라고도 한다.

24) 神體가 신좌에 안치되는 것을 기념하는 제사.

25) 신사의 사무와 제례를 관장하는 직책.

제2편 농업

조선의 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농업이다. 13도 전체를 통틀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촌 지역의 어민과 도시·읍내의 상공업자 정도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의 8-9할은 대개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더구나 일본 내지와 비교해보면, 조선은 인구 밀도가 낮고 경작 가능한 비옥한 토지가 많으며, 지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새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호남지방은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조선 쌀 생산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의 농업을 이야기할 때 이 지역을 빠뜨리는 이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일본 내지에서 농업 경영을 꿈꾸고 새로 조선으로 이주하는 이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이 지역에 발을 디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제는 넓은 평야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토질이 매우 비옥하다. 특히 수리사업이 완비되어 홍수나 가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으며, 여기에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운수와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이처럼 영농지로서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호남지방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망한 농업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에 따라 김제를 중심으로 반경 2-3리 이내 지역에는 일본에서 온 농업 이주자들의 거주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부락마다 반드시 3-5 가구 이상의 내지인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관계 부처의 조사에 따르면, 김

제 부근에서 ‘내지인’²⁶⁾이 소유한 경지 면적은 1만 정보 이상에 달하며, 투하 자본액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내지인 소유의 경지를 전라북도 전체 평야의 총면적과 비교하면, 아직 그 비중이 크다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김제 부근의 농업 또한 장래가 정말 유망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는 경지의 가격, 수확량 및 기타 지표에 대해 말해보자.

경지의 가액(價額) 및 수확

예로부터 조선에서는 경지 면적을 계산할 때 두락(斗落)²⁷⁾이란 명칭을 단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두락의 실제 면적은 지방에 따라 편차가 심해, 넓은 곳은 한 두락이 250평이 넘기도 하고, 좁은 곳은 100평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불편한 점이 있다. 토지를 매매할 때마다 일일이 실측 조사가 필요한 정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일병합 이후 토지조사국에서 기존의 두락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 본토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한 결과, 현재는 토지 매매시 ‘평’을 기준 단위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되었다. 최근 김제 부근에서의 토지 매매 사례를 보면, 도로와 접해 있는 시가 인접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논은 평당 35전에서 80전, 밭은 평당 20전에서 50전까지의 시세

26) ‘내지인’은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 출신자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일본인을 지배계층으로, 조선인을 피지배계층으로 위계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일본어 원서의 표현을 살리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일본인으로 표기하였다.

27) 두락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토지 면적 단위로, 본래 논·밭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수확면적’을 의미한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이후 이 단위를 헥타르로 환산하여 조세 및 수리세 부과 기준으로 삼았으며, 결과적으로 두락은 조선 농민의 생산력과 과세 능력을 측정하는 식민지적 행정단위로 기능하였다.

를 보이고 있다. 이 가격은 일본 본토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그 차이가 놀라울 정도이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하는 요즘 일본에서는 밭 1단보(段歩, 약 300평)의 가격이 500원 이상에 이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 이상으로는 구입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선의 토지는 일본에 비해 실로 값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 본토의 토지 가격은 이미 정점에 도달하여 앞으로는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선의 토지, 특히 호남지방의 토지는 이제 막 가치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가격은 점점 상승세에 있으며, 머지않아 일본 본토의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자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호남 지역의 토지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실제 수익성은 어떤가? 자작농과 농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상답(上畝) 1단보당 벼(粳) 5석, 중답 3석 5두, 하답 2석이 평균 수확량이었다. 여기에 경작 비용과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하더라도, 토지 매수 가격에 비해 연간 수익률은 투자 대비 연간 수익[年數割] 기준을 넘는다. 뿐만 아니라 소작으로 농을 경우에도 연 10%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양잠업

양잠은 농가 부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오래전부터 장려되어 왔다. 은사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주로 양잠 장려비로 충당되

어, 잠종(蠶種)과 뽕나무 묘목(桑苗)을 무료로 배포하고, 양잠 강습생을 육성하는 등, 양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이러한 장려책에 힘입어, 최근 누에 사육 농가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조선은 일본 본토에 비해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누에 사육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잠실(누에 치는 방)은 흙바닥[土間] 구조만 갖추고 천연적인 조건에서도 사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건강한 누에를 길러낼 수 있고, 생산되는 고치의 양도 많으며, 광택과 탄력 면에서도 일본산보다 오히려 우수하다. 양잠업에 뜻이 있는 이들은 부디 김제지방을 그 출발점으로 삼기를 권한다.

기타 부업

양계나 양돈과 같은 유망한 부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되어 있다. 김제 인근에는 모범적인 양계 조합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이 유망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호남지방은 쌀 생산지로 유명하며, 그 생산량은 수백만 석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군산항을 통해 외부로 반출되는데, 연간 수출량만 해도 백만 석을 넘는다. 이처럼 쌀을 포장하는 데 필수적인 가마니의 수요는 매우 크다. 가마니 제작은 농가의 유일한 부업이고 주로 조선인 농업자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 김제군 내에서 생산되는 가마니는 연간 80만 장에 달하며,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농사경영자

김제를 중심으로 전북 평야 일대에 퍼져 있는 일본인 농사경영자들 가운데, 대규모 농장만해도 10곳이 넘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농사경영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근년 들어 수리 사업이 완공되면서, 김제 인근의 농업 경영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제부터 김제 부근의 대표적인 농사경영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제군 죽산 하시모토 농장

김제군 죽산면의 하시모토 농장을 경영하는 하시모토 히로시(橋本 央) 씨는 히코(肥後)²⁸⁾ 난간(南關)에서 태어나 구마모토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이쿠유코(育雄校)²⁹⁾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구름처럼 원대한 포부를 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3년간 유학하며 러시아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오노다(小野田)시멘트 회사 출장소 주임으로 활약했으나, 일본과 러시아 간 국교가 단절됨에 따라 만주에서 중군하게 되었다. 1905년에는 조선으로 건너가 군산에 거처를 정하고, 농사의 경영뿐 아니라 정미업, 제염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산 지역의 공공사업에도 공헌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후 거처를 현재의 김제군 죽산면으로 옮겨, 간척사업에 착수해 10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150정보의 비옥한 전답을 완성하였고, 기존의 소유지와 합쳐 총 300정보에

28) 현재의 구마모토현

29) 일본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

달하는 농장을 일구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죽산면 한켠, 뜨거운 태양 아래 찬란히 빛나는 구리 지붕의 양옥은 그의 성취를 상징한다. 하시모토 씨는 400명에 달하는 소작인들로부터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인격과 덕망은 단지 소작인들뿐만 아니라 사방의 일본인 농사경영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추앙받고 있다. 그는 농사경영자의 선배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고희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활력 넘치고 기개가 젊은이 못지않다. 이러한 원기는 굳은 의지, 절제력, 규칙적인 생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기관리 덕분이다. 또한 하시모토 씨가 이주해 온 당시, 죽산면 일대는 항상 가뭄과 수해를 입은 토지였지만, 그가 이곳에 거처를 정한 후 주변 농사경영자들과 협력하여 1921년에 비로소 죽산보(竹山洑)를 완공, 오늘날과 같은 비옥한 전답을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접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 지휘·감독에 임하며 몸소 실천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그의 헌신과 고심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하시모토 씨는 진정한 분투형 실업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며, 후진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경영자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은 이들 타츠미(巽) 씨에게 맡기고, 관선 전라북도 평의원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한편, 초대 김제읍장 및 김제 학교조합 관리자로도 활동하며 김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제 이시카와현 농업주식회사

아름다운 초목과 알차게 묶인 벼단[稻束], 그리고 풍요로운 토지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로서, 모든 식물은

이 땅에서 싹을 틔우고, 수명이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즉, 땅은 식물의 근원이자 생활의 터전이다. 좋은 땅에서는 작물이 건강하게 싹트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 경작자의 기대를 채워준다. 땅은 비료의 도움으로 더욱 비옥해지고, 작물은 이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자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땅과 비료, 그리고 노력’ 이 세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산미의 개량과 증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농업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 농장이, 김제에 자리한 이시카와 농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시카와 농장의 정식 명칭은 이시카와현 농업주식회사이며, 1908년에 처음 김제에 설립되어, 이 지역 일본인 농업경영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설립 초기의 지배인은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씨였으며, 현재의 지배인은 모토야 아이지로(本谷愛次郎) 씨이다. 회사 이시카와 농장의 자본금은 40만 원, 논 면적은 1,500정보, 연간 수입은 14만 원에 달한다고 하며, 김제 지역 농업경영자 중 단연 으뜸이라 할 만하다. 특히 이시카와 농장의 경영 방식 가운데 가장 이채로운 것은 소작료 중 금비(金肥)³⁰⁾를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장농회(獎農會)를 설치하고, 3개년 소작 계약자 중 성실하게 소작료를 완납한 자에게는 쌀 1석당 20전을 환급 지급하고 이를 저축시켜 그 총액이 수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도 농장의 시설

30) 농가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화학비료로 ‘구입비료’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농가에서 자가 생산이 가능한 비료를 ‘자급비료’라고 한다.

로는 경우(耕牛), 우차, 수차, 농사 자금 대부, 녹비(綠肥)³¹⁾ 장려 등이 있으며, 농가의 부업에 뜻을 두고 농촌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배인 모토야 아이지로 씨는 드물게 보는 온후한 사람이다.

김제 아베이치(阿部市) 상점 김제 농장

김제 지역은 예로부터 전국 굴지의 쌀 생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산재하는 많은 농장 중에서도 규모의 확장, 성과의 우수성, 농사의 모범을 보이며 지방 농민을 지도하고 조선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농장 중 하나로는 아베이치 상점 김제 농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농장은 1912년 이곳에 임시사무소를 열고, 전임 농장주임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가 그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뒤 1913년부터 처음으로 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1916년 봄에 제1기 예정된 매입 계획을 마무리하고, 이후 그 소유지의 개량과 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어 제2기, 제3기의 매입을 계속하여 현재는 무려 1,200정보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소유지는 김제군, 정읍군, 부안군의 각군에 걸쳐 있다. 소작인 수는 약 1,6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원 조선인 소작인이다. 농장이 개설된 이래 15년간 한결같이 철저히 농촌 개선과 민심 진작, 지도에 힘써 왔고, 그 성과는 실로 뛰어나 주변을 압도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농장은 오사카시 히가시구(東區) 미나미구타로초(南久太郎町) 2정목에 거주하는 아베 이치타로(阿部市太郎) 씨와 후사지로(房次郎) 씨 형제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또한 후사지로 씨는 동양방적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하여 여

31) 꽃거름, 즉 풀이나 콩과 식물을 갈아엎어 만든 퇴비성 비료.

러 주식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실업계의 권위자이다. 한편 시타로 씨는 고쇼(江商)주식회사 사장 등의 직을 맡고 있는 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두 형제 모두 농업계에서도 거물로 꼽히며, 스스로도 그렇다고 여기고 타인도 인정하는 인물이다. 또한 농장이 자랑하는 주요 시설로는 개량 종자의 갱신, 경우(耕牛) 예탁, 목초 장려, 마름[畚音] 및 소작인저금조합인 사음회 등이 있다. 사음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려, 농장 사업에 대한 협의 및 농사에 관한 강연이 이루어지며, 성실한 소작인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해 왔다.

주임 가와사키(川崎) 씨는 농장이 개설될 당시부터 근무해 왔으며, 전임 주임이었던 오쿠무라 다케사부로 씨를 보좌해 온 인물이다. 이 농장에서는 항상 소작인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

김제 동진농업주식회사

전라북도 평야의 옥토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은 동쪽에서 서로 흐르며 전북을 관류하고, 마침내 황해로 유입된다. 이 두 강에 의해 형성된 반도는 간조 시 수천 정보에 달하는 간척지를 드러낸다. 이 간척사업에 착안한 것이 동진농업주식회사이다. 본 회사는 자본금 200만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오사카에, 지점은 김제군 성덕면 남포에 두고 있다. 사업 대



아베 후사지로



1928년 동진농업주식회사 첫 농사 (출처: 김제시청 제공)

상지는 성덕면과 진봉면에 걸친 동진강 하구의 1,700정보에 이르는 광활한 간석지이다. 1925년, 동진수리조합 창립과 함께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1,100명의 소작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산미 증산 및 염전 사업에 힘쓰고 있다. 사장은 일본의 3대 방적회사 중 하나인 동양방적주식회사 사장으로, 실업계의 거물인 아베 후사지로(阿部房次郎, 1868-1937)³²⁾ 씨이다. 농장의 지배인은 전라북도의 전직 농무과장인 이카리 코스케(猪狩恭介) 씨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동진농업주식회사는 국가적 대사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업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날에는 그 성과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2) 시가현 히코네시(滋賀縣彦根市) 출신으로 1914년 오사카(大阪)방적과 미에(三重)방적이 합병하여 동양방적이 발족하자 전무로 근무하다 1926년에 사장이 되었다. 이후 오우지(王子)제지, 오사카상공회의소 고문, 대일본방직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31년 귀족원의원이 되었다.

김제 마스토미(槲富) 농장

김제군 월촌면을 중심으로 김제군 일대에 약 580정보의 논과 약 100정보의 밭을 소유하고, 약 600여 명의 소작인과 더불어 협력하여 산미의 개량과 증식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마스토미 농장이다. 농장의 소유주 마스토미 안자에몬(槲富安左衛門) 씨는 기독교의 독실한 신자로 알려진 온화한 인물이다. 그는 1927년까지는 고창군 부안면의 농장에 있으면서,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설립에 뜻을 두고 지역의 유지인 홍 씨와 함께 협력하였다. 마침내 교사를 신축하고, 당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 남작의 참석 하에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마스토미 씨는 1927년 고창 농장의 일부를 홍 씨에게 넘기고 김제군 월촌면으로 농장 거점을 옮겼다. 그는 평소에는 도쿄에 거주하면서 농장 경영은 작년까지는 이토 지배인에게 맡겨 왔으나, 이번 마스토미 타로 씨가 경영하게 되었다. 소작인들과의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산업의 개선과 생산량 향상에 힘쓰며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제 나카시바(中柴)산업주식회사

나카시바산업주식회사는 본래 1906년, 김제군 청하면 신창진에서 나카시바산업부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1918년,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었다. 창립 이후로는 나카노 소자부로(中野宗三郎) 씨가 사장직을 맡아 회사를 이끌었으며, 나카노 소이치로(中野宗一郎) 씨는 상무로서 전념하여 회사를 운영해 왔다. 회사의 자본금은 100만원이며, 충청남도 논

산에도 출장소를 두고 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농업, 식림, 축산, 개간 사업이며, 그 외에도 부대사업으로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보유 토지는 논 150정보, 산림 및 밭을 포함한 총 880정보에 달한다. 경영 방식은 나카노 씨가 오랜 경험에서 체득한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액소작제[定租制]³³⁾를 기본으로 하되, 검견(檢見)³⁴⁾ 방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고 있으며, 경작인조합도 조직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농장에서는 수도시험(水稻試驗)³⁵⁾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 축산, 양어(養魚) 그리고 도정[粳搗]³⁶⁾ 공장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시설 사항으로는 농민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한기에는 마을을 순회하며 강연을 실시하고, 우수한 경작인 및 조합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는 항상 근검절약과 저축 생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소유하고 있는 논에 대해 경지 정리에 착수하여, 마을 농민의 부인 노동을 장려하고, 종자 갱신과 개량 품종의 보급, 경우의 증식, 개량 농기구의 보급 자금의 융통, 부업 장려 등 다양한 농업 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량 사항으로는 정조식[正條植]³⁷⁾과 단책못자리[短冊苗代]³⁸⁾ 방식을 장려하고, 수확기에 접어들면 변당료(辨當料)³⁹⁾를 지급하며, 녹비 재배, 해충 구제, 감자[馬鈴薯] 재배 등 모든 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회사에서는 공로자 및 모범 소작인에게 여비를 지

33) 수확량과 관계없이 일정 소작료를 정해두는 방식.

34) 실제 수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소작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정액소작제와 반대되는 방식이다.

35) 벼에 대한 품종, 재배법, 생육 상태, 수량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36) 벼에서 길쭉질을 비벼 벗기는 작업.

37) 벼를 줄지어 고르게 심는 방식.

38) 직사각형 모양의 모판에서 육묘하는 방식.

39) 수확 시 지급되는 수고비.

원해 박람회나 공진회 등의 관광 시찰을 시켰다. 전라북도 내의 대농장 중에서도 회사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은 10여 개에 불과한데, 나카시바산업은 지주와 소작인이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사장 나카노 씨는 지역에서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존경받고 있으며, 지방 공공을 위한 노력도 적지 않다.

김제 미조테(溝手) 농장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에 사무소를 둔 미조테 농장은 오카야마현 츠크보군(都窪郡) 하야시마정(早島町)에 거주하며 오카야마 지역의 유력 실업가이자 고액 납세자인 미조테 야스타로(溝手保太郎, 1877-1933)⁴⁰⁾ 씨가 경영하고 있다. 이 농장은 김제, 정읍, 논산의 3개 군에 걸쳐 약 400여 정보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산미 개량을 위해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다. 현재 농장의 지배인 나카즈카사 기요시(中務潔) 씨는 오카야마현 출신의 유망한 신진 농업 전문가로, 이 대규모 농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조테 씨를 도와 정부의 산미 증산 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는 농사 개량과 부업 장려에 헌신하는 소작인들로부터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존경을 받고 있다. 또한 성품이 온화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아직 젊다.

40) 오카야마현 츠크보군 출신의 대지주로 1910년 이후 조선에서도 토지를 구입하여 농장경영에 착수하였다. 구라시키(倉敷)방적, 오카야마합동저축은행 두취 등을 역임하고, 1923년 오카야마현 다액납세자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김제 히라토미(平富) 농장

김제의 히라토미(平富) 농장은 오랫동안 김제군 월촌면의 마스토미 농장에서 주임으로 근무해 온 히라토미 에이이치(平富榮一) 씨가 경영하고 있다. 히라토미 씨는 현재 일본 본토에 거주하고 있어 농장 운영에 여러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경영 전반을 요시마루 요사쿠(吉丸與作) 씨에게 일임하고 있다. 요시마루 씨는 수년 전까지 월촌면에 거주하며 농사 개량과 산미 증산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시골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작년에는 김제 읍내로 거주지를 옮기고, 당당한 주택을 신축하여 정착하였다. 그는 농사 방면에 열심일 뿐 아니라 공공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김제 학교조합 의원으로서 교육 행정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그는 김제토요회 회원으로 입회한 이후, 지역 산업 개발과 농사 개량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헌신적인 운영 아래 히라토미 농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만경 다키(多木) 농장

김제군 만경면에 있는 다키(多木) 농장은 중의원의원 다키 구메지로(多木桑次郎, 1859-1942)⁴¹⁾ 씨가 경영하는 농장으로 총 면적은 약 1,000정보에 달한다. 다키 씨는 이 지역에 농장을 개설한 이래로, 방파제 신설과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농장 개설 초기

41) 효고현(兵庫縣) 가코가와시(加古川市) 출신으로 일본에서 화학비료를 최초로 만든 다키製肥所(현재의 다키화학) 창립자로 '비료왕'이라 불린다. 일본농촌진흥연구회 회장, 중의원 의원, 귀족원 의원을 역임하였다. 조선에서는 농장 및 산림을 경영하고 조선농회 교문을 지냈다.

에는 단보당(反當?) 수확량이 매우 적었지만, 종업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수확량이 증가했고, 최근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농장에서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협력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산미 증산과 품종 개량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작년에는 약간의 태풍 피해로 인해 평년보다 20-30% 가량의 수확



다키 구메지로

감소를 겪었으나, 소작료의 수납은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지주와 소작인 모두 갈등 없이 함께 산미 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키농장은 앞으로 더욱 뛰어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제3편 교통·운수 및 통신

산악과 평야가 풍부한 자원을 품고 있고, 강과 깊은 바다가 수많은 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에 힘을 더하고, 시설과 경영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자원들을 개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김제는 전북 평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예로부터 조선 유수의 쌀 산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예전에는 조선에 도로가 없었다’고까지 평가한 것처럼, 김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도 수리를 한 적이 없고, 도로라고는 이름뿐인 경우가 많았다. 길은 곳곳이 무너지고 파손되어 울퉁불퉁하며, 겨울철 눈이 녹거나 여름철 장마에는 질퍽한 진창이 되어 정강이가 빠지고, 수레, 소달구지조차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인 쌀도 예전에는 수운에 의존해 겨우 군산 방면으로 반출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통감정치 이후, 더 나아가 한일병합 이후, 본격적으로 교통기관의 확충을 기획하고 차도 개설과 철도 부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호남의 보고라 불리는 김제평야의 풍요로운 자원도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각종 교통·운송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도로

김제를 기점으로 한 주요 도로는 다음과 같다. 김제에서 목천포를 지나 이리에 이르는 노선, 김제에서 만경을 거쳐 군산으로 이어지는 노선, 그리고 김제에서 죽산면을 통과해 동진강을 건너 부안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다. 이외에도 김제에서 금구를 거쳐 전주로 가는 노선과 원평을 지나 경목선에 연결되는 노선, 그리고 김제에서 화호리를 통해 부안 신태인 방면으로 통하는 길 등이 있다.

이들 도로는 모두 김제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어, 각지와의 교통이 원활하고, 특히 전주, 군산, 이리로 통하는 노선은 평탄한 도로이며 보수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어, 운송과 교통이 극히 편리하다. 그 결과 김제에서 전주, 부안, 군산, 이리, 춘포 등지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도로도 차량과 마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물자의 집산에 매우 편리하다.

호남철도

경부선 대전역에서 분기하여 호남의 비옥한 평야를 가로질러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일반적으로 호남선이라고 부른다. 김제는 이 호남선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김제평야를 배경으로 여객과 화물의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이용객과 수송량이 증가하는 추



호남선 김제 전경 (출처: 김제시청 제공)

세를 보이고 있다. 1933년도의 김제역 실적을 보면, 화물 발송량이 45,865톤, 도착 화물 32,794톤, 이에 따른 수입은 57,382원이었으며, 여객 수송은 승차 인원이 110,167명, 하차 인원이 110,584명으로, 이로 인한 수입은 70,922원에 달했다. 특히 미곡의 반출량은 1912년에는 겨우 134톤에 불과했으나 1933년에는 무려 43만 5천 톤에 이르렀다. 이는 매년 철도 이용객의 급증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도로의 개수

1911년에는 군산에서 김제까지 도착하려면 이른 아침부터 도보로 출발하거나 조선의 명물인 가마[籠] 혹은 조선산 말[鮮馬]을 타야 했는데, 교통 여건이 매우 불편했다. 도로는 좁아 수레나 마차의 통행이 어렵고, 임피의 고개[見返峠]를 넘은 후 신창진을 거쳐야 했으며, 일몰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7리 길을 도착할 수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면사무소는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실질적으로 학교조합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거류민단과 유사한 기능을 대신하

고 있었다. 그 관리자인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씨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유지들을 여러 차례 모아 회합을 갖고, 마침내 전라북도 관찰부(현 전라북도청)에 직접 상경하여, 도지사와 교섭하고 토목 주임인 오다(小田) 기수 및 통역관을 김제·목천포 간 실지 조사를 위해 출장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이 현지 조사에는 기타오 씨 외에도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무라마쓰 토라오(村松寅雄),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후쿠시마 지로(福島二郎) 씨가 함께 참여하였고, 이들은 김제면에서 목천포에 이르는 도로를 실사하였다. 이 도로는 김제 개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 오다 기수가 측량한 본선을 따라 제1구, 제2구, 제3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제1구는 김제를 지나 약 2리 떨어진 황경동까지, 미야모토 우이치로 씨는 도청 사업 감독관에 임명되어 감리를 맡았으며, 제2구는 황경동에서 울교리까지 약 1리 간으로 오사토 가쓰타로(大里勝太郎) 씨가 감독을 담당하였다. 제3구는 울교리에서 목천포까지 약 반리 구간으로 후쿠시마 지로 씨가 역시 도청사업 감독관으로서 회계를 겸하여 맡았다. 이 도로공사는 1911년 4월에 기공하여 같은 해 6월에 준공, 개통되었다.

이 도로의 개통은 철도 공사에 큰 편의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군산으로 향하는 우회도로가 불완전하긴 했지만 수레나 마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철도선로 변경 운동

철도국 호남선의 측량기사 일행이 출장하여 김제 부근을 측량할 당시, 3개의 노선이 검토되었다. 제1노선은 김제읍에서 약 1리 떨어진 동남쪽 방봉산의 산기슭을 통과하는 경로였고, 제2노선은 만경을 지나 김제읍의 서쪽을 지나는 경로, 그리고 제3노선은 현재와 같은 평야를 가로지르는 노선이었다. 철도국에서는 당시 대흥수 시 평야부 노선(제3선)이 침수 위험이 있어 기차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1노선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학교조합 관리자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씨는 이를 김제 주민에게 알렸고, 지역 유지들은 이를 김제의 생존이 걸린 중대사로 간주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에 유지들은 여러 차례 회합을 열고, 결국 제3노선 채택을 목표로 운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독부에 진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오 에이타로 씨 및 야스다케 쓰도무(安武懋) 씨가 직접 상경하여 총독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로 제3노선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김제 지역 주민들은 크게 안도하였다.

철도선로는 1912년 10월, 호남선 김제 이북 구간이 개통되었고, 지역의 관민이 합동하여 성대한 개통 축하회를 거행하였다. 발기자이자 관리자였던 기타오 에이타로 씨는 철도 노선 변경과 개통에 이르기까지 몸소 헌신적으로 이 운동에 기여하였다.

동진강 가교 문제

1923년의 전라북도 도평의회⁴²⁾에서 하시모토 씨 및 강동희(姜東曦) 씨가 도평의회원 자격으로 동진강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이 건의안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도 도 지방비 예산의 토목비 항목에 가교 건설비 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3만 원은 지방 부담으로 책정되었다. 이 지방부담금 마련은 김제와 부안 이 함께 분담하기로 하여, 학교조합이 중심이 되어 기부금을 모집하고 모든 관련 행정을 처리하였다. 분담 방법은 김제가 2만 원, 부안이 1만 원을 책임지는 것으로 정해졌고, 결국 양측 모두 할당액을 무사히 모집했다.

그러나 가뭄이 극심했던 그해, 가교비는 부득이하게 구호비로 전용되었고, 그 결과 다리건설은 중단되었다. 이듬해에도 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교 건설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이후에도 하시모토 씨는 해마다 도 당국에 가교비를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꾸준히 청원했지만, 수해와 가뭄, 미곡 불황 등이 이어지면서 지방비에는 계속 여유가 없었다. 결국 당분간은 가교 건설을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모집된 기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부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후 1930년도부터 국민구제사업 자금으로 도채(道債, 도 차입금)를 발행하는 것이 총독부로부터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토목비로 총 200여만 원의 도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만경강과 동진강 가교비도 포함되어 총독부

42) 1910년 병합 이후 일제가 조선총독부의 지방 통치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자문기관으로, 각 도의 행정·재정 사무에 관한 의견을 총독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구성원의 대부분이 일본인 관리나 친일 유력자로 채워져 있었고, 조선인 의원은 극히 제한되어 실질적 자치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평의회는 지방자치의 외양을 띤 총독부의 식민지 행정 통제기구에 불과하였다.

에 인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총 도채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동진강 가교비는 삭제되고 말았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김제 유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기대되는 바이다.

김제의 시구(市區) 개정(제1차)

1925년 초부터, 김제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시구(시가지) 도로만으로는 도시 발달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시가지 개정을 희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하시모토 학교조합 관리자는 김제군수 김상호(金相鎬) 씨와 협의하여 우선 부분적으로 시가지 개정안을 군청에서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 작성안은 다음과 같다.

- ① 만경도로에서 갈라져 시장 안을 관통하고, 본정도로와 평행하게 본원사 앞, 소학교 앞을 지나 보통학교 앞까지 연결되는 일직선 도로의 신설,
- ② 본정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며, 꽃집 동측 수로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개설되는 도로, 이 도로의 북쪽 끝은 재남시장 도로에서 시작되고, 남쪽 끝은 아베 농장 사무소 남쪽의 배수구에 닿게 하고,
- ③ 소학교 정문 앞에서 본정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폭 확장,
- ④ 아베 농장 동측 도로의 폭 확장,
- ⑤ 보통학교 앞에서 기존 간선도로 중 고야산 부근과 연결되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② 도로를 따라 배수로도 정비·개수한다는 계획이다.

1925년 6월 5일, 하시모토 학교조합 관리자는 읍내 유지들과 김상호 김제군수, 소노다 다메유키(園田爲幸) 김제경찰서장, 조중혁(趙中

赫) 김제면장 등을 학교조합 사무소에 초청하여 시가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한 결과 시급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1기 사업으로 계획안 중 1번 도로 중의 일부와 2번 도로의 일부를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구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하시모토 씨를 회장으로 추천하였다. 같은 해 8월과 12월에도 앞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학교조합 사무소로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김제 시구개정 실행위원 회의록〉

1925년 8월 12일 오후 8시 김제학교조합 사무소에서 개최함.

- 출석자: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에바라 요시오(榎原義夫), 구보 슈이치(久保秀一),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박연(朴淵), 조동연(趙東連), 백창흠(白昌欽), 김기상(金琦相), 최정근(崔定根)
- 임석자: 김상호(金相鎬) 김제군수, 소노다(園田) 김제경찰서장, 조면장(趙面長)

회장 하시모토는 의장석에 나와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 결정하였다.

1. 1925년 6월 5일 시구개정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구개정 비용은 부분적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 방식을 정한다.

- ① 도로나 개골창[溝渠] 때문에 귀지(潰地,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가 생기는 경우는 시가로 매수하며 그 비용은 도로

에 접한 양측 토지에 대해 전면 폭[間口]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담하되, 깊이[奥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② 건물을 제외한 기타 공작물의 신설 또는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보상비용은 그 실행하는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해 전면 폭에 따라 평등율로 할당 부담하게 한다.

2. 도로의 노면 폭은 3간으로 하며, 양측에 각각 1척 5촌의 측구[배수도랑]를 둔다. 다만 기존 도로의 경우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좌우 균등하게 넓힌다.

3. 제1기 사업으로 바로 착수할 노선은 ① 꽃가게의 동측에서 출발하여 본정도로와 교차하는 남북선으로, 북은 재남시장통에서 시작하여 남은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 ② 시장에서 보통학교 앞에 이르는 동서선 중, 새로 설치되는 남북선과 본원사 앞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4. 궤지(潰地) 매수, 건물 철거 보상 등을 담당할 교섭위원으로 약간 명을 회장이 지명하며, 이는 각 사업 단계별로 따로 선임한다.

5. 제1기 사업의 교섭위원은 회장이 다음 6명을 지명한다.

쓰네마쓰 히로가즈(常公寛一),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구라하라 이치지(倉原市次), 조기상(趙琦相), 박연(朴淵), 백창흠(白昌欽)

6. 착수 시기, 교섭위원은 군수 및 경찰서장과 협력해서 붕괴지와 건물 철거 등의 협의를 진행한 뒤,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한다.

7. 결의록 서명자 지명은 의장이 지명하는데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은 에노하라(榎原), 박연 두 사람을 지명함.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이 결의에 기초하여 붕괴지(潰地) 및 장애 건물의 철거에 관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극장 앞 일부 구간의 준공 외에는 건물 철거 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교섭은 김상호(金相鎬) 군수가 단독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던 중, 그가 고창군으로 전임되면서 중단되었다. 후임인 김기홍(金基弘) 군수가 교섭을 맡았으나 역시 순조롭지 않았고, 다시 군수가 전임되어 이기방(李基枋) 군수가 그 뒤를 이었으나 교섭은 더욱 난항을 겪었고, 결국 이기방 군수 역시 전임되었다. 이어서 후임 이소종(李韶鐘) 군수가 교섭을 시도했지만,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군수도 전임되었다.

이후 1931년 하시모토 위원장은 배석린(裴錫麟, 1884~1957) 군수와 협의하여, 최초 결의한 부담 방법을 변경하고 계획 자체도 확장하여 김제면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청 토목과 기술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읍내와 김제역을 연결하는 시구 개정안을 수립하였으나, 그 안건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방기되었다. 한편 김제는 동진수리조합의 설립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김제역에서

반출되는 쌀의 양은 연간 50만 가마니에 달할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간선도로만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혼잡과 위험이 커졌다. 마침내 1932년 1월 김제가 읍으로 승격되면서 하시모토 관리자가 초대 읍장에 취임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읍 차원에서 시구 개정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학교조합은 본래의 교육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하시모토 읍장은 취임 초기에 도로 개선과 위생시설에 착목하였고, 그해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과감하게 도로에 자갈을 대량으로 포설하였다.

동시에 1933년도 사업으로 시구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13만 원 중 3분의 1은 국고보조, 3분의 1은 지방비 보조, 나머지 3분의 1은 읍채(邑債)로 충당하는 안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비 보조만으로 일부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33년도 사업으로 용동선(龍洞線) 657미터 구간의 공사비 9천 원을 지방비 보조와 읍채로 충당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조 신청이 다행히 허가되어 1934년 6월에 준공되었다. 이로써 김제역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역전통이 2개 간선도로로 확대되어, 교통과 운수의 편리함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읍내 도로 중에서는 시장→소학교 앞→동진수리조합사무소 아래→간선도로에 연결되는 434미터 구간(김제-이리선)과 아베농장 하단→구 우시장에 이르는 233미터 구간(김제-흥덕선)은 모두 신설이 긴급히 요구되는 노선이었다. 그러나 이를 일시에 전액 읍비로 감

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에, 여러 차례 도 당국과 간담을 거듭한 끝에 니시오카(西岡) 토목과장의 결정에 따라 총공사비 1만 5백 원 전액을 지방비 사업으로 확보하여 1935년⁴³⁾ 5월에 준공하였다.

이로써 김제의 시구 개정 사업 중 주요한 간선도로는 모두 완공되었으며, 이후 남은 사업은 소구획 정리와 하수구 및 배수구 등이다.

통신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김제를 방문하거나 거쳐 가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통신 업무 또한 매우 번잡해졌다. 김제우편소를 중심으로 만경, 금구, 부용의 세 우편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들 각 우편소의 업무량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933년도의 통계를 보면, 통상 우편물 접수는 1,032,438통, 배달은 1,519,516통에 달하였고, 소포 우편은 접수 5,193통, 배달 20,624통이었다. 전신은 발신이 14,168건, 수신이 20,701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대부분은 김제우편소를 통해 처리된 것이었다.

43) 원문에는 소화8년(1933)으로 되어 있으나 소화9년(1935)의 오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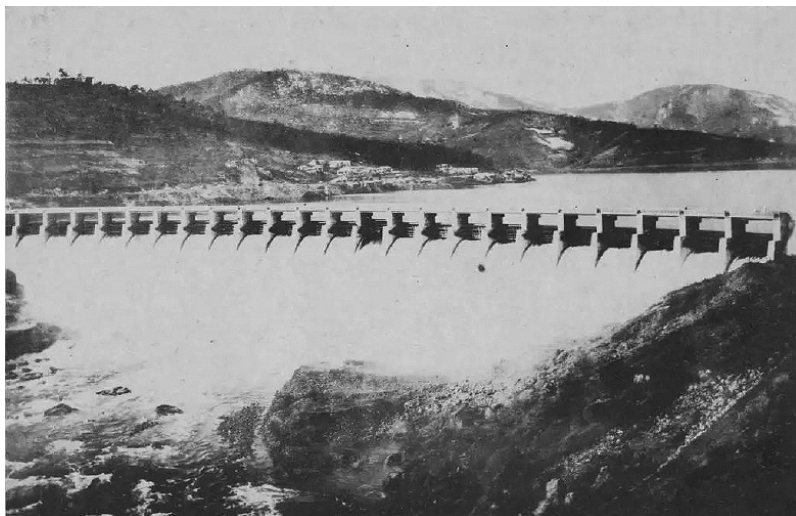
제4편 수리

동진수리조합의 사업⁴⁴⁾

동진수리조합의 구역은 전라북도 김제, 정읍, 부안의 3개 군에 걸쳐 있으며, 총 26개 면 125개 리에 이르는 동진강 평야를 포함하고 있다. 관개 면적은 1만 8,500정보에 달하며, 조합원 총수는 4,899명에 이른다.

조합의 주요 사업은 관개 및 배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개시설로는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는 조선 8대 강의 하나인 섬진강에 제언을 쌓아 그 유수를 저류(貯溜)한 뒤, 그 상류 1리 지점에 수도를 뚫고 이를 동진강으로 유도한다. 동진강은 이 일대에서 발원하여 서류(西流)하는데, 이 물줄기를 따라 정읍군 태인면 낙양리에 이르러 김제·정읍 양 간선 수로에 받아들여 여러 지선 수로를 통해 조합 구역 전체에 관개수를 공급하는 구조다. 김제군 진봉면 일대의 3,000정보는 특히 간척지 1,500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안정적인 관개를 위해 예비 저수지인 진봉제(進鳳堤)를 신설하였다. 또한 죽산보(竹山淤)와 신평보(新坪淤)를 개수·연결하여 기존의 보수원 및 평야의 낙수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

44) 동진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은 조선 농민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제도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수리조합의 건설비는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조선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상당수 농민은 현금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해 토지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각 과정에서 토지는 주로 일본인 대지주나 일본계 법인에게 집중되었고, 기존 토지 소유자인 조선인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선인 농민은 조합비, 수리세, 소작료를 중복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예측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식민지 농업정책이 단순한 근대적 수리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인의 토지 집중과 생산물 환수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진수리조합 운암저수지 (출처: 『朝鮮의水利組合』,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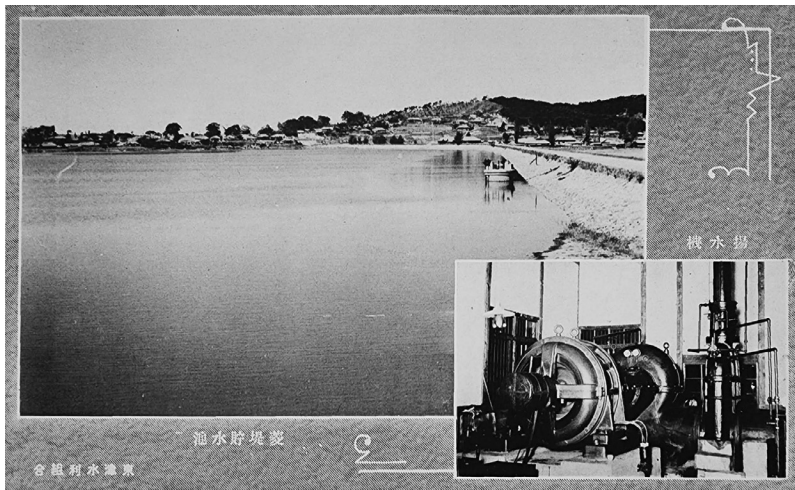
였다. 나아가 비관개기(非灌溉期)의 여분의 물은 만경 능제양수장에
서 저류시켜, 제2 확장지 1,500정보의 관개에도 활용하였다. 배수시
설 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벽골제를 중심으로 약 6,000정
보에 달하는 저지대 담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하천을 개수하
고, 새롭게 연포천(連浦川)을 개착하였다. 또한 신평천 유역에서는 약
600정보, 정읍군 이평면 부근에서는 약 400정보의 배수를 위해 각
하천을 개수하거나 필요에 따라 신천(新川)을 개설하였다.

연혁

동진강 평야는 약 2만 정보의 넓은 면적을 지니며, 그 가운데 약
7,500정보는 예로부터 유명한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고대의 관개지
역이었다. 벽골제는 신라 시대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며, 고려 및 조선

초기에는 이를 개수하여 활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후 점차 황폐해졌으나, 한때는 조선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비옥한 논이었다. 옥야로 불리던 이 지역도 안타깝게 매년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빈번하게 겪으면서 심각한 피해가 누적되었고, 그 외의 유역에서도 일반 수확의 증감은 하늘의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풍작과 흉작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조선총독부 통치 이후 점차 지주들 사이에서 수리조합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었다. 1920년에는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를 위원장으로 창립 사무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오쿠보(大久保)가 그를 대신하여 추진을 이어갔다. 공학박사 곤도 센타로(近藤仙太郎, 1859-1931)⁴⁵⁾를 기사장으로 초빙하여 측량을 진행하였고, 1921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사업 부담 관계 및 기타 행정적 문제로 분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은 그대로 정체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지방 일대는 1924년에 유례없는 한발에 시달려 피해가 특히 심각하였고, 이에 따라 농가의 궁핍은 극에 달하였다. 더욱이 도내의 기존 수리조합 지구에서는 오히려 증수(增收)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기에, 이와 비교된 지주들은 수리시설의 시급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총독부 당국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보조금 및 저리자금의 공급에 특별한 힘을 쏟는 등, 수리조합 설립을 향한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다. 도 당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합의 실현을 적극 추진하여 여러 차례 지주회를 열고 협의

45) 도쿄대학을 졸업한 뒤 내무성에 들어가 1885년부터 도네가와(利根川) 低水공사에 종사하였다. 『利根川高水計劃書』(1898)를 완성시키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1900년 개수공사를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하천 기술의 기초를 만든 인물의 한 사람으로 '도네가와 改修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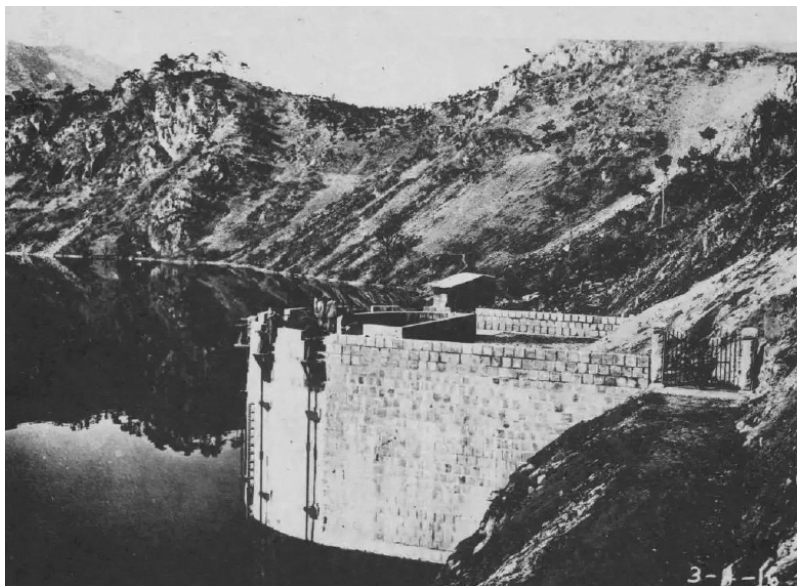


동진수리조합 능제저수지 (출처: 김장근 소장 우편엽서)

를 이어갔다. 그 사이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마침내 주요 지주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1925년 3월 16일 도청에서 동진수리조합 창립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창립을 결의하였다.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리 지점 지배인 와타나베 도쿠시로(渡邊得司郎) 씨가 창립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창립 사무를 개시하였다. 제반 준비를 마친 뒤 7월 9일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몽리구(蒙利區)⁴⁶⁾ 1만 4,500정보로 인가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전라북도 지사였던 이스미 추조(亥角仲藏) 씨는 관직을 사임하고 동진수리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공학사 사와라 다쓰오(佐原辰雄)를 기사장으로 초빙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3년이 지나 공사가 점차 완공

46) 수리조합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 즉 저수지나 보 등의 관개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논 경작지를 가리킨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리조합의 설치와 함께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 단위로 사용되었으며, 조합비와 수리세 부과와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인 지주가 소유한 토지가 우선적으로 몽리구에 편입되어, 조선 농민은 수리 혜택보다 조합비 부담과 토지 상실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단계에 이르렀고, 1928년부터는 관개를 개시하였다. 이어서 제1기 확장사업에 착수하여 인접 지구 3,060정보를 새로 조합 구역에 편입하였다. 그리하여 1929년 6월 25일에는 준공식을 거행하였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조합장 이스미 추조 씨가 퇴임하고, 신타니 순조(新谷俊藏) 씨가 그 뒤를 이어 제2기 확장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만경능제(菱堤)를 확장하고 저수지를 신설하여, 수전사업에 따라 비관개기에 방류되는 물을 220마력의 전동기로 양수하여 저류한 뒤, 김제군 만경면, 청하면, 공덕면 내 1,500정보의 논에 관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본 사업은 1930년 4월에 착수하여 1931년 6월에 준공되었고, 같은 해 바로 관개를 개시하였다.



동진수리조합 운암저수지 취수탑 (출처: 『朝鮮の水利組合』, 1929)

주요 공사

① 섬진제(蟾津堤)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 축조된 섬진제는 섬진강 유역에 설치된 콘크리트 댐으로, 높이 86척, 길이 174간에 달한다. 제방 꼭대기에는 높이 12척 5촌의 조절 수문이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고 홍수 시에는 수문을 열어 넘치게 함으로써 수위를 조절한다. 만수위(滿水位)는 해발 570척이며, 저수지 면적은 총 721정보로, 그중 실제 매수된 면적은 451정보 7무 25보이다. 저수지의 길이는 약 6리 반, 둘레는 18리 정도이고, 상류 유역의 집수 면적은 49방리이다. 최대 유효 저수량은 약 21억 8,200만 입방척(立方尺, 2만 203정척)에 이르며, 유효수심은 60척이다. 이 공사는 1925년 11월에 착공되어 댐 본체는 1927년 12월에 완성되었고, 1928년 5월부터 저수를 시작해 그 해의 큰 가뭄을 면할 수 있었다. 이후 조절 수문은 같은 해 7월, 제방 상부 교량은 12월에 각각 준공되었다. 전체 공사비는 202만 6,856원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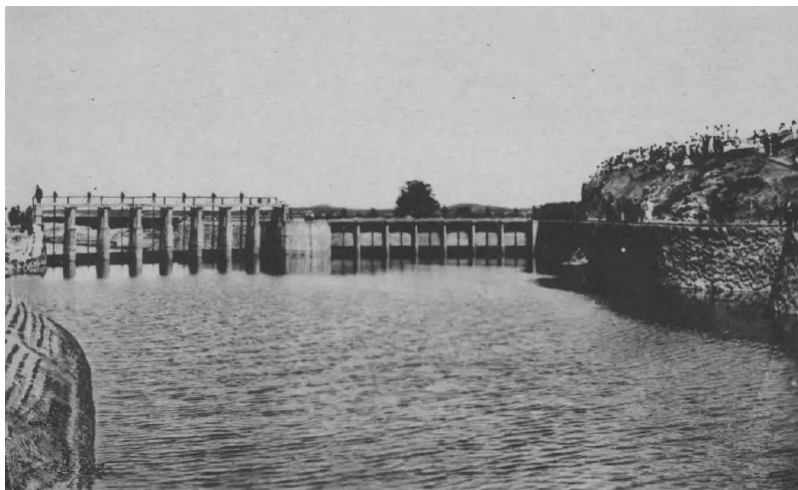
② 운암터널(雲岩隧道)

입구는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에, 출구는 정읍군 산내면 종산리에 두고, 수원지의 저류수를 방류하는 수로이다. 터널 단면은 지름 12척의 말발굽형[馬蹄形] 구조이며, 길이는 417간이다. 입구에는 취수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문을 통해 방수량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수력은 850개이다. 이 공사는 1926년 2월에 기공하여, 1927년 5월에 터널 굴착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관개기에는 공사를 일시 중

지하고, 섬진강의 물을 임시로 흘려보내는 가통수(假通水)를 실시하여, 평야 지대의 수혜지역에 물을 공급하였다. 이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28년 3월에 완공, 4월 6일부터 통수를 개시하였다. 총공사비는 32만 8,968원이다.

③ 낙양리 취입구(取入口)

운암터널에서 방류된 물은 동진강 상류 6리 구간을 흘러 내려와 정읍군 태인면 낙양리에 설치된 수문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둑[堰]으로 물을 막고, 오른쪽 둑은 김제 간선, 왼쪽 둑은 정읍 간선으로 통수하여 각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된다. 이 공사는 1926년 4월에 착공하여, 1927년 5월에 준공되었다. 총공사비는 17만 6,376원이다.



동진수리조합 운암저수지 낙양리 취입수문 (출처: 『朝鮮の水利組合』, 1929)

④ 용수로

용수 간선은 김제 간선과 정읍 간선으로 나뉜다. 김제 간선은 낙양리 취입구에서 동진강 동부 평야를 관개하며 김제군 성덕면까지 이르고, 그 연장은 14,322칸(6리 반)에 달한다. 정읍 간선은 같은 취입구에서 출수되어 동진강 서부 평야를 관개하며 부안군 백산면까지 이어지며, 그 연장은 10,889칸(5리)이다. 이들 간선에서 갈라지는 지선은 총 22개 노선으로, 그 연장은 55,859칸(26리)에 이른다. 또한 지거(支渠, 분기된 개울)는 총 450개 노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연장 158,260칸(73리)의 규모로 구성되어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배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공사는 1926년 4월에 착공하여, 간선 및 지선(支線)은 1927년 2월에 완공되었고, 지거는 1929년 5월 경 대체적으로 준공되었다. 이어 제2차 확장 구역으로는 김제 간선 중 대석리에서 능제까지 이어지는 도수로(導水路) 1선(연장 1,840칸), 능제에서부터의 관개용 간선 수로(연장 5,580칸), 지선 7선(연장 7,460칸), 여섯 부분으로 나뉜 지거 38선(연장 10,242칸)을 포함하며, 이 구간은 1930년 3월 착공되어 1931년 6월에 준공되었다. 총공사비는 2,489,458원이다.

⑤ 배수시설

배수시설로는 기존의 원평천 및 두월천을 개수하고, 죽산 갑문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벽골제 지방에서 죽산면 연포리에 이르는 연장 4천 칸의 연포천을 신설하고 그 종점에 연포 갑문을 설치하였다. 이들 시설은 모두 조수(潮水)의 침입을 방지하고, 내부에 저류되는 여수(餘水)를 하류 지역의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공사는 1927년 3월에 착공하여 1928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상리평천(尙梨平川)과 신평천의 개수 공사도 1927년에 완료되었다. 총공사비는 602,444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1930년과 1931년의 수해를 계기로, 매년 이들 시설의 개선 및 추가 공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⑥ 진봉제(進鳳堤) 저수지

진봉제 저수지는 김제 간선의 미개발 상류 지역을 위한 예비 저수지로, 김제군 진봉면 지내(地內)에 신설되었다. 저수지의 면적은 120정보, 저수량은 6천만 입방척(立方尺: 55.6町尺)이며, 1928년 5월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에 준공되었다. 총공사비는 260,860원이었다.

⑦ 능제 저수지

제2 확장지의 저수지로서, 만경의 구 능제를 증축·확장한 것이다. 저수지의 면적은 192정보, 저수량은 2억 4,700만 입방척(2,287정척)에 달하며, 1930년 6월에 착공하여 1931년 6월에 준공되었다. 총공사비는 102,369원이었다.

사업비 및 자원

사업구분	사업비총액	사업비 자원 및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기채액	잡수입액	계
당초시행사업	9,400,000원	1,663,274	10,000	7,650,000	76,726	9,400,000
제1기 확장사업	100,000	36,900		163,000	100	200,000
제2기 확장사업	794,200	151,900		642,000	300	794,200
합계	10,394,200	1,852,074	10,000	8,455,000	77,126	10,394,200

조합채

본 조합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기채액은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으나, 이후 재해 복구 및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기채하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 복구 및 진봉제 복구채, 77,000원, ② 세입 결함 보전채, 77,800원으로, 총 기채액은 154,800원이다.

사업 시행 후의 성적

1928년 공사 완성 직후의 기쁨도 잠시, 같은 해와 1929년에는 가뭄을 맞이하였으나, 최초의 시련 속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어 크게 그 위업을 드러냈다. 1930년과 1931년에는 유례없는 강우로 수해를 입어 피해 지역의 수확은 현저히 줄었고, 심한 경우 전혀 수확을 얻지 못하는 참상까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업 완성을 넘어, 유유히 흐르는 하천의 개수와 배수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32년도에는 다음 표와 같이 1906년 이래의 기상 관측 역사상 유례없는 호우를 기록하며 보기 드문 대가뭄의 해로 기록되었다.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대저수지조차 7월 25일, 26일부터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렀으며 8월 3일에야 비로소 강우를 관측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도작에는 큰 지장이 없어, 사업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풍요로운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사업 시행 이후 증가한 수확량을 보여주는 실적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시행 후 증수 조사(벼)

연도별	구역면적	실제경작면적	사업시행 후 收量		對 시행 전 增收量	
			평균반당수량	총수량	평균반당수량	총수량
1928	13,940정	12,350정	2석73	337,971석	0석72	89,724석
1929	17,000	16,050	3석35	537,457	1석34	214,857
1930	17,000	16,400	2석79	457,409	0석78	127,769
1931	18,500	17,826	2석65	463,213	0석69	114,654
1932	18,500	18,117	3석42	619,602	1석46	264,508

비고

1. 1928년도부터 1930년도까지는 사업 시행 이전의 반당(反當) 평균 수량을 2석 1두로 기준하였으며, 1931년도 이후는 제2 확장지를 포함하여 반당 평균 수량을 1석 9두 6승으로 산정하였다.
2. 1930년 및 1931년도에 증수율이 저하된 것은 수해로 인해 수확이 전무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조합원, 즉 조합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총수는 제2 확장 지역을 포함하여 모두 4,899명이다. 이들 소유지의 면적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00정보 이상 5명, 300정보 이상 4명, 100정보 이상 9명, 50정보 이상 17명, 10정보 이상 172명, 1정보 이상 1,347명, 1정보 미만 3,345명, 합계, 4,899명.

조합원 중 100정보 이상의 지주는 다음과 같다.

동양척식주식회사, 1,848정보, 동진농업주식회사, 1,425정보,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1,316정보, 다키 구메지로(多木桑次郎), 1,286정보,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1,198정보, 나카시마(中柴)산업주식회사, 539정보, 우콘(右近)상사주식회사, 433정보,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桒富安左衛門), 393정보, 주식회사 아베이치(阿部伊)상점, 354정보, 재단법인부민협회, 221정보, 아카기 미네타로(赤木峰太郎), 213정보,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201정보, 다키 린타로(多木隣太郎), 196정

보, 시마타니(島谷)산업주식회사, 155정보, 가네코 케이스케(金子圭介), 111정보, 다우에 타로(田植太郎), 105정보, 미조테 야스타로(溝手保太郎), 101정보, 기리오 카 스에코(桐岡末子), 101정보.

〈조합직원 및 임원〉

① 조합 현재 직원

조합장 사이토 다케지로(齋藤竹次郎), 이사장 도미 사쿠(富彌作), 출납역 기노시타 다카모리(木下生盛), 주임기사 치하라 리쿠조우(千原陸三), 서기, 7명. 기사, 1명. 고원 24명.

② 상설위원

동진농업주식회사, 이카리 료스케(猪狩恭介). 구마모토농장주,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다키농장주, 다키 구메지로(多木桑次郎).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모토야 아이지로(本谷愛次郎). 우콘상사주식회사, 모리야마 지로헤이(森山治郎平). 하시모토농장주,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마스토미농장주임, 마스토미 타로(榊富太郎). 나카시바산업주식회사, 나카노 소자부로(中野宗三郎). 강동희(姜東曦). 강갑수(姜甲秀).

제5편 관공서 단체

현재 김제에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 단체로는 김제군청, 김제군농회, 김제경찰서, 김제읍사무소, 김제우편소, 김제역, 곡물검사지소, 동진수리조합, 김제번영회,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 제국재향군인회 김제분회, 김제미곡상조합, 김제학교조합, 김제소방조, 국방의회, 김제실업청년회 등이 있다. 1934년 5월 1일부로 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호남지방에서 김제의 위치는 마치 경부선의 대구나 경의선의 평양에 견줄 만한 중심지로, 교통과 행정의 요지로서의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장차 각종 관공서 단체의 신설이나 타 지역 관청의 김제 이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군청

본군은 원래 마한의 땅으로, 백제시대에는 벽제군이라 불렸으며, 신라 시대에 들어서 김제로 개칭되었다. 고려 초기에 전주의 속현이 되었고, 인종왕 21년(1143)에는 현령이 파견되었으며, 조선 태종 2년(1402) 이후에는 군으로 승격되었다. 1910년 총독부 설치 당시 김제군은 김제, 월촌,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부량 등 7개 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4년 3월의 부군 폐합으로 인해 만경군(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과 금구군(금구, 하리, 雙坎, 수류, 초치)의 면들이 병

합되어 총 17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1931년 11월 1일, 김제면은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는 1읍 16면의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다. 1933년 말 통계에 따르면 김제군 내의 호수 26,663호, 인구 144,166명, 논 224,114정보, 우편소 4개소, 중등학교 수준의 학교 1, 보통학교 13, 소학교 3, 금융조합 5, 은행회사, 공장 12, 농장 11, 수리조합 1, 일본인 거주자 675호, 3,732명에 달하고 일본인 경영지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당시 군수는 배석린(裵錫麟) 씨로, 부민(部民)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김제군 농회

김제군 농회의 사무소는 김제군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6년 3월 조선농회령⁴⁷⁾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축산동업조합도 본 농회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회원 수는 1만 8,523명에 이르며, 특별의원 11명, 통상의의원 36명, 평의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회장은 김제군수 배석린 씨가 맡고, 부회장은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씨이다.

김제군 농회의 전신은 김제군권농회로, 1917년에 설립되어 군청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군 권업과에서 사무를 맡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1926년 3월 농회령의 시행으로 인해 권농회는 해산되고 현재의 농회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47) 조선농회령(1914년 제정)은 일제가 조선 농민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일본 식민지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이 법령은 농민 단체를 '농회'라는 명칭으로 공식화하여 조합원 가입과 운영을 총독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실제로는 조세·수리세 징수, 증산 계획, 일본 자본과의 연계 등 식민지 농업 통제와 수탈을 제도화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관동회 당시의 마지막 예산(1925년도)은 51,322원
농회로 개편된 후의 첫 예산(1926년도)은 62,284원

김제경찰서

경찰제도가 개정되기 전까지 김제 지역의 경찰 사무는 헌병분대에
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1919년 8월 1일 경찰제도 개정에 따라 헌병분
대는 폐지되고 김제경찰서가 설치되었다. 관할구역은 김제군 전역으
로, 주재소 13개소, 파출소 1개소가 있다. 관내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만큼 경찰 사건도 상당
히 많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중대한 범죄자
들도 같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적지 않다. 현 서장은 이리
에 미키오(入江幹夫) 씨로, 근엄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마땅히 관내
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김제우편소

김제우편소는 1906년 12월 1일 김제우편취급소로 처음 설치되었으
며, 이후 1910년 10월 1일에는 김제우편국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
국의 방침에 따라 1912년 6월 15일 김제우편국은 폐지되고, 같은 날
김제우편소가 새로 설치되었다. 당시의 우편소장은 필자와도 교분이
깊은 곤도 신이치로(近藤新一郎) 씨였으며, 1925년 8월 25일에는 현

재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다. 최근 우편 업무는 전화 가입자 수만 해도 159명에 달할 만큼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에 발맞추어 업무량도 매우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 그러나 곤도 소장의 유능한 지도 아래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김제역

김제역은 1912년⁴⁸⁾, 호남선 이리-정읍 구간 개통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개설 초기에는 역 수입도 매우 적었다. 그러나 이후 동진수리조합이 설립되고 산미 증식⁴⁹⁾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김제역을 통한 쌀 발송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912년에는 미곡 발송량이 겨우 134톤에 불과했으나, 1933년에는 무려 43만 5천톤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1933년도 김제역의 실적을 보면 화물 발송량 4만 5,865톤 화물 도착량 3만 2,794톤 화물 수입금 5만 7,382원 여객 승차 인원 11만 167명, 여객 하차 인원 11만 584명 여객 수입 7만 922원이다. 현 역장인 도다 고키치(戸田孝吉) 씨는 1931년부터 역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운 인사이다.

48) 원문에는 메이지 46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912년인 메이지 45년(1912.1.1.-7.29)이나 다이쇼원년(1912.7.30.-12.31)이라 해야 한다.

49) 산미증식계획(1920-1934)은 겉으로는 조선의 농업 생산력 향상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식민지 수탈 정책이었다. 증산된 쌀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조선 농민은 소작료 부담과 토지 상실로 빈곤화되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근대화 정책의 외피를 쓴 식민지 경제 지배의 핵심 장치였다.

김제읍

김제읍은 예로부터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 원래 마한의 영역에 속했다. 백제시대에는 벽골군의 중심지였으며, 그 말기에는 일본·백제의 연합군과 당·신라 연합군이 무기를 맞대며 치열하게 격돌한 전장이기도 하다. 현재 읍의 북쪽에 우뚝 솟은 성산은 김제신사의 진좌지(鎭坐地)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일본·백제 연합군의 본대가 일시적으로 주둔했던 곳이라 전해진다. 이후 신라 시대에 들어 처음 김제라는 군명으로 개칭되었고, 계속해서 행정 중심지의 역할을 맡아왔다. 고려 인종 21년(1143)에는 일시적으로 전주의 속현이 되었으며, 이어 현령이 파견되었고, 조선 태종 3년(1403)에는 다시 군으로 승격되었다. 이 지역은 본래 읍내면이라 불리며 동쪽에 8개 리를 포함해 인구는 겨우 2,500명 남짓한 작은 면이었다. 그러나 1914년 3월 행정구획 개편으로 읍내면과 입천면(현 백학리, 전동리, 검산리 등)을 병합하고, 대촌면(현 월촌면) 일부를 더해 김제면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31년 11월 1일부로 김제읍으로 승격되었다.

역대 읍 행정을 이끈 인물들을 살펴보면, 옛 시절에는 기록이 부족해 언급하기 어렵지만, 1910년 한일합병 이후는 다음과 같다. 제1대 면장은 조전섭(趙田燮), 제2대는 김봉준(金鳳濬), 제3대는 조동우(趙東宇), 제4대는 조중혁(趙中赫), 제5대는 조정희(趙鼎熙)였다. 1931년 11월 1일 읍으로 승격되면서 제5대 면장이었던 조정희는 부읍장으로 임명되고, 초대 읍장에는 하시모토 히로시가 취임하였다. 이후 1933년 11월 1일 부읍장 조정희가 해임되고, 그 자리에 이정근(李正根)이 부읍장으로 취임하였다.

지세로 본 김제읍

김제읍은 김제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백산면, 남쪽으로는 하리면, 동쪽으로는 쌍감면, 서쪽으로는 월촌면과 접해 있다. 읍의 서북부에는 다소 구릉이 분포하고 있으나, 동남부는 대부분 평탄하여 이른바 전라북도 평야의 일부를 이룬다. 토지는 비옥하여 농업에 매우 적합하며, 김제 쌀은 예로부터 그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1929년 6월 동진수리조합이 완성된 이후로는 해마다 찾아오던 가뭄과 홍수 걱정이 크게 줄었고, 토지 개량이 이뤄지면서 농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김제 지역의 농업은 한층 번창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1. 위치 및 면적 표

읍사무소 소재지	극단경도		연장		면적	도청까지 이점	
	동경	북경	동서	남북		육로	기차
김제군 김제읍 교동리 7번지	동단 127,05 서단 126,46	남단 35,38 북단 25,52	6,66	2,52	6380,077평	7,17	43,2

2. 행정구획

里洞數	호수	인구		
		남	녀	계
12	3,020	7,514	7,163	14,677

3. 종목별 면적

논			밭	임야	기타	총면적	비고
1모작지	2모작지	계					
333,530평	2363,216평	2696,746평	1314,697평	1847,167평	521,467평	6380,077평	

기상

△은 영하를 나타냄

기온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계
평균 온도		△0,6	△0,3	6,4	11,4	18,1	24,1	25,1	27,9	22,2	15,8	8,7	2,6	13,4
최고 온도		2,4	4,0	10,4	15,9	22,0	26,5	26,1	29,8	25,1	19,1	14,2	6,1	16,9
최저 온도		△4,9	△4,0	1,0	4,3	10,5	16,7	16,6	22,9	17,3	7,7	9,6	0,4	8,5
최고 온도		8,4	12,0	20,0	21,5	27,0	31,0	28,2	24,1	29,0	25,5	20,0	14,5	34,1
최저 온도		△15,0	△11,8	△8,5	△1,5	5,0	10,5	14,0	17,0	10,0	0,0	△3,0	△10,0	△15,0
霜 雪 氷	霜				雪				氷					
	초일			종일		초일			종일		초일		종일	
	10월 23일			4월 25일		12월 16일			3월 27일		11월 7일		3월 30일	
날 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快晴	13	21	11	17	16	17	5	10	14	11	18	13	166
	晴天	8	2	9	4	2	2	2	2	1	-	-	-	32
	曇天	7	4	5	3	5	2	12	7	9	11	7	17	91
	雨天	3	1	6	6	8	9	10	12	6	9	5	-	76

호구

1. 각 리동별 현재 거주 호구

리명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교동	13	72	228	1,131	2	6	243	1,209
옥산	18	79	213	1,023	3	11	234	1,113
요촌	152	591	331	1,542	13	54	496	2,187
서암	8	41	219	1,103	-	-	227	1,144
신곡	2	12	80	494	-	-	82	506
갈공	6	32	87	443	-	-	93	475
용동	2	7	166	863	-	-	168	870
신평	110	553	574	2,745	10	23	694	3,321
검산	14	74	460	2,193	-	-	474	2,267
백학	-	-	191	935	-	-	191	935
전동	-	-	118	650	-	-	118	650
계	325	1,461	2,667	13,122	28	94	3,020	14,677

2. 직업별 현재 거주 호구

직업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림축산업 어업제업업	43	231	1,083	6,158	7	19	1,133	6,408
공업 상업 및 교통업	145	686	425	2,120	21	75	591	2,881
공무 및 자유업 기타 유업자	136	541	1,112	4,685	-	-	1,248	5,226
무직 및 직업 미신고자	1	3	47	159	-	-	48	162
계	325	1,461	2,667	13,122	28	94	3,020	14,677

3. 인구동태

종별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남	녀	계	남	녀	계		
일본인	15	20	35	13	12	25	4	1
조선인	201	169	370	106	48	154	22	-
외국인	-	-	-	1	-	1	-	-
계	216	189	405	120	60	179	26	1

교육

1. 보통교육

명칭	소재지	창립 연월	학 급 수	교원수		아동수			경비		
				훈도	촉탁	남	녀	계	경상비	아동 1인당액	1학급당액
김제공립심상 고등소학교	김제읍요촌리 1166번지	1911.4	7	8	4	197	177	374	14,342	3,830	2,049
김제공립 보통학교	김제읍요촌리 215번지	1911.6	12	11	2	619	215	834	2,751	3,30	279

2. 실업교육

명칭	소재지	창립 연월	학 급 수	교원수				생도수			경비		
				교 유	강 사	촉 탁	계	일본인	조선인	계	경상비	생도 1인당액	1학급당액
김제공립 기예여학교	김제읍요촌리 266번지	1931.4	4	4	2	1	7	94	2	96	5,231	54,50	1,743

社寺 종교

1. 신사

명칭	제신	신직	승경자 수	소재지
김제신사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1	14,677	김제읍 교동리 262번지

2. 포교

1) 불교

종파별	사원 또는 사찰 수	신도수			사원소재지
		일본인	조선인	계	
진언종 지산파	1	152	-	152	김제읍 요촌리 164번지
진종 본원사파	1	500	-	500	김제읍 요촌리 415번지

2) 기독교

종파별	포교소 수	신도수			포교소 소재지
		일본인	조선인	계	
야소교남장로파	3	-	400	400	옥산리 442번지 백학리 130번지 요촌리 102번지
천주공교	1	-	200	200	검산리 822번지

3. 기타 종교 유사 단체

단체명	포교소 수	신도수			포교소 소재지
		일본인	조선인	계	
천도교	1	-	300	300	김제읍 옥산리 352번지

위생

1. 의료기관

종별	병(의)원	의사	치과의	의생	산파	간호부	약종상
일본인	1	1	3	-	2	-	3
조선인	2	3	-	2	-	3	11
계	3	4	3	2	2	3	14

2. 격리병사(隔離病舍)

병사명	건평	구조	수용정원	경비	건설연월일
김제읍 격리병사	38	단층 건물, 납 철판 지붕(鋳鉛葺)	6	224엔	

3. 살수(撒水)

살수자동차 수	종업인원		살수기간	경비		비고
	운전수 (임시)	조수		읍비부담	민간부담	
1	1	1	4월-10월			

교통

김제읍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호남선 철도가 지나며, 목포에서 대전·경성에 이르는 열차가 하루 남북 각각 6회씩 운행되고 있다. 육상 교통은 자동차를 통해 각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중앙 도시인 전주까지는 약 6리 35정(약 30km 정도) 거리로, 하루 8회 왕복 운행된다. 또한 부안까지는 약 5리 18정(약 25km), 군산까지는 약 8리 1정(약 40km) 거리로 각각 하루 8회, 10회씩 왕복 운행되는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다.

교통기관

기차운전 회수			자동차수	인력거수	자동차수	비고
북행(경성, 대전)	남행(목포)					
6	6		10	17	808	

금융기관

기관명칭	창설연월일	대출		예금		비고
		口數	金高	口數	金高	
주식회사 식산은행 김제지점	1918.10.1	825	8,789,260	474	613,116	
김제금융조합	1909.7.23	1,989	334,764	5,191	463,340	

농장 기타 농영회사

농장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경영면적	소작인수	비고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本谷愛次郎	1907.12	1716,0000	1628	
주식회사아베이치상점 김제지점	川崎留次郎	1912.10	825,0000	973	
마스토미농장	榊富太郎	1907.5	590,0000	561	
미조테농장	溝手保太郎	1911.3	163,0000	304	

잠업

1. 양잠 사육호수 및 산란액

飼育 戶數		蠶種 掃立 枚數			산란수			비고
춘	추	춘	추	계	춘	추	계	
75	84	268	380	648	1,340관	1,900관	3,240관	

2. 잠란(蠶繭) 공동판매

춘잠란		추잠란		합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75석	7,000원	133석	3,990원	308석	10,990원	

3. 축산(가축 및 가금류)

소(머리)			농가 10호에 대한 축우수	소 한 마리의 부담 경지면적	말	당나귀	돼지머리		닭날개		비고
수컷	암컷	계					재래종	개량종	재래종	개량종	
44	49	93	0.6	14.4	59	-	295	391	901	1972	

시장

시장명	소재지	경영자	개시일	1년간 시화수	1년 매상고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	기타	계
김제시	김제읍 요촌리	김제읍	2, 7일	72	44,250	128,100	19,400	72,500	140,500	404,150

상공업

1. 인접(靑摺) 영업

공장명칭	경영자	1년간 현정미 산고	금액	비고
조기선 靑摺所	조기선	82,488	634,500원	
山田嘉一郎 인접소	山田嘉一郎	63,137	543,500	
池眞澄 인접소	池眞澄	54,830	444,500	
波戸元梅太郎 인접소	波戸元梅太郎	35,956	291,600	
橋田鶴次郎 인접소	橋田鶴次郎	32,365	257,700	
조재식 인접소	조재식	28,729	245,300	
곽홍윤 인접소	곽홍윤	26,472	199,300	
岡本健次 인접소	岡本健次	20,093	191,400	
日野嘉助 인접소	日野嘉助	26,145	181,800	
안기룡 인접소	안기룡	20,090	173,384	
서정린 인접소	서정린	13,972	141,864	
市川辰二 인접소	市川辰二	13,270	134,700	
小場佐 인접소	小場佐豊平	7,714	68,000	
原田吉次 인접소	原田吉次	5,975	54,200	
國田德太郎 인접소	國田德太郎	6,547	54,000	
藤田祐市 인접소	藤田祐市	4,686	37,200	
계		442,469	3652,948	

2. 주조업

종별	경영자	제조고	동상금액	비고
일본주	波戸元梅太郎	183석	8,870원	
일본주	赤澤コサト	140	10,400	
조선주	金鑛冷	684	22,600	
조선주	國田德太郎	600	17,700	
조선주	조재식	401	15,100	
조선주	中山宇門	356	7,720	
계		2364	82,390	

3. 업종별 인원 및 판매고 (영업세 과세자)

업종별	인원수	1년 판매고	비고
곡류 및 비료	11	305,400원	정미업을 포함하지 않음
오복 잡화 및 포목	16	311,620	
식량품 잡화	15	349,810	
과자 연초류	5	22,810	
양품 잡화류	7	57,450	
자전거	2	6,800	
금물류	2	18,430	
약상(한약)	5	32,430	
재목 시멘트	3	67,200	
문구잡화	2	18,500	
염료	1	7,190	
기계 및 기계유	2	12,230	
우육	4	50,000	
음식물	6	26,090	
指物類	2	5,000	
시계류	1	3,000	
석탄	1	3,000	
도자기	1	3,960	
구두류	1	3,000	
소주	2	16,130	
계	89	1220,050	

최근 3년간 조세공과 소장표

구분/종별	세목	1931	1932	1933
국세	지세	11,902.89	10,804.66	12,035.71
	영업세	2,277.86	2,448.20	2,468.98
	주세	12,836.29	11,640.24	12,944.38
	계	27,017.04	24,893.10	27,449.07
도세	지세부가세	7,148.29	6,474.64	7,213.21
	호세	4,164.12	4,329.95	5,229.14
	임야세	-	-	128.68
	차량세	1,640.35	1,860.90	1,987.65
	부동산취득세	2,271.56	3,313.86	2,365.83

도세	하천사용료	175.30	271.08	265.41
	계	15,399.62	16,250.43	17,189.92
읍세	지세부가세	5,475.02	4,956.89	5,524.18
	호별세	4,669.14	6,494.91	7,346.42
	영업세부가세	2,119.83	2,348.56	2,391.07
	특별영업세	-	329.74	317.96
	잡종세	-	310.47	290.82
	계	12,263.99	14,440.57	15,870.45
기타	호세부가금	1,375.58	1,732.46	2,068.97
	총계	56,056.23	57,316.56	62,578.41

읍예산 변천 상태

연도	예산		적요
	세입	세출	
1924	12,095원	12,095원	면 시대
1925	17,650	17,650	동
1926	17,855	17,855	동
1927	15,925	15,925	동
1928	17,068	17,068	동
1929	21,090	21,090	동
1930	23,246	23,246	동
1931	25,585	25,585	읍으로 승격함
1932	26,871	26,871	
1933	33,629	33,629	
1934	31,130	31,130	

읍직원

종별	읍장	부읍장	서기	기수	고원	용인		오물소 제인부	비고
						급사	소리		
일본인	1	-	2	-	-	-	-	-	
조선인	-	1	6	1	3	1	2	4	
계	1	1	8	1	3	1	2	4	

현 읍회 의원

읍으로 승격한 제1회 읍회⁵⁰⁾ 의원은 다음과 같다.

하토모토 우메타로(波戸元梅太郎)

박연(朴淵)

조재돈(趙在敦)

조재희(趙在熙)

이기호(李箕鎬)

가네코 야스이치(金子保一)

타이라 세이이치(平精市)

야기 시게지로(八木茂次郎)

후카가와 시게이치(深川重市)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홍종만(洪鍾萬)

결원

김제학교조합

1909, 1910년경 김제에 거주한 일본인이 아직 교육사업에 고려할 여력이 없을 때에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 가와노 겐지로(河野健次郎), 야마시로 우타로(山城卯太郎), 사이바라 카메타로(齋原龜太郎), 모리다 리스케(森田利助),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나카야마 시게조(中山重

50) 읍회는 1917년 제정된 <조선읍면제>에 근거해 설치된 읍 단위 자문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지방의회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총독부 행정의 보조 및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 명목상의 자치기구였다.

三), 후루키 도쿠타로(古木徳太郎),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이치하라 스케하루(市原助治), 아소 덴시로(麻生傳四郎), 츠치다 지로(土田次郎), 기시다 스스무(岸田普), 쿠보츠 운페이(窪津運平), 마쓰바라 류지로(松原隆次郎), 다이토 다다이치(大道唯市), 마쓰이 야시치로(松井彌七郎), 나가노 아사키치(永野淺吉), 다카즈카 다에몬(高塚太右衛門), 곤도 신조(近藤新造), 하시즈메 테이조(橋爪亭造), 고무라 가네마쓰(古村兼松), 하세가와 토메지(長谷川留次), 데라시마 데이이치(寺島貞一), 하마사키 요네키치(濱崎米吉) 등 여러 인사들이 김제소학교 설립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월촌면의 무라마쓰 토라오(村松寅雄), 아라카와 다츠지(荒川辰次), 혼다 진페이(本田仁平), 야마모토 네노키치(山本之子吉), 야스타케 쓰토무(安武懋), 죽산면의 기무라 도지로(木村東次郎), 다케무라 도쿠지로(竹村徳次郎), 다바타 우지로(田畑宇次郎) 등도 참여해 수차례 회합을 거쳐 논의한 결과, 발기인 총대로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씨를 추대하였다. 조합 구역은 김제면, 월촌면,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의 일부로 정하고 김제학교조합 설치와 소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1910년 12월 김제학교조합 설치 허가를 먼저 받았고, 조합에서는 조합의원을 선출한 뒤 1911년 2월 김제심상소학교 설립 인가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자로 기타오 에이타로, 교장으로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優) 씨가 임명되었다.

조합은 즉시 개교 준비에 착수했으나, 당시에는 학교로 사용할 적절한 건물이 없어, 우선 김제읍 동북쪽에 있는 노인정(현재 조선인의 공장으로 있음)을 빌려 임시교사로 삼아 개교하게 되었다. 초창기 학생수는 겨우 10명, 세입세출을 포함한 총예산은 310원에 불과했다. 이

것이 바로 훗날 김제심상고등소학교로 발전하게 되는 학교의 시작이다. 덧붙이자면, 이 학교의 창립과 개교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 김제보통학교장 하시즈메 테이조(橋爪亭造) 씨의 공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11년 3월 제2회 조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김제의 총 가구수는 겨우 50호, 인구는 15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12년에는 가구 수 149호, 인구 537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호남선 철도 공사에 따른 인구 유입의 영향이었다. 학생 수도 증가하여 35명에 이르렀고, 조합의 예산도 1,666원으로 늘었다.

이후 김제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1913년에는 가구 수 328호, 인구 984명, 학생 수 81명으로 증가하였고, 조합 예산도 7,590원에 달했다. 같은 해 3월 5일에는 제3회 조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의원 명단은 별표에 있다.

교사 신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제소학교는 개교 당시 조선식 민가를 임시교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생 수가 증가하고, 공간이 협소해져 교수 활동에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 신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협의를 거쳐 건축 비용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새 학교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한 뒤, 1913년 8월 2일에는 기존 소학교에 고등과를 설치하고 학교명을 김제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목조 와즙(기와지붕) 1동, 총건평 64평 규모의 신교사를 신축하여 학교를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관리자였던 기타오 에이타로 씨는 두 차례 임기를 맡으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나, 1916년 4월 임기 만료로 퇴직하고,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가 관리자에 임명되었다.

이후 1917년 무렵부터 김제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는 여자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고등여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가정의 여자들에게도, 장차 지역 사회의 가정주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오쿠무라 관리자는 재봉을 핵심 교과로 하고, 예의, 작법, 요리, 꽃꽂이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자보습과 설치 허가를 관청에 신청하였다. 이 시점의 김제학교조합 총예산은 9,808원이었다.

1919년 4월 오쿠무라 관리자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고, 같은 해 4월 히라토미 에이이치(平富榮一) 씨가 후임 관리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히라토미 씨는 1921년 10월 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월 12일자로 후임 관리자에 하시모토 히로시 씨가 임명되었다. 하시모토 씨는 취임 직후 열린 조합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제면은 조선인 면장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일본인의 사정이나 관습 등에 어두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조합은 오바라(小原) 지방국장의 훈시에 따라 일본인 관련 사무 및 사회사업 등은 가능한 한 그 책임을 본 조합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1922년 1월 18일, 동양척식회사 김제지점이 이리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하시모토 관리자 및 지역 유지들은 해당 지점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지점의 이전이 김제 발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대신 김제 발전에 기여할 기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 결과 동양척식회사로부터

김제학교조합에 5,000원의 기부금과 함께 지점 사무소 건물 일부를 기증받게 되었다.

교사 증축

김제 지역의 발전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교사는 점점 비좁아졌고, 교육 활동에 큰 불편이 따르게 되었다. 이에 관리자 하시모토 씨는 교사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합회의에 상정하여 찬동을 얻었다. 재원은 마침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기부한 5,000원과, 이전 지점 건물의 일부를 이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충당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교사 26평을 증축하고, 신축 교사 1동 30평 규모를 새로 완공하였다. 조합원들의 부담은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큰 무리 없이 해결되었다. 또한 1924년 1월에는 하리면과 쌍감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지역을 김제학교조합의 구역으로 편입하였다.

관리자 중임

1924년 10월 12일, 관리자 하시모토 히로시 씨는 임기 만료를 맞았으나, 다시 중임되었다. 그러나 1925년에는 김제 인근 지역에 대홍작을 겪으면서 농가의 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대한 보조금도 삭감되었고, 학교조합에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1년을 버텨야 했다. 1926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실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총 45평 규모의 특별

교실을 신축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1927년에는 김제의 가구 수도 증가하여 총 442호, 인구 1,534명, 아동 수는 341명에 이르렀고, 학교 조합 예산도 18,670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어진영(御眞影) 봉안소가 사용될 콘크리트 건물이 준공되어 어진영봉환식이 거행되었다. 이 봉안소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그해 10월 12일, 하시모토 히로시 관리자는 다시 임기 만료를 맞았으나, 또 한 차례 중임되었다.

본 교사 개축

본 교사의 기둥과 토대에 부식된 부분이 많아, 조만간 전면적인 개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하시모토 관리자는 이를 결단하여 교사 개축 계획을 수립하고, 1929년 1월 21일 학교조합 회의에 부의, 조합의 찬동을 얻었다. 이로써 김제소학교 교사의 개축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지역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기존의 여자보습과를 기예여학교로 승격시키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김제는 태인·부안·정읍 등의 넓은 평야지대를 배후로 두고 있으며, 동진수리조합의 설립 이후 조합원 수도 매년 증가해 왔다. 또 동진농업회사의 간척사업, 미쓰비시 광업소의 사금 채광 사업 등의 시작으로 인해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어서,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가정 형편에 맞춰 양치현모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실용적 여성 교육기관의 설립, 즉 기예여학교의 창설은 김제 지역

사회에 있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학교조합은 이 문제를 조합회의에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었다. 곧바로 인가 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본 교사의 대대적인 개축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설계는 전 도청 토목과에 근무했던 후지나가(藤永) 씨에게 의뢰하였고, 총공사비는 3만 5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재원은 다음과 같다.

12,392원 지방비보조금, 14,500원 조합기채(연부 상환금)

3,450원 특지가의 기부금, 4,658원 조합원의 부담금

1929년 7월 12일, 공사는 지명 입찰 방식으로 김제·군산·전주 지역의 유력 청부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김제의 아리타 쇼조(有田庄藏) 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 청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죽산분교 설치 진정

1929년 9월 27일, 김제군 죽산면에 거주하는 일본인 거주자들로부터 김제소학교의 분교 설치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진정의 요지는 수년 전 학교조합 구역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조합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음으로, 이번 본 교사 대개축으로 생기는 구교사의 일부를 죽산으로 이전하여 분교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합의 재정 사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산면 거주자들의 요청에 대해 동정하는 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아쉬움 속에 부결되었다.

한편 같은 해 9월 김제공립기예여학교의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관

리자 하시모토 히로시 씨는 출납역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조합의원 구라하라 이치지(倉原市次),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등과 함께 지사, 내무부장, 학무과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개축 중인 본 교사 공사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척되어, 1929년 12월에 준공, 그달에 성대한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덧붙여 이번 교사 건축에 있어 다음의 독지가들이 기부금을 출연하였다.

하시모토 히로시,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미쓰비시 김제광업소, 아베이치상사 주식회사, 동양척식회사 이리지점,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桒富安左工門), 동진농업주식회사, 우콘(右近)농장 김제출장소, 미조테(溝手)⁵¹⁾농장, 히라토미(平富)농장(기부 금액은 생략)

기예여학교 인가

김제기예여학교 설립을 당국에 신청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는데, 1930년 2월 22일부로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이에 따라 신축된 교사의 일부를 여학교 교실로 사용하고, 종래의 보습과를 폐지한 뒤 제1학년과 제2학년생 총 60명의 입학에 허가하였다. 학생들의 입학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 것이 바로 기숙사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읍내의 연립가옥[町長屋]을 빌려 보습과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해 왔으나, 이 방식은 풍기 유지 및 감독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적절한 장소로 기숙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합 예산 사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는 실행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조

51) 원문에는 溝手로 되어있으나 미조테 야스타로(溝手保太郎)가 세운 미조테(溝手) 농장이다.

합의원들이 강제 교육 발전을 위해 자비로 공동 출자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고, 이를 학교 조합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1930년 7월에 기숙사 건축을 시작해 8월 말에 준공하고, 9월 1일부터는 기숙사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숙사는 조합이 1-2년 이내에 매입하기로 미리 약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1933년도에 학교 조합이 이를 매수하였다.

죽산분교 신축

1930년, 죽산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다시금 죽산분교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한 태도로 강제군청과 도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그 해결이 있을 때까지 자녀를 김제소학교에서 퇴교시키자는 의견을 주민들 사이에 제안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학교장 앞으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아동 전원을 실제로 퇴교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학교조합은 즉시 조합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마침 당시 하시모토 관리자는 일본 본토로 여행 중이었으므로, 군수와 조합의원 및 출납역은 죽산면사무소에서 죽산 거주민들과 직접 만나 회의를 가졌고, 동시에 조합에서도 관리자의 귀환을 기다리며 신중히 검토한 끝에, 1931년도에 죽산소학교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죽산면 거주 일본인들도 점차 이해를 표하고 지역의 분위기는 안정을 되찾았다.

죽산소학교의 신축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도에 죽산면 내 거주자들의 기부금으로 교사를 건축하는 계획이 원만히 진행 중이었다. 이에 조합에서는 본도(전라북도) 토목과에 설계를 의뢰하여 교사 1동, 교

장 관사 1동을 포함한 총공사비 4,200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1931년 5월 착공하여 같은 해 7월 18일에 준공하였으며 이날 낙성식과 함께 개교식을 거행하고 아동 19명을 수용하였다. 끝으로 죽산분교 신축에 기부한 지방 유지들은 다음과 같다.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기무라 도지로(木村東次郎), 야마구치 후지(山口フジ), 모로쿠마 마고이치(諸隈孫一), 후지카와 요네이치(藤川米一), 다바타 요사쿠(田畠與作), 오자와 사헤이지(小澤左平治), 마쓰오카 하루시치(松岡治七), 외 23명.

하시모토 관리자의 중임

관리자 하시모토 씨는 1933년 10월 12일, 임기 만료에 따라 제5회째 중임(재선임)되었다. 그는 그동안 가사를 돌볼 겨를도 없이 온 힘을 다해 김제 교육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그 공적은 실로 적지 않다.

황태자 전하 탄생(御降誕) 기념사업

김제소학교의 운동장은 약 1,000여 평으로 협소하다고 할 수 없었으나,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2년도에 운동장 서쪽 인접 토지 약 800여 평을 매수하였고, 1934년 황태자 전하의 탄생[御降誕]을 기념하여 이 부지를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사비는 학교 유지들의 기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 7일에 준공하였다. 이로써 운동장 면적은 약 2,000여 평이 되었고, 벚나무의 이식 및 증식, 교사 앞 조경과 식수, 교문 개조 등을 통해 학교의 미관도 한층 향상되었다.

1934년 현재, 김제소학교 아동수는 272명, 기예여학교는 고등과 설치로 생도 수가 72명에 이르렀으며, 학교 조합의 총 예산은 2만 9,422원에 달했다. 한편, 학생들은 신개간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교육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도덕교육과 사회교육면에 특히 힘을 쏟았고, 김제청년교육회와 학부모회 등을 조직하여 학교 발전과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합 세입출 예산액표

연도	예산액	조합원 호수	1호평균 부담액	연도	예산액	조합원 호수	1호평균 부담액
1910	310원	50호		1923	16,376원	357호	28원208
1911	854	60	5원466	1924	17,113	364	27원134
1912	1,666	89	4원370	1925	16,445	355	23원536
1913	7,590	328	4원200	1926	22,669	437	25원265
1914	3,456	304	4원500	1927	18,670	442	25원009
1915	7,976	376	8원390	1928	21,647	456	26원579
1916	4,450	400	7원890	1929	55,723	460	27원667
1917	4,673	379	8원340	1930	26,737	470	28원770
1918	9,808	360	12원500	1931	33,723	480	27원358
1919	7,083	360	12원500	1932	29,287	480	30원500
1920	12,663	360	24원486	1933	29,421	480	30원608
1921	13,996	393	22원196	1934	30,450	460	30원832
1922	21,813	361	26원507				

역대 관리자 및 의원

초대 관리자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취임 1911년 3월, 퇴임 1916년 4월) 재직 6년

2대 관리자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취임 1916년 4월, 퇴임 1919년 4월) 재직 3년

3대 관리자 히라토미 에이이치(平富榮一, 취임 1919년 4월, 퇴임 1921년 10월) 재직 2년반

4대 관리자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취임 1921년 10월 현재) 재직 12년 8월

초대의원(취임 1910년 12월, 퇴임 1911년 3월)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 무라마쓰 토라오(村松寅雄), 기무라 도지로(木村東次郎), 후루키 도쿠타로(古木德太郎), 오모테 스케하루(表助治)

2대 의원(취임 1911년 3월, 퇴임 1913년 3월)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 이치하라 스케하루(市原助治), 무라마쓰 토라오(村松寅雄), 후루키 도쿠타로(古木德太郎),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기무라 도지로(木村東次郎), 아소 덴시로(麻生傳四郎), 야스타케 쓰도무(安武懋)

3대 의원 (취임 1913년 3월, 퇴임 1918년 3월) (이상은 임기 2년)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 가사하라 쇼이치(笠原正一), 오모테 스케하루(表助治), 무라마쓰 토라오(村松寅雄), 아소 덴시로(麻生傳四郎), 후루키 도쿠타로(古木徳太郎), 나카후지 케이키치(中藤敬吉)

4대 의원(취임 1915년 3월, 퇴임 1915 7월 3일)(이하 임기 3년)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 오모테 스케하루(表助治), 이노우에 요시로(井上與四郎), 기무라 도지로(木村東次郎), 나카후지 케이키치(中藤敬吉), 히에다 마타스케(稗田又助)

5대 의원 (취임 1918년 3월, 퇴임 1918 10월 3일)

야마기시 겐지로(山岸善次郎), 미기다 야스히코(右田保彦), 다테이시 후쿠조(立石福藏),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이노우에 마타시치(井上又七), 오가와라 노부오(荻原信雄),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아쓰미 겐시로(渥美善四郎)

6대 의원 (취임 1921년 3월, 퇴임 1924년 3월)

다테이시 후쿠조(立石福藏), 구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에바라 요시오(榎原義夫), 스즈키 쿠니사쿠(鈴木國作), 후루야 헤이조(古家平藏) △기노시타 다카모리(木下生盛) △가와나베 가네오(川邊兼雄), 이노우에 마타시치(井上又七) ○요시후지 사이치로(吉藤佐一郎) ○아라키 주타로(荒木壽太郎)(△:중도 퇴임 ○:보결)

7대 의원 (취임 1924년 3월, 퇴임 1927년 3월)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구보 슈이치(久保秀一), 이케 마스미(池眞澄), 히노 기스케(日野喜助), 에바라 요시오(榎原義夫), 하마 사부지로(羽場餐三郎), 가와노 겐지로(河野健次郎), 소노베 도쿠마쓰(園部德松)

8대 의원(취임 1927년 3월, 퇴임 1930년 3월)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쓰카모토 쓰네퇴(塚本恒雄), 오카 가즈유키(丘一之),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도모리 마타사쿠(土盛又作), 야마다 가이치로(山田嘉一郎), 히노 기스케(日野喜助)

9대 의원 (취임 1930년 3월, 퇴임 1933년 3월)

가네코 슌이치(金子俊一), 요시마루 요사쿠(吉丸與作), 기무라 케이타로(木村恵太郎), 하토모토 우메타로(波戸元梅太郎), 미야자키 도요키(宮崎豊喜), 쿠니다 도쿠타로(國田徳太郎),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다카다 마사오(高田政雄)

10대 의원 (취임 1933년 3월 현재)

이토 아이치(伊藤彌市), 고바사 도요헤이(小場佐豊平), 하시모토 가쓰오(橋本勝雄), 요시마루 요사쿠(吉丸與作), 구라하라 이치지(倉原市次), 사토 데루(佐藤照), 아카쓰카 다쓰지로(赤塚辰次郎), 마쓰시타 다이로쿠(松下太六)

직원 이동 일람표

직명	이름	취임연월일	퇴임연월일	재직기간
출납역 겸 서기	三藤軍平	1910.12	1912	2년
출납역 겸 서기	相羽萬太郎	1912	1915	3년
출납역	大村以文	1915	1916.4	4년
출납역	村辻盛之助	1916.4	1918.4	2년
출납역	三藤軍平	1918.4	1922.12	4년 8개월
출납역	橋本勝雄	1922.12	1925.12	3년
출납역	宮本宇一郎	1925.12	현재	
서기	相羽菊次郎	1915	1917.11	2년
서기	佐藤禎市	1917	1919.9	1년 10개월
서기	宮本宇一郎	1920	1925.12	5년 9개월
서기	木村常吉	1926	현재	

김제소방조

김제 소방조는 1913년 창립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해 왔다. 아래는 그 주요 연혁이다.

- 1913년 10월: 김제소방조가 설치되어, 보부(防部)농장 주임이던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가 조두(소방대장)에 취임하고 간부 5명, 조원 60명으로 시작되었다.
- 1915년 8월: 조두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가 사임하고, 부조두였던 다테이시 후쿠조(立石福藏) 씨가 조두로 취임하였다.

- 1918년 7월: 김제군 월촌면과 인접한 정읍군 감곡면을 중심으로 대홍수가 발생하자 전 조원이 출동하여 인명과 가축의 구호와 경계 활동에 종사하였다.
- 1919년 3월: 3.1운동에 따른 소요 사태에 즈음하여 경찰을 원조하고 화재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다.
- 1919년 12월: 조두 다테이시 후쿠조(立石福藏) 씨가 사임, 기쿠타 도스케(菊田藤助) 씨가 조두에 취임하였다.
- 1920년 1월: 김제역전의 발전에 따라 소방 활동의 필요성이 커져 펌프 등 기구를 증설하고, 읍내를 제1부, 역전을 제2부로 나누어 각 부장 아래 독립된 체제로 운영하며 주로 제1부를 조두, 제2부를 부조두가 관할하게 했다.
- 1920년 11월-1921년 3월: 기존 펌프의 성능이 부족하여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1,200원을 들여 독일식 일호(一號) 펌프 2대를 구입하여, 각부에 1대씩 배치하였다.
- 1922년 5월: 이리에서 열린 전라북도 연합회 소방연습에 참가하였다.
- 1923년 1월: 기쿠타 도스케(菊田藤助) 조두가 사임하고 제2부장 이턴 야마구치 헤이조(山口平藏) 씨가 조두에 취임하였다.

- 1923년 10월: 김제소방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 1924년 5월: 야마구치 헤이조(山口平藏) 씨가 사임하고, 현 조두가와사키 도메지로(川崎留次郎) 씨가 조두에 취임하였다.
- 1926년 11월: 400원을 투자해 김제읍내 중앙부에 경중대를 신설하였다.
- 1927년 11월: 각 부서별로 처리하던 회계를 단일 회계제로 통합하고, 조원의 복장을 통일하였다. 당시 조원 수는 조두 이하 총 140명이었다.
- 1927년 12월: ‘지나인⁵²⁾사건’에 즈음해 총원이 출동하여 화재 경방에 노력하였다.
- 1928년 11월: 11일에는 조선소방협회가 창립되면서, 현 조두가와사키 도메지로 씨가 전북연합지부 평의원 및 김제지부 간사로 위촉되었다.
- 1929년 1월 6일: 제국소방조 대표자 및 제도(帝都)소방대 2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어친열식(御親閱式)이 거행되었는데, 현 조두가와사키 도메지로 씨는 여기에 참석하여 영광을 입었다.

52) 지나인(支那人)은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인이 중국인을 낮춰 부르던 차별적 표현이다.

- 1929년 11월: 시가지의 발전과 대형 건물의 증가에 따라 이에 걸맞은 소방설비의 확충이 필요해져 1만 원의 예산으로 기계 및 설비 확충 계획을 세우고, 그 첫 조치로 김제읍내 시장에 저수량 400석의 소방 정호(井戸) 1개소를 신설하였다.
- 1930년 5월: 모리스식 자동차 펌프 1대와 수관차 등을 5천 원에 구입하였다.
- 1930년 7월: 김제읍, 역전, 월촌면, 정읍군 감곡면 일대의 대홍수에 대응하여 인명 및 가축의 구조와 경계 활동에 총원 출동하였다.
- 1930년 11월: 시가지 곳곳에 콘크리트로 만든 저수량 210석 규모의 용수류(用水溜) 8개소를 신설하였다.
- 1930년 9월: 김제경찰서 구내에 아연으로 지붕을 이은 평옥 건물로 건평 28평 규모의 펌프자동차 차고를 신축하였다.
- 1930년 11월: 차고 앞에 철골 경종대(警鐘臺)를 신설하였다.
- 1931년 2월 11일: 기원절⁵³⁾에는 1930년 수해 구조의 공로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53) 일본 신화 속의 초대 천황인 진무(神武) 천황이 즉위했다고 전해지는 2월 11일을 기념하는 날.

- 1931년 7월: 김제읍내 월촌면, 정읍 감곡면의 수해에 대응해 이재자 구조와 경방 활동에 종사하였다.
- 1932년 12월: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정원을 축소하고, 동시에 전 조원의 제복을 새로 제작하여 통일하였다.
- 1933년 4월: 김제소방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춘계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장기 근속공로자들은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미곡상조합

김제미곡상조합은 1916년, 김제 지역의 미곡상들이 동업자의 복리증진과 거래 개선 및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창립 당시 조합원 수는 18명에 불과했지만, 시대의 진전에 따라 점차 성장하여 현재는 52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초대 조합장은 이노우에 마타시치(井上又七) 씨였으며, 현재는 이케 마사미(池眞澄) 씨가 조합장으로 김제 미곡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제미곡상조합은 항상 대량 거래에 종사하며 김제 미곡 유통을 주도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영업 형태는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동력 설비를 갖춘 정미공장을 운영하며 백미나 현미의 수출입과 위탁매매를 겸하는 경우,
- ② 도정[매갈이, 粳摺]공장을 중심으로 현미를 유통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면서 위탁매매를 겸하는 경우,
- ③ 주로 내지 또는 생산지 상인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경우,
- ④ 김제나 외지에서 도정공장을 운영하며 자본가로서 산지와 연계하여 미곡을 수집·판매하거나 발송하는 형태,
- ⑤ 자가 생산한 벼를 유통하면서 주문판매 및 위탁매매를 병행하는 형태,
- ⑥ 조선쌀 뿐 아니라 외국산 미곡이나 만주곡 등을 수입·판매하는 유형이다.

김제는 전라북도 유일의 쌀 집산지로, 연간 약 80만 가마에 달하는 쌀이 유통되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전국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다. 김제의 흥망은 김제쌀에 있다. 김제미곡상조합원들은 김제 경제뿐 아니라 조선 산업 전반의 발전과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인구와 식량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조합의 전도가 다행히 양양한 것이다.

덧붙여서 현재의 김제미곡상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하토모토 우메타로(波戸元梅太郎), 안기룡(安基龍), 야마다 가이치로(山田嘉一郎), 조기선(趙紀宣), 이치카와 다쓰지(市川辰二), 고바사 도요헤이(小場佐豊平), 오카모토 겐지(岡本健次), 후지타 유이치(藤田祐市), 사토가타 요시아키라(里形義証), 나카야마 시게조(中山重三), 곽홍석(郭泓湑), 하시다 쓰루지로(橋田鶴次郎), 조재식(趙在軾), 이케 마사미(池眞澄), 히노 겐스케(日野善助), 쿠니다 도쿠타로(國田徳太郎),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니시무라 시게지로(西村繁次郎), 나카야마 하루오(中山治雄)

기타 관공서

김제에는 미곡상조합 외에도 세무서, 곡물검사출장소,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 농업창고, 금융조합, 동진수리조합 등 여러 관공서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 역시 김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6편 상업

예전의 조선은 교통시설이 미비하고 여행이 위험했기 때문에 일본 처럼 일상적으로 행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각지에서 열리는 시장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파는 시장 상인들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게다가 교통비용 부담과 시장의 수용 능력이 낮았기 때문에, 조합이나 개항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점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지에서 열리는 정기시장은 유일한 물자 수급처이자 지방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동시에 시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위안과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고, 법령이나 사회 여러 사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시장이 열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작고 외진 시장조차 수백 명이 몰렸고, 유명한 대규모 시장에는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며 지방경제에 있어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다. 그 후 통감정치와 총독정치를 거치며, 교통망이 정비되고 치안 기관이 강화되었으며, 산업 개발이 장려되면서 외진 해안 지역까지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업 활동의 편의도 다소 개선되었다. 시장의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제시장

김제시장은 일본인이 이주해 오기 전까지는 그저 규모가 작은 시장에 불과했으며, 거래 범위도 인근 몇몇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호남선 철도가 김제 지역을 통과하고 일본인들이 다수 이주해 오면서, 이들은 다양한 물품을 파는 점포를 열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물자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3-5리 정도의 거리를 멀게 여기지 않고 시장에 찾아오는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열리는 날마다 방문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고, 매년 시장의 출장자가 실로 수천에 달하고, 음력 7월 백중(百中) 무렵과 설 전에는 방문객 수가 1만 명을 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김제시장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은



1920년대 김제시장 (출처: 김제시청 제공)

농산물, 수산물, 직물류, 축산물 등이었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이 빠짐없이 거래되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인근 농민과 보부상에 의해 공급되었고, 일본인이 직접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김제시장의 연간 거래액을 보면, 농산물이 44,250원, 수산물 155,000원, 직물류 19,000원, 축산물이 126,726원, 기타 품목이 140,500원으로, 총액은 445,476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조선인 사이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금건류(金巾類), 건염어류는 대부분 중국인과 조선인 상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분야는 금물류(金物類), 조선인용 잡화상, 미곡상, 전당포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제시장은 각종 사업이 성장할 여지가 많은 유망한 상업지다.

도매상업

현재 김제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은 소매 중심이며, 도매를 중심으로 하는 상점은 겨우 두세 곳뿐이다. 그러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볼 때, 유래 전라북도 100만 거주자가 소비하는 물자 중 자급자족 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군산항을 통해 들어와 군산의 도매상을 거쳐 각지로 운송되어 왔다. 하지만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김제는 순식간에 호남 지방의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이는 도매업 중심의 상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 만약 김제의 상인들이 이에

발맞춰 분발해 나선다면, 인근 평야 지역의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소매상점

김제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상점은, 고객 10가구당 1개의 상점이 있을 정도로 매우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상점 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제 주변에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 흩어져 있는 여러 마을들은 유망한 농업지대로, 거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넉넉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 덕분에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각 상점마다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드나드는 모습이다. 김제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특히 눈에 띄게 변화한 모습을 보이며, 매우 분주하고 활기찬 광경이다.

대표적 회사 상점

다음은 김제에서 가장 신용있는 회사 및 상점이다.

이시카와(石川)현농업주식회사, 이케 마사미(池眞澄)상점, 이마이(今井)상점, 이치카와 다쓰지(市川辰二)상점, 이노우에(井上)상점, 이토(伊藤)자전거점, 하시다(橋田)상점, 하라다(原田)상점, 하토모토(波戸元)상점, 니시무라(西村)상점, 혼다(本

田)상점, 벳푸(別府)상점, 도치야(栃谷)상점, 동진농업주식회사, 조기선(趙紀宣)상점, 조재희(趙在熙)상점, 조재식(趙在軾)상점, 고바사(小場佐)상점, 오카모토(岡本)상점, 하키타(萩田)상점, 오자와(小澤)시계점, 와타나베(渡邊)백화점, 가와노(河野)상점, 가도와키(門脇)인쇄소, 요시다(吉田)상점, 다카다(高田)상점, 다카하시(高橋)상점, 다이라(平)상점, 쓰지무라(辻村)재목점 김제지점, 노자키(野崎)사진관, 라이온사진관, 무카에다(迎田)상점, 우치야마(内山)운송점, 노지마(野島)상점, 쿠니다(國田)상점, 구보 슈이치(久保秀一)상점 읍내, 구보(久保)상점 역전, 구라사와(倉澤)상점, 구로다(黒田)재목점, 야마다(山田)상점, 야기(八木)상점, 후지타(藤田)상점, 마쓰모토(松本)상점, 후쿠이(福井)상점, 후타미(二見)식당, 후카가와(深川)상점, 고마쓰(小松)상점, 곤도(近藤)자전거점, 아베 이치(阿部市)상점 김제농장, 아베(阿部)약점, 아리타(有田)상점, 아카자와(赤澤)상점, 사사키(佐佐木)상점, 김제자동차상회, 김제 금융조합, 김만(金萬)자동차조합, 미쓰비시(三菱)광업소, 미조테(溝手)농장, 식산은행 김제지점, 히라야마 감심당(平山甘心堂), 히노(日野)상점,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상점, 스즈키(鈴木)상점

시장매상고 5개년 비교

연별/종별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기타	계
1928년	56,800	142,500	4,500	72,890	199,860	479,250
1929년	57,500	138,000	5,800	79,800	186,000	467,100
1930년	40,250	125,200	15,220	71,820	148,800	401,290
1931년	44,200	128,100	19,400	72,500	240,000	504,200
1932년	44,250	115,000	19,000	126,726	240,500	545,476

제7편 공업

김제의 공업 가운데 특기할 만한 업종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정미업, 도정(粳摺), 철공업, 양조업, 인쇄업, 통조림 제조업 등이 존재한다. 이 외에 김제에서 3리 떨어진 금구면에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사금광이 있다. 그러나 김제가 공업 지역으로서 매우 유망한 입지에 있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미 및 도정업은 조선 유일의 쌀 본고장이라는 김제의 특성상,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추 산업이다. 주변 비옥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연간 약 백만석의 벼는 반드시 김제로 집결되어 전국 각지로 수송되며, 이 미곡을 그대로 반출하기보다는 현미 또는 정미로 가공하여 수송하는 편이 운송비 절감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이처럼 정미업은 김제 공업 중 가장 유망한 산업이며, 예로부터 주목받아 온 바 있어 장래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양조업 또한 원료가 풍부하고 판로가 넓은 김제의 입지를 고려할 때, 현재가 바로 성장 시기에 접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북 평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료 제조업도 향후 호남 지방에서 발달한다면, 수요의 중심지로서 쌀의 본산인 김제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장차 김제는 전북은 물론 전남까지 아우르는 공업의 중심지가 되어 다양한 공장이 발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김제의 주요 공산품은 다음과 같다. 정미, 도정, 인쇄, 양조, 박채(蓴菜, 순채), 농구 등이고, 최근 1년간의 각 공산품별 생

산액은 농구 5,000원, 차량 3,200원, 일본간장 및 된장 25,000원, 과자 19,000원, 박채 19,000원, 일본술 28,000원, 조선술 87,000원, 기타 정미 및 도정을 합하면 700만원 이상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토목·건축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많으며, 이는 동진수리 조합 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김제가 교통이 편리하고 활동하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자재의 수급이 용이하여 산업 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공산액(1933년도 말)

품명	산액	품명	산액	품명	산액
금속제품	5,050	과자	19,500	재봉품류	3,800
농구	4,150	박채	19,000	일본술	23,000
차량	2,345	면류	10,800	조선술	84,720
목제품	15,200	가마니	3,240	통조림	3,200
일본 간장 된장	15,850	피혁제품	4,200		

제8편 금융기관

토지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우선 금융기관의 충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제는 호남선 개통 이전까지는 어떠한 금융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1910년 10월 1일에야 비로소 김제우편국이 설치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우편국에 자금을 예치해 필요할 때마다 이를 인출해 쓰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 금융업자에게서 일시적으로 융통받는 형편이었다. 그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그 시절, 김제우편국은 개인 금융업자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금융기관이었다. 이후 전주농공은행 김제지점이 개설되고, 김제금융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충실해졌고, 금융 사정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이로써 지역 경제의 온건한 발전이 가능해졌고, 각종 산업의 발흥을 촉진하며 토지 개발에도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상업·공업 자금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은행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물적 담보를 중시하며, 금융조합은 자금 운용과 조합원 자격에 제약이 있어, 이용자층이 주로 중산층 이상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은 대체로 개인 금융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무진강(無盡講)⁵⁴⁾이라 불리는 계모임에 가입해 금융을 해결하는 모습이 흔하다. 무진과 개인 금융업자도 또한 여전히 김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54) 무진강은 개항기인 1877년부터 부산, 목포, 군산, 인천 등 일본인 거류지에서 이자 징수를 목적으로 한 계와 비슷한 성격의 금융업이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에 조선무진업령을 공포하였다. 이후 개인 무진업자는 사라지고 무진업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무진회사였다.

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김제식산은행의 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공 대부 41건, 541만 9,877원, 산업 대부 653건, 308만 7,800원, 상업 대부 258건, 93만 1,000원에 달한다. 이는 동 은행 창립 당시 총대부액이 45만여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불과 10여 년 만에 김제 경제가 얼마나 눈부신 성장과 팽창을 이루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다.

조선식산은행 김제지점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⁵⁵⁾ 김제지점은 전주농공은행의 뒤를 이어 1918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당시의 거래는 극히 미미하여, 예금은 617건에 약 2만 4천 원, 산업대부는 31건에 11만 1천 원, 상업대부는 170건에 35만 8천 원 정도였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예금 448건 41만 580원, 공공대부 41건에 541만 9,877원, 산업대부 653건 308만 7,863원, 상업대부 358건 93만 1,404원으로 지점이 설립되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발전은 지방의 경제력 향상, 동진수리조합 설립에 따른 산업 개발, 관공서의 지도와 장려에 따른 산미 증산, 기타 여러 시설의 개선 등에서 비롯된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역대 은행 실무진들의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적절한 영업 방침 덕분이라고 할 수

55) 조선식산은행(1909 설립)은 일본이 조선의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설립한 국책 금융기관으로, 실질적으로는 일본 자본과 식민지 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조선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은행은 조선 자본의 축적보다 일본 기업의 진출과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식산은행은 식민지 경제 지배와 수탈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핵심 기관으로 평가된다.

있다. 동 지점은 앞으로도 지방 경제를 위해 공헌하며 건실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로 역대 지점장은 창립 당시의 가메이 시즈오(亀井靜雄) 씨, 쓰치야 다이스케(土屋泰助) 씨를 거쳐 모토야마 분유(本山文勇) 씨로 모토야마 씨는 1924년부터 1931년까지 7년 동안 장기 재임하였다. 그 다음은 이시타니 쇼이치(石谷正一) 씨로 1년 재임 후 전직하였으며, 현재는 이타바시 가쓰미(板橋勝己) 씨가 지점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치밀한 두뇌와 민첩한 처리 능력을 갖춘 인물로, 부임한 지는 아직 오래되지 않았으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김제금융조합

김제금융조합은 최근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현재 조합원은 1,350명, 예금은 28만 9,958원, 대부금은 27만 4,941원에 달하며, 대부금의 회수도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출자금의 대부분은 농업과 상업 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당국의 농업개량 장려 정책과 맞물려 대출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사는 노사카 무네키치(野坂宗吉) 씨로, 그는 조합 사무소 앞에 가사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조합원들을 친절하게 지도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매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조합의 영업 실적도 세 월과 더불어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은 김제금융조합으로서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현상이다.

제9편 오락 시설

오락 시설은 한편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여겨지고, 그 종사자들은 비생산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오락 시설 역시 사회 조직의 한 요소로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특히 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제에는 김제좌(金堤座), 당구장을 제외하고는, 오락 시설이라 부를 만한 곳이 전무하다. 작년에는 승마구락부가 조직되었지만, 운영비 문제로 해산되었으며, 현재 김제에서는 당구장과 극장이 유일한 오락 시설이고, 요리점과 음식점 등이 사교 장소의 기능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 잡지

김제는 교통이 편리하고 장래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는 점에서 보면, 언젠가 일간신문이 발간될 시기가 올 것임은 감히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김제에서 자체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류가 발간된 적이 없으며, 시사 문제나, 시정에 관한 잡다한 기사들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보도되는 형편이어서, 실로 문화 수준이 뒤쳐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김제에서 독자가 가장 많은 신문은 다음과 같다.

군산일보, 전북일보, 경성일보, 조선신문, 부산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여관, 요리점 및 음식점

여관이나 요리점, 음식점과 같은 시설의 설비 수준과 서비스 요금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역의 전반적인 번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여관은 여행객에게는 말하자면 제2의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비가 불완전하거나, 위생이 나쁘거나, 대우가 불친절할 경우, 여행객은 큰 불편을 겪게 되며, 이러한 요소를 피하고자 설비가 잘 갖춰지고, 청결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요리점이나 음식점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름답고 아리따운 종업원이 있더라도 설비, 서비스, 음식이 뒤떨어진다면 손님이 자연히 멀어진다. 반대로 아무리 시설과 음식이 훌륭하더라도 종업원의 태도나 접객 서비스가 불쾌하다면 인기를 끌기는 어려운 법이다. 특히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부당한 유흥을 권유하거나, 지나친 유흥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지역 전체의 평판을 해치게 되고, 결국 여행객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며, 이는 곧 지역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김제는 창시 이래 고작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흥 발전지이지만, 여관·요리점·음식점 등은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서비스나 음식의 질 또한 경쟁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자도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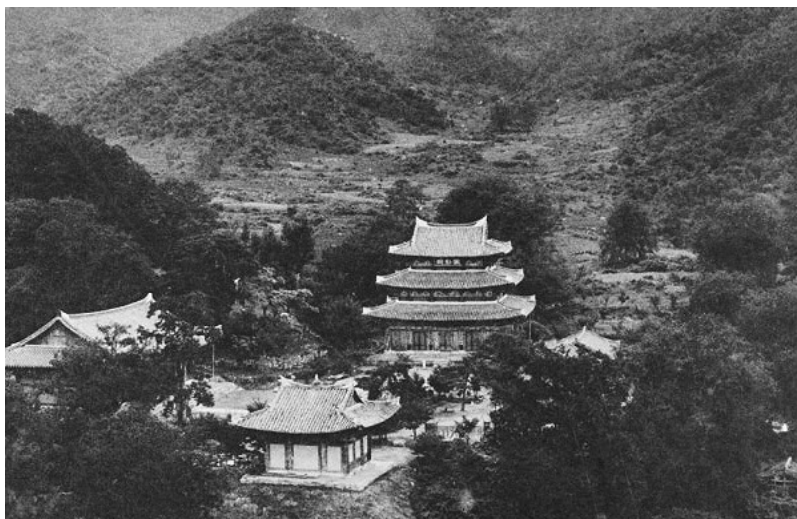
며, 특히 아리따운 종업원이 많은 것은 김제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자부할 만한 일이다. 호남 지역을 여행하는 이들이 안심하고 숙박하거나 한 잔 술을 기울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김제에서 신용 있는 여관·요리점·음식점들이다.

△여관 대정(大正)여관, 장기옥(長崎屋)여관, 신평(新豐)여관 △요리점 수정(壽亭), 식도락(食道樂), 추월관(秋月館)

제10편 명승고적

고찰 금산사

김제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명승고적으로, 금산사는 1,3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찰로서 수류면 금산리에 위치해 있다. 김제에서 약 4리 떨어져 있으며, 전주와 정읍 사이의 중간 지점인 약 7리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사찰은 삼면이 모악산맥에 둘러싸이고 오직 한 쪽만 열려 있어, 천혜의 명승지로 손꼽히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창간에는 백제 법왕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신라 덕왕 2년(768), 자장



1930년대 금산사 전경 (출처: 모악산 금산사 제공)



금산사전경 (출처: 김제시청 제공)

법사가 왕의 명을 받아 당나라에서 석가세존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귀국한 뒤, 이를 모시기 위한 탑을 세우고 그 아래에 사리를 안치하였는데, 이 탑이 현재 남아 있는 유명한 송대석(松臺石) 종탑이다. 또한 신라의 경덕왕 23년(764)에 율사(律師) 진표(眞表)가 미륵존불을 비롯한 삼존불을 모셔 3층 보전(寶殿)을 건립하였는데, 일부 설에 따르면 이 삼존불은 조선 초기에 조성된 걸작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분로쿠(文祿) 원년(1592)의 임진⁵⁶⁾왜란으로 인해 사찰은 화재로 전소되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후 복구에 착수하여 겐나(元和)⁵⁷⁾ 원년(1615, 신유) 3월에 대체로 재건이 완료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목조건축물 중 가장 위대한 건축이라 평가되는 미륵전으

56) 원문에는 塲辰으로 표기되었으나 임진의 오기로 보인다.

57) 에도 전기 고미즈노오덴노(後水尾天皇) 조(朝)의 연호

로, 3층 구조의 이 건물은 조선 내에서도 보기 드문 진귀한 형식이다. 그후 건물 훼손이 심각해져, 참배하러 오는 이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유물을 특별 보호 건조물로 지정하고,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 복원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술자를 직접 파견하여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대적인 수리를 진행하였고, 1922년에 이를 마무리하여 사찰은 크게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한편 금산사 경내에는 많은 유적이 남아 있어, 이를 찾는 참배객들에게 옛 정취를 되새기게 한다.



1910년대 추정 금산사 미륵전 및 13층탑 (출처: 김제시청 제공)

벽골제(碧骨堤)

김제읍에서 서남쪽으로 약 1리 떨어진 부량면에는 고적이 하나 남아 있다. 벽골제라 불리는 고대의 저수지로, 지금으로부터 약 1,180여 년 전, 신라 탈해왕 21년(77년경)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⁵⁸⁾ 당시 벽골제의 수원(水源)은 세 개의 물줄기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두 줄기는 김제의 모악산, 나머지 하나는 태인의 상두산에서 발원한다. 저수지의 제방은 연장 1,800여 칸(약 30정)에 이르며, 주위는 약 7만 6,000여 칸에 달하고, 관개할 수 있는 면적은 여러 군에 걸쳐 약 1만 6,400정보에 이르렀다고 한다. 후세에 들어 일시적으로 황폐해



벽골제 수문 (출처: 국가유산청 공공누리 저작물)

58) 벽골제의 축조 연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碧骨堤在縣西三十里 百濟比流王二十七年築”으로 비류왕 27년(3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동일하다. 저자의 탈해왕 21년 축조설은 근대 이후의 지방지나, 향토사 서술 등에서 신라 시대로 소급된 민간전승의 오류로 보인다.

졌으나, 고려 현종 3년(1012)에 수리되었고, 인종 때 다시 한번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 15년(1415) 을미년 봄에, 전라도 검사(檢使) 박초(朴礎, 1367-1454)⁵⁹⁾와 관찰사 박습(朴習, 1367-1418)⁶⁰⁾이 몽리 각군에서 1만여 명의 백성을 징발하여 벽골제를 복구하려 하였으나, 결국 완전히 복구되지는 못하고 중단되었다. 현재는 당시의 수문과 비석만이 남아 있어,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59) 전라도수군도절제사, 경상우도수군처치사 등을 역임한 문신.

60) 호조참판, 병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호남의 보고 김제 발전 사

김제의 추억

김제발전책에 대한 사건

김제 장래에 대한 소견

내지 자본가는 조선에 투자하라

내지 청년은 조선에서 활로를 찾아라

김제의 저명 인물 및 각종기관

사회특별사업 군청 이전 문제

김제 평야의 추억

쓰키가와(月川) 광업소

김제의 추억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내가 처음 김제 땅을 밟은 것은 1906년 여름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김제군 죽산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관리는 청하면에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절친 가사이 겐지로(笠井健次郎) 씨에게 맡겨 두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1년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농장을 시찰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 무렵의 김제는 교통이 무척 불편했다. 군산에서 김제로 가기 위해서는 조선 말을 타고 종일을 흔들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다. 김제에서 전주까지는 6리, 죽산까지는 2리, 만경까지도 2리 거리였으며, 어느 방향이든 도로는 좁고 열악했다. 그렇지만 군청 소재지로서 김제군의 행정·경제의 중심지였으며, 죽산은 김제군의 물자 유통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김제읍에는 일본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 1911년이 되자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씨, 미야모토 마스조(宮本益藏) 씨, 무라마쓰 토라오(村松寅雄) 씨, 도쿠다(德田某) 씨 등이 김제에서 상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 이시카와 농장의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씨가 1908년에 농장을 개설하였고, 이어서 마스토미 농장에는 야스타케 쓰도무(安武懋) 씨랑 히라토미 에이이치(平富榮一) 씨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1911년경에는 오쿠무라 씨가 아베 농장을 개설하였다. 이 무렵부

터 우편소나 헌병분견소가 설치되고, 여관[宿屋]도 생겼으며, 일본인 의사였던 아소 덴시로(麻生傳四郎) 씨도 김제에 온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에는 보통학교나 소학교도 세워졌고, 헌병제도도 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1912년 10월, 호남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는 일본인 이주자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울러 정미 공장(도정공장)이 세워지고, 금융조합과 식산은행 등도 설립되는 등, 김제 지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내가 1915년에 군산의 거처를 정리하고 죽산 농장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1905년에 군산에 자리를 잡고, 무역과 정미업 등을 경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죽산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08년경부터 군산의 공공사업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군산거류민단, 군산상업회의소, 군산 각국 거류지회 등 여러 단체의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어서 군산축항수도기성회 동맹회장으로 추대되어, 항만 개발과 상수도 설치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독부에 청원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이 운동을 3년간 이어간 끝에, 드디어 총독부 토목국장, 사카이 데 나루미(坂出鳴海, 1876-1928)⁶¹⁾ 씨의 양해를 얻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는 군산항 축항공사의 전제로 해저 조사를 실시하도록 허가해주었고, 그에 따라 군산에 토목공영소 출장소를 설치하고, 드레저(준설선)까지 동원되어 해저를 정비할 준비가 이뤄졌다. 이로써 목적의 일부는 이루게 되었다. 한편 상수도 사업에 관해서는 스즈키 반테쓰(鈴木板鐵) 수도기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비의 절반을 국고보조

61) 메이지-쇼와시대의 관료, 토목기술자. 대정성 기사에서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장을 거쳐 조선철도 取締役이 되었다. 1924년 오사카시 도시계획부장 겸 항만부장에 취임하고, 1926년부터 도시계획부 專任이 되어 활약하였다.

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보조 결정이 내려진 마지막 해, 나는 병을 앓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예산편성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의사의 만류를 무릅쓰고 억지로 상경했다. 그리고 총독부 예산에 군산수도공사 보조금이 편성된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직후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 다행히 간신히 위기를 넘겨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계기로, 나는 이후 격무와 번잡한 생활을 피하라는 이와사키(岩崎) 의사의 강력한 권고를 따라 전원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동안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나는 한 방울의 수돗물도 마셔보지 못한 채, 1915년, 결국 죽산 농장으로 거처를 옮겨 본격적으로 요양에 전념하게 되었다. 지금의 농장이 바로 그곳이다.

내가 김제의 공직에 관여하게 된 것은 1921년의 일이었다. 사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원래 건강상의 이유로 격무를 피하고자 전원생활에 들어간 것이었기에, 다시 공직에 나서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본래 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다행히 수년간 정양을 거치면서 건강이 크게 회복된 데다, 마침 김제학교조합 관리자의 결원이 생겨, 김제군수와 조합의원 여러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게 되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하게 된 것이다. 김제학교조합 관리자는 초대가 기타오 에이타로(北尾榮太郎) 씨, 제2대가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 제3대가 히라토미 에이이치(平富榮一) 씨, 그리고 내가 제4대 관리자로서 그 뒤를 잇게 되었다.

김제학교조합은 1910년 12월에 설립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눈에

떠는 발전을 이뤘으며, 이는 모두 역대 관리자의 고심 어린 운영의 결
 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조합이 설립된 초기인 1911년, 그리고 내가 취임한 1921년, 그
 리고 현재인 1934년도의 예산, 조합원 수, 학생 수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별	예산액	조합원수	생도수	비고
1911년도	854원	180인	20인	개교한 해
1921년도	13,996	1,358	289	3대의 관리자를 거쳐 내가 취임한 해
			409	376인 김제소학교생 33인 죽산소학교생
1934년도	30,450	1,810	96	기예여학교생

내가 학교조합 관리자직을 수락하는 데에 주저했던 이유는 건강상
 의 염려만은 아니었다. 내가 살고 있던 죽산에서 김제까지는 약 2리
 거리였고, 그런 먼 거리에서 조합 사무를 본다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가 특히 번거롭다고 느낀 점은 당
 시 김제면의 면장이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사회와 관련된 일,
 공공 사안, 김제 발전책, 그리고 각종 환영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일이 학교조합을 중심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이다.

1923년, 김제와 죽산 사이에 가세베(加瀬部) 씨가 정기자동차 운행
 을 시작하기 전까지 3년 동안은 항상 인력거로 왕복해야 했고, 눈이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엔 인력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
 야 겨우 움직일 정도였기에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1926
 년, 나는 마침내 김제 시내에 나만의 사무실을 설치했고, 그전까지는

김제에 갈 때마다 여관에 묵으며 업무를 봐야 하는 생활을 6년간 이어갔다. 사무소 설치 이후에는 김제에 나갈 일이 더욱 잦아져, 매달 20시간 이상을 김제 및 그밖의 지역에서 보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김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리자의 임기 만료 때마다 조합의원 여러분과 유지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못해, 결국 오늘날까지 다섯 차례나 연임을 하게 되었고, 취임 이후 어느덧 1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14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1922년 동척회사가 이리로 이전하면서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조합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김제군청 이전 문제로 분규를 조정하였다. 교사 증축, 보습과 교실 및 교원실 증설, 신사 위치결정에도 관여하였다. 또한 교육회 부속



1920년대 동양척식주식회사 김제출장소 (출처: 김제시청 제공)

소학교의 아동 기숙사 경영, 학교조합 구역 변경, 세무서 설치 운동에도 앞장섰다. 1924년에는 김제신사를 창건하고, 특별교실 신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1927년에는 다이쇼(大正)천황의 국장[御大葬儀]에 지사의 명령을 받아 전북도민 대표로 참석하였고, 교정 내에 어진영(御眞影) 봉안소도 새로 지었다. 1928년 6월에는 유럽 여러 나라 시찰을 위해 유럽을 순방하였으며, 1929년에는 교사의 전면적인 개축을 단행하였고, 죽산분교 설치 문제가 불거졌다. 1930년에는 김제기예여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죽산분교 설치 문제가 재차 논의되었다. 1931년에는 죽산소학교를 신축하였고, 1932년에는 아동기숙사용 관유지와 건물을 불하받아, 학교조합 사무소를 소학교 특별교실로 이전하였다. 1933년에는 김제여학교에 고등과 및 자유과를 증설하였으며, 학교조합 의원 구성의 만기 개정을 전후 네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금년에는 징세기관의 독립 실시와 더불어 세무서 설치 운동을 다시 벌였고, 이를 위해 임시사무소를 제공하고 부지의 위치도 변경하였다.

김제에서의 나의 공적 생활 14년 동안에는 유쾌한 경험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쓰라린 추억도 적지 않았다. 지금 그중에서 다섯 가지 또는 여섯 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유쾌하게 기억하는 것은, 조합의원을 비롯한 일반 유지들이 언제나 진심 어린 자세로 협조해 주었다는 점이다. 때로는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김제의 평화를 위해 관리자에게 일임한다고 말하며 항상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회장과 부회장을 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제신사 창립위원장, 신사

및 사원의 각 대총대(大總代) 역할까지도 맡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도평의원, 도농회의원, 동 평의원, 군농회 부회장, 동진수리조합 평의원 및 상설위원 등의 다양한 공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31년 11월, 김제가 읍으로 승격되었을 때에는 명예직으로 초대 읍장 까지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소학교사 대개축에 대하여

김제소학교의 교사는 개교 당시에는 조선식 가옥을 사용하였으나, 1913년에 비로소 기와지붕의 목조 단층 건물 1동(64평)을 신축하였고, 이후 생도 수의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축해 나갔다. 그러나 1929년에는 전면적인 교사 개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조합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협찬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의 교사인 양관 2층 건물 1동(연평수 381평)과 작법실·재봉실 등 특별교실 2동(123평)을 포함한 총공사비 3만 5천 원 규모의 대개축이 낙성되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조합의원들이 기부금 모집에서부터 공사 감독에 이르기까지 온 정성을 다해준 덕분에, 나는 지금도 깊은 유쾌함과 감사를 금할 수 없다.

토목공사 준공 당시에는 김제 지역 실정에 비해 과분한 시설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1930년에 김제공립기예여학교가 병설되면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협소함을 느끼게 되었다.

죽산소학교 신축에 대하여

죽산면은 김제소학교에서 2리 내지 3리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아동들의 통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1-2학년생의 학부형들이 김제읍내에 임시주소를 두고 통학시키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1916년, 김제청년교육회의 사업으로 아동기숙사가 설치되어 원거리 아동들이 그곳에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2학년생을 기숙사에 맡기는 것은 학부형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죽산면 주민들은 분교의 설치를 꾸준히 희망하고 있었다. 마침 1915년 김제소학교의 교사 대개축이 이루어지면서, 구 교사의 일부를 이전하여 죽산분교를 세워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조합 측에서도 이에 동정하였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실현은 어려웠다. 1916년에는 다시 분교 설치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원을 파견하여 학교 조합은 물론 군청, 도청에도 진정을 올리며 적극적인 운동이 벌어졌다. 마침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동을 등교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죽산면 아동 전원은 퇴교원을 제출하였다. 조합 측에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분교는 보조금이 적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이가 없었다. 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분교가 아니라 독립된 죽산소학교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조합의원 측에서는 죽산소학교가 설립될 경우 죽산면이 김제학교조합 구역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며 주저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결국 김제학교조합이 세우는 죽산소학교로 설치하는 데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도 당국에서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제학교조합 내

에 제2소학교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김제가 대도시가 아닌 이상 조합원 호수 450호 중 죽산면이 차지하는 30호만으로 제2소학교 설치의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한 뒤 지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나는 여러 차례 김서규(金瑞圭, 1875~1935) 지사와 면담하였다. 지사도 처음엔 난색을 보였으나, 김제학교조합 구역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과 실제 사정을 반복 설명한 결과 대체로 양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신청서를 내보라는 암시도 받게 되었다. 지사의 입장이 바뀌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나는 곧바로 서류 작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청서에는 학교 설치 부지의 지번을 기재해야 했는데, 그 결정에는 지역민 의견 정리와 조합회의 결의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자칫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한 응급책으로 나는 우선 나의 소유지인 죽산 기슭 558번지를 설치 예정지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정식 인가를 받은 뒤 위치 변경 신청을 하기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도지사에게 죽산소학교 설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17년 2월 16일 인가를 받았다. 즉시 죽산면 진정위원 대표자 오자와 사헤이지(小澤左平次) 씨에게 설치 희망 위치에 대한 지역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오자와 씨는 조합원들과 협의한 결과, 현 죽산소학교 부지인 557번지 전답과 553번지 전답에 걸쳐 설치하고자 한다는 신청을 해왔다. 그에 따라 조합회의에서 이를 결정하고 도청에 위치 변경 허가를 신청, 4월 28일부로 인가를 받은 것이다.

부언하자면, 교사 건축비는 죽산면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2천 원

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부지 가운데 553번지의 1번지(밭, 431평)는 동척회사가 기부하였고, 554번지의 2번지(168평)는 오자와 사헤이지 씨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내가 죽산면 거주자이자 김제학교조합 관리자였던 만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심과 노력을 기울인 일이었다.

군청 이전에 대하여

내가 관리자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김제군청의 이전 문제였다.

1922년도 전라북도 지방비 예산에 군청사 신축 두 곳에 대한 경비가 포함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제군청의 개축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읍내와 역전 사이에서 군청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당시 군수였던 김봉두(金奉斗) 씨로부터 중재를 부탁받은 나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자 여러 차례 절충을 시도했다. 읍내 측은 기존의 군청 자리(현재의 읍사무소 소재지)를 고수했고, 역전 측은 역전 부근을 강하게 주장하여,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 사이 도청에서는 예산 집행을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압박해왔다. 나는 김 군수와 상의한 뒤 도청으로 올라가 지사 및 내무부장, 지방과장에게 사정을 진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오키나가(沖永) 토목과장은 격분하며, 만일 위치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으면 김제군청 개축은 보류하고 예산을 타군으로 돌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는 급히 김제로 돌아와, 읍내와 역전 양측 유지 약 40명을 대정여관에 소집하고, 김 군수, 도고(東郷) 서장과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 등의 입회를 요청한 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타협을 호소하였다. 열띤 논의 끝에 마침내 쌍방은 중간 지점인 아쓰미(渥美) 씨 소유지(현 군청 소재지)를 최적지로 합의하였고, 이는 1922년 9월 13일 밤에 최종 결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하나의 또 다른 결실도 있었다. 오랫동안 결정을 보지 못했던 신사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인사들이 “차제에 하시모토 관리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어떨한가”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만장일치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군청 위치를 확정하고, 토지 매수 및 기부금 모집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나는 대정여관에 열흘 가까이 체재하였다.

군청사는 그해 가을 무사히 준공되었고, 이후 그 부근에 경찰서가 신축·이전되었으며, 각종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마침내 역전과 읍내의 시가지가 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실로 그날 밤의 결정을,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며 느끼는 깊은 감회로 새기지 않을 수 없다.

세무서 설치 문제에 대하여

1923년 11월, 조선에 세무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전라북도에는 총 7개소의 세무서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전주와 임실 두 군을 관할하는 1개소,

금산과 무주 두 군에 1개소, 진안과 장수 두 군에 1개소, 남원과 순창 두 군에 1개소, 익산과 김제 두 군에 1개소, 군산과 옥구 두 군에 1개소, 정읍·부안·고창 세 군을 관할하는 1개소였다. 나는 이 계획을 듣고, 만약 김제가 익산과 함께 묶일 경우 세무서는 필연적으로 이리에 설치될 것이고, 이는 김제의 발전에 중대한 손실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김제의 유지들을 학교조합 사무소에 초청해 협의한 뒤 위원회를 구성하고, 익산과 김제를 연결하는 방안을 김제와 부안의 연결로 변경함으로써 세무서를 김제에 설치하도록 하는 목표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부안과의 연대를 꾀하기 위해 나와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에하라 요시오(榎原義夫) 세 사람이 부안으로 가서 그 지역의 유지들과 협의한 결과, 큰 지지를 얻었고 공동으로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귀환한 뒤 곧바로 진정서를 작성해 양 지역 위원들의 명의로 전북도청 및 총독부 각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고, 12월과 이듬해 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몇몇 위원들과 함께 총독부를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김제군의 경제 규모, 면적, 세수, 인구 등을 타 군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김제와 부안이 지리적·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분리될 수 없음을 상세히 논증하였다. 그 결과 하야시(林) 국장과 미즈구치(水口) 이재과장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마침내 김제에 세무서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부지 역시 확정되었고, 우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당시 진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에하라 요시오(榎原義夫), 기타오 다카노부(北尾孝信), 기쿠타 도스케(菊田藤助), 가와노 나가히사(川野長久)(부안), 미야케 우라노

스케(三宅浦之助)(부안), 김봉선(金鳳璿), 곽탁(郭鐸), 강동희(姜東曦), 박연(朴淵),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위원장)

그런데 그 후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 세무서 설치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23년 여름 무렵부터는 징세 기관의 독립에 대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나는 고쿠분(國分) 재무부장과 총독부 방면에 자주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1924년 9월경,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마쓰모토(松本)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이 문제를 문의하자, “명년에는 반드시 독립할 것이니, 세무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각오하라”고 하는 주의를 받았다. 역시 같은 해 12월, 고쿠분 부장에게서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당초 결정되었던 102개소 설치안이 번복되어 최종적으로는 99개소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즉시 기성회를 조직하여 세무서 설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도를 경유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고쿠분 부장으로부터는 “운동을 표면화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아, 은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25년 4월에 이르러, 5월부터 김제 세무서가 정식으로 설치된다는 확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혼자서 4월 13일 경성으로 올라가 각 국장 및 정무총감을 방문하여 진정하였으며, 하야시(林) 재무국장으로부터 “지방의 열의 있는 요청은 가급적 존중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뜻밖에도 내가 면회를 마쳤을 때는 바로 이 국장이 해당 안건을 결정할 국장회의에 출석하기 직전이었다. 다음날 세무감독국 5개소, 세무서 99개소 설치 발표가 있었으며, 그 안에 김제세무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접하

고 나는 곧바로 김제로 돌아왔고, 대신 김제의 유치로 인해 북선 방면의 한 지역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두된 문제가 세무서 가사무소(임시청사)의 마련이었다. 이에 군농회의 면조장(棉操場)을 활용하여 약 1,0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내부 시설 및 구조를 개조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성대한 개청 축하회를 거행하였다.

그보다 앞선 2월경 고쿠분 재무부장이 김제를 방문했을 때 “만일 김제에 세무서가 설치될 경우, 이전에 세무서 부지로 결정된 토지와 김제신사 오타비쇼(御旅所) 부지와 교환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수요에 응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었고, 이후 교환 절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교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뜻을 6월 5일 감독국에 직접 출두하여 진정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7일, 모리야마(森山) 세무서장으로부터 “오타비쇼(御旅所) 부지는 포기하고 제3의 후보지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제3 후보지란 진정 당시부터 검토된 부지 중 하나로, 첫째는 경찰서 앞의 높은 언덕, 둘째는 현재 세무서의 임시 가사무소가 자리잡고 있는 곳, 셋째는 수리조합 북쪽 이토 요네키치(伊藤米吉) 씨 소유지였다. 세무서는 최종적으로 이토 씨의 토지를 교환 부지로 결정하였고, 이토 씨로부터 승낙을 얻어 세무서 부지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다.

제2기 기성회 상설위원은 다음과 같다.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다카다 마사오(高田政雄), 조재돈(趙在敦), 이기호(李箕鎬), 이정근(李正根),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위원장)

김제신사 설립에 대하여

신사 창립은 오랜 세월 동안 김제 군민들의 염원이었으나, 그 위치를 두고 읍내 유지들과 역전 지역 유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22년 9월 13일, 앞서 언급한 김제군청 이전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에서, 마침 그간 쟁점이 되어 온 신사 위치 선정 문제 또한 이 기회에 정리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김제군 관리자였던 하시모토 씨에게 이 일을 일임하자는 제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나는 오쿠무라 씨와 도고 경찰서장을 고문으로 삼아 두 곳의 후보지를 조사하였다. 하나는 수리조합 뒤편 산이었는데, 묘지가 위치해 부적합하였고, 경관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다른 하나는 벽성산(碧城山)으로, 이곳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문헌에도 등장하는 역사적 장소였다. 『삼국사기』에는 마한 50여국 중 하나인 벽비리국(辟卑離國)의 벽지산(辟支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도 청정하게 보존되어 왔다.

이곳은 풍광이 절경으로 일대 팔군(八郡)의 산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승지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서기』 진구(神功)황후 편에 “치쿠마나가히코(千熊長彦)⁶²⁾와 백제왕이 함께 백제의 벽지산에 올라 맹세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일본과의 인연 또한 깊은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 벽성산에 신사를 창설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보아 신

62) 진구황후 때에 백제와 신라외교를 담당했다고 전해지는 인물. 『古事記』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 창립을 공표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 마침 1924년 봄, 황태자 전하(현 금상 폐하)의 혼례가 성대히 거행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벽성산에 김제신사를 창립할 계획을 세워 일반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내가 급히 일본 내지로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이 일을 군서무주임 야쿠시진(藥師神積太郎) 씨에게 위임하고 출발하게 되었다. 귀국한 후, 1924년 3월 10일 관내의 유지들, 각 면의 면장들을 소학교 보습과의 회의실[廣間]에 불러 야쿠시진(藥師神) 씨가 미리 조정해 둔 안을 바탕으로 김제신사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협의를 거쳤다. 그 자리에서 내가 창립자 총대로 추대되었으며, 나를 포함한 총 48명의 이름으로 신사 창립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총독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신사 관련 진정을 위해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씨와 함께 총독부에 출두하여 진정을 진행하였다. 당시 내무국 지방과 사사계 주임이었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씨의 의견에 따라, 신사의 건축양식을 신메이즈쿠리(神明造)⁶³⁾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설계는 조선신궁의 축탁 기수였던 하세가와 쓰네타로(長谷川常太郎) 씨에게 의뢰하였다. 하세가와 씨의 설계서에 기초하여 처음 4,550원이었던 예산을 10,275원으로 정정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1924년 9월 3일 자로 정식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기부금을 모집하여 경내 정지, 건축 공사, 상량식, 준공식, 영대 배청, 진좌제 집행, 신직 초빙, 배전 및 사무소 건축 등 일련의 시설들을 갖추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각 위원과 총대 및 관계자들이 보여준 수고는 실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63) 신사 건축 양식의 하나로, 이세신궁 正殿의 형식이다.

사업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나의 양팔이 되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인물들을 들자면 김기홍 군수, 도고 경찰서장, 야쿠시진(藥師神) 군서무주임, 돈구(頓宮) 고등경찰계, 그리고 학교조합 출납역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씨가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에하라 요시오(榎原義夫), 나카즈카사 기요시(中務潔), 쿠보 슈이치(久保秀一), 이나하라 다카지로(稻原多賀次郎),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쿠니다 도쿠타로(國田徳太郎), 오카모토 켄지(岡本健治), 마쓰모토 신타로(松本新太郎), 야기 시게지로(八木茂次郎), 가와사키 도메지로(川崎留次郎), 다테이시 후쿠조(立石福藏),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쓰네마쓰 간이치(常松寛一), 키타오 다카노부(北尾孝信), 이케 마사미(池眞澄), 이노우에 요시로(井上與四郎), 후루카와 도미조(古川富藏), 가시와다 케이지(柏田慶治), 김봉선(金鳳璿), 백창흠(白昌欽), 조중혁(趙仲赫)

마지막으로,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 시종일관 고문이 되어주고 또한 위원으로로서 마음껏 도와준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씨의 깊은 호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그런데 신전을 준공하고 영대를 봉안한 이상, 사사규칙(社寺規則)에 따라 반드시 신직을 초빙해야 했다. 이에 관해서도 나는 적지 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신사 창립을 처음 발의할 당시, 신직을 상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신직 상치(常置)의 필요성을 듣고 나서 총대들 중 일부는 불만을 품었던 것 같다. 두 세 명의 총대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학교 교원 가운데 누군가가 겸직

으로 맡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강했다. 이는 창립 비용을 큰 액수로 지출한 직후이고, 기부금조차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무리가 아닌 주장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다카하시 씨가 원래 신관(神官) 출신이라는 점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의 본업 틈틈이 아침저녁으로 봉사를 해줄 수 있는지를 상의했지만, 그는 이를 정중히 고사하며 전임 신직 배치를 지지했다. 이에 다음 총대 회합에서 나는 총대들에게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이 정도 규모의 신사를 건립해 놓고 겸임 신직을 두는 것은 김제의 수치입니다.” 이러한 설득으로 점차 양해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신직 후보자로 2명 정도의 추천을 받았고, 나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군산신사의 사장(社掌) 스기노 세이조(杉野清造) 씨에게 상의하였다. 스기노 씨는 군산신사의 말사(末社)인 금도비라사(金刀比羅社)의 오다케 켄조(大竹鋤三) 씨를 추천하였다. 나 역시 책임자라 판단하였기에, 1926년 7월 6일 총대회의 정식 승인을 얻어 오타케 씨를 신직으로 초빙하였다. 그에 앞서 6월 28일 진좌제를 거행한 이후 부정이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학교조합의 출납역과 각 우지코(氏子, 신사에 소속된 신도) 총대(總代)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며 신사를 관리했지만, 오타케(大竹) 신직이 착임한 이후로는 점차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뒤로 신사의 유지와 관련된 모든 사무는 학교조합에서 맡아왔으며, 유지 전망도 안정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 회계와 사무 일체를 오타케 신직에게 공식적으로 인계하게 되었다.

동진강 가교 문제에 대하여

1923년 도평의회에서는 김제와 동진강 사이의 3등 도로를 2등 도로로 승격시키자는 건의안과 동진강 가교 건설안이 강동희 군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도 지방비 예산에는 동진강 가교 건설비 8만 원이 계상되었고, 연고지에서는 총 3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기부금 분담은 김제가 2만 원, 부안이 1만 원의 비율이었다. 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 착수하였으나, 불행히 큰 한발이 들어, 한해(旱害) 구제비로 막대한 지방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교 공사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수해와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교 건설은 당분간 실현될 가망이 없게 되었다. 이미 기부금을 납부한 이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931년, 궁민 구제사업 자금의 도채(道債)가 인정되면서, 본도에서는 도채 자금 중에 만경강과 동진강 양쪽의 가교비도 포함하여 총독부에 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동진강 가교 건설비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삭제되고 말았고, 만경강 가교만이 3개년 계속 공사로 인가되어 우선 완공을 기다린 후 차기 예산에 동진강 가교도 계상할 수 있도록 요청해 두었다. 그 후 도 당국에서는 1933년도 구제사업 계획에 따라 총독부에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1년 한정 사업 외에는 계속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기각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몇 차례나 계획이 무산된 현실을 돌아보면, 동진강 가교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민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제의 나쁜 길 개선에 대하여

김제의 나쁜 길은 악명이 자자했다. 여름철 기차 안에서 고무장화에 구멍이 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김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만큼 김제의 도로 사정은 심각했다. 김제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향해도,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진흙탕에 차축이 빠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승객들이 자동차를 밀기 위해 내려서 뒤를 떠민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역전통에서는 진흙에 빠져 신발을 잃어버리는 통행인도 많았다. 나는 김제의 나쁜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평의회에서 6년 동안 줄곧 외쳤고, 평상시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당국을 꾸준히 채근해 왔다. 그러던 끝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완



김제역 침수 상황 (출처: 『朝鮮風水害誌』, 1931)

고하기로 유명했던 와타나베(渡邊) 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마침내 부역(夫役, 인력 동원)을 과하겠다고 결정이 내려지고, 공사에 쓸 원석이 지급되었으며, 현장 인부들은 그 돌을 부수며 “이게 바로 지사의 머리”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게나 완강하던 지사의 마음이 한 번 움직였으니, 김제에만 그칠 리가 없었다. 이후 일반 시골 도로에도 자갈이 깔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김제를 중심으로 이리, 만경, 군산, 부안, 원평, 금구, 전주 등으로 탄탄한 도로가 연결되어 정기자동차가 달리는 시대가 되었다.

동진강 수리의 죽산 갑문(閘門)에 대하여

나는 동진강 수리조합의 상설위원이며 창립 초기부터 관련되어 있었기에, 조합 성립 경과나 그 공적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사람이 있으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따로 논하지 않겠다. 다만 수리조합의 주요 구조물인 죽산 갑문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이 갑문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산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동진강유역, 그중에서도 죽산 천 양안의 토지는 심각한 한발(가뭄) 피해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다. 3년에 한 번 수확이 있으면 다행이라 할 정도였던 것이다. 나는 이 가뭄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목적에서 1917년 죽산보 갑문 설치를 구상하고, 지역의 주요 지주들에게 이를 상의했으나, 당시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협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1919년 대가뭄이 들자,



1927년 동진농업주식회사 방조제 최종 마감 작업 (출처: 김제시청 제공)

조선과 일본의 각 지주들이 나서 이 계획에 적극 찬성하게 되었고, 죽산보계를 조직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얻고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설계는 다음과 같았다. 죽산천에 보를 설치하고, 갑문을 두어 저수함으로써 양안의 토지를 관개하고, 홍수기에는 갑문을 열어 배수하며, 대조기(만조시)에는 방조제 역할을 겸하게 하는 구조다. 6척 5연과 5척 2연, 합계 7연으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제로 설계되었고, 1920년 5월 12일 착공하여 1922년 3월 25일 준공되었다. 이 공사가 완공된 이후, 몽리지역의 토지는 가뭄 피해에서 벗어나 매년 안정적인 수확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24년 동진수리조합이 설립되자, 죽산보계에 속한 몽리지역도 이 조합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었다. 당시 조건으로, 수리세를 1등 감면해 주는 대신 갑문과 소유지, 그리고 보계(淤契)의 채무 1만 4천 원을 모두 수리조합에 인계

하였다. 이후 수리조합은 갑문 8연(連)을 증축하여 배수 기능을 완전히 개선함으로써, 죽산보계는 그 역할을 다하고 해산되었다. 오늘날 죽산에 우뚝 서 있는 죽산보계해산기념비는 그 역사를 기리는 것이다.

해산 당시의 임원명

계장(契長) 하시모토 히로시

이사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평의원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우콘(右近)상사주식회사, 다키 구메지로(多木 桑次郎), 가네코 케이스케(金子圭介), 주식회사 아베이치(阿部市)상점, 미스토미 안자에몬(榎富安左エ門), 기무라 도지로(木村東次郎), 후지(不二)전북농장, 조기훈(趙紀勳)

竹山淤記念碑 이진호 각하 篆

竹山之野，土廣而肥，寔碧城之寶藏也。而自碧骨堤之煙廢，無源川之可以灌溉。且見洪水之汎濫，無排除之路，故不患於旱，則患於水，例三年而僅得一穫，民由是病。橋本央氏來住，茲土以增殖產業爲已務，惜其土腴而無穫，擬設閘門以備其灌排。乃立案而謀子衆，以事鉛力綿，時機尙早，多有立異者，有意而未就，猶尙眷眷，不能忘也。至大正八年甲子，適值大旱，遂至無秋。棄此機，得內鮮諸地主之協贊，始得計劃之實現也。迺斷竹山山麓巖盤，設六尺五聯，五尺二聯之閘門，導引竹山川本流而停溜，以便灌溉，且掘鑿排水路以除汎濫。歷年而工告竣，總工費七萬有餘圓之金，得一千五百餘町之蒙利。遂使白壤化爲潤土，滄海變成良畝，取穫隨年隨增，農民無望覓之苦，而有擊壤之樂也。至大正十四年，東津水利組合之成立也。以本淤之蒙利地域編入於該組合，舉工作物及所有地等一切財產而並屬焉。於是，自組合增設八尺八聯之大硯，益圖其灌排之完全也。茲當淤契之解散，略述其沿革，立石而銘之，以圖其記念也。

전라북도축탁 진사 정석모(鄭碩謨) 撰並書

죽산 들판은 땅이 넓고 비옥하여 실로 벽성의 보물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벽골제의 무너진 흔적만 남아 물길이 없어 논밭에 물을 댈 수 없고, 또 큰물(홍수)이 자주 범람해도 이를 막을 길이 없으니, 가뭄을 걱정하지 않으면 홍수를 걱정해야 했다. 이렇게 3년에 겨우 한 번 수확할 정도이니 백성들의 고통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씨가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토지를 늘려 생산을 키우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 비옥한 이 땅이 수확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여, 수문[閘門]을 설치해 관개(灌溉)와 배수(排水)를 도모하려 하였다. 그래서 안건을 세우고 사람들과 의논하여 힘을 모았으나, 당시로서는 시기가 아직 일렀고 이견(異見)을 제기하는 자도 많아, 뜻은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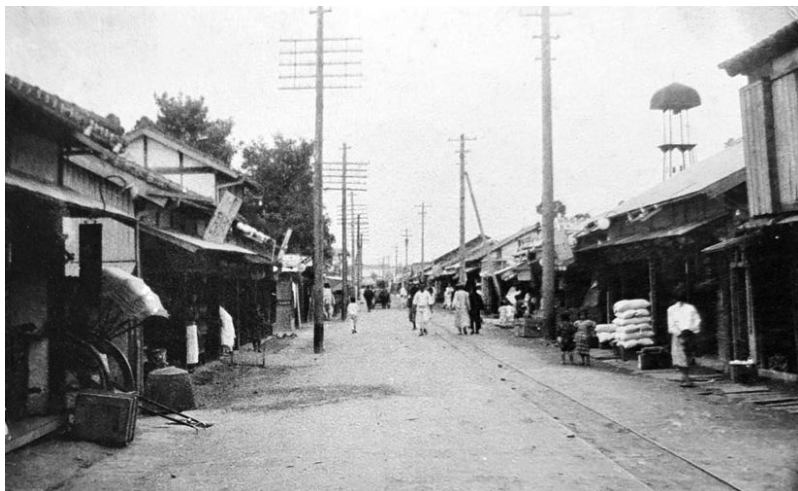
그러다가 1919년에 때마침 큰 가뭄이 들자 가을 농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때의 기회를 살려 일본과 조선의 지주들이 협력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죽산 산기슭의 바위층을 끊고, 6척 5연(聯), 5척 2연의 수문을 설치하여 죽산천의 본류를 끌어들여 물을 머물게 해 관개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또 배수로로 파내어 범람을 제거하였다. 여러 해에 걸쳐 공사를 마쳤고, 총공사비는 7만 원 이상 들었으며, 1500여 정(町)의 토지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흰 메마른 땅(白壤)은 윤택한 흙이 되었고, 푸른 바다는 좋은 논밭으로 변모하였으며, 해마다 수확은 늘어나 농민들은 비를 바라며 애태우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땅을 두드리며 즐기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1925년 동진수리조합이 성립되자, 이 보로 인한 이익 지역도 해당 조합에 편입되었고, 이로써 공사 시설과 토지 등 모든 재산도 함께 귀속되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8척 8연의 대형 수문을 추가 설치하여 관개와 배수의 완전함을 더욱 도모하였다. 이제 이 보의 계약이 해산됨에 따라 그 연혁을 간략히 적고, 비를 세워 이를 기념하고자 한다.

시구(市區) 개정 계획에 대하여

김제 읍내의 시구 개정 요구는 1923-24년경부터 읍내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읍내의 일본인 가구 수는 역전 일대를 포함하여 245호 정도였으나, 면협의회 중에는 일본인이 한 명도 없었고, 면장도 조선인이었다. 면장은 실질적으로 징세기



김제 읍내 본정통(本町通) (출처: 김제시청 제공)

관 역할에 머무르고 있었고, 지방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여유도 없었다. 실질적으로 발전책을 마련하는 역할은 학교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나는 학교조합 관리자로서, 1925년 김상호 군수와 협의하여 먼저 부분적으로나마 읍내의 시구개정안을 군청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① 만경도로에서 갈라져 시장 안을 지나 본정통과 평행하게 본원사 앞과 소학교 앞을 지나 보통학교 앞까지 이르는 노선
- ② 본정 도로와 직각을 이루며 꽃집 동측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
- ③ 소학교 문 앞에서 본정통으로 나가는 도로의 폭 확장
- ④ 아베농장 동측 도로의 폭 확장
- ⑤ 보통학교 앞에서 간선도로와 고야산 부근을 연결하는 노선
- ⑥ 위 ②번 노선에 따른 배수구의 정비 등

같은 해 6월 5일, 나는 읍내 유지들과 군수 김상호(金相鎬) 씨, 경찰서장 소노다 다메유키(園田爲幸) 씨, 김제면장 조중혁(趙仲赫) 씨 등을 학교조합 사무소로 초청하여 위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이 모아졌고, 필요한 부분부터 차례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시구 개정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나는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궤지(潰地) 및 장애물 건물 철거 등의 교섭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극장 앞 구간의 도로만을 간신히 완공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군수가 교섭을 직접 인수하였으나, 곧 고창군으로 전

임되었고, 후임 군수 김기홍(金基弘) 씨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또 전임되었다. 그 뒤를 이은 군수 이기방(李基枋) 씨가 역시 교섭에 나섰으나 결국 난항을 겪은 끝에 전임하였고, 후임 군수 이소중(李韶鐘) 씨도 교섭을 시도했으나 역시 성과 없이 전임하였다.

이렇게 6년이 경과한 후인 1931년, 나는 배석린(裴錫麟) 군수와 협의하여 시구 개정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지를 전부 무상으로 기부받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부분 보상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더 나아가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도청 토목과에 의뢰하였다. 읍내와 김제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가지 도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계획은 폐기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김제는 동진수리조합 설립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김제역 철도대합소 및 마스다(増田輝太郎)상점 (출처: 김제시청 제공)

되었다. 김제역에서 출하되는 쌀은 연간 50만 가마를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의 출하량을 기록하게 되었고, 김제는 전라선 제일의 쌀 적출역(積出驛)으로 부상하였다. 인구는 1만 5천여 명에 달하고, 군청, 경찰서, 법원 출장소, 소학교, 보통학교, 향교, 병원, 은행, 금융조합, 농업창고, 대소농장, 양조장, 정미공장, 신사, 사원 등 각종 기관과 시설이 빠짐없이 갖추어졌다. 그런데도 김제역과 읍내를 잇는 교통은 단한줄기의 도로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쌀 출하 시기에는 마차와 차량이 엉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시가지 도로 정비 역시 시급하였고, 특히 하수 및 배수시설의 불비는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시구 개정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선무가 되었다.

다행히 내가 김제읍장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1933년도 주요 사업으로 시구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체 공사비는 13만 원으로 추산하였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고 보조, 3분의 1은 지방비 보조, 나머지 3분의 1은 읍채로 충당한다는 계획 아래 국고 보조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지방비 보조만으로 서서히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1933년도에는 용동선(龍洞線) 657미터 구간을 지방비와 읍비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가를 받아 본년도 6월에 완공되었다. 이어 1934년도에는 읍내의 두 개 노선, 즉 ① 아베농장 옆에서 구 우시장에 이르는 흥덕선(興德線) 일부 233미터와, ② 이리 도로에서 갈라져 시장을 관통하고 소학교 앞을 지나 수리조합 아래로 이어지는 이리선 일부 434미터 구간에 대해 총 공사비 10,500원을 들여 전주시에 지방비 보조 사업으로

시공 신청하였고, 다행히 인가를 받아 1934년 5월 준공할 수 있었다. 이 마지막 두 노선은 만약 음비로 시행했다면 수년 후에나 가능했을 사업인데, 니시오카(西岡) 토목과장의 과감한 결단 덕분에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제읍으로서는 큰 행운이었다.

이 세 노선의 도로 부지, 약 1만 4천 평방미터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수많은 고심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관민 유지들의 협조와 원조를 얻어 단기간에 이 모든 사업을 완공할 수 있었다. 처음 6년 동안의 지지부진했던 사정을 되돌아보면, 이 성과는 그야말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김제는 상수도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음용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수질도 좋지 않다. 현재 우물은 145개가 있으나, 이 중 실제로 음용에 적합한 것은 겨우 8개에 불과하다. 대체로 수량이 적고, 도로에 살수조차 어려운 상태이며, 위생 시설도 미비하여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간주되어, 총독부에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조사 연구 및 보링(boring, 천공) 시험 결과, 김제역 앞과 원평천 하류의 두 곳에서 지하수가 발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20년도에 착공을 목적으로 총공사비 12만 원을 산정하여 국고 보조를 신청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1년도에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수도 계획으로, 지금도 떠올릴 만한 일이다. 내가 김제로 이주한 계기도 사실상 군산의 상수도 사정에 목이 말라서였다. 스스로 수도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정작 그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군산에서 죽산으로 이주하게 된 사정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세간에 흔히 알려진 이야기지만, 관청 청사가 새로 건립되고 준공될 즈음이면 관련 책임자들은 대부분 전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내 경우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만약 김제에 상수도가 완공되고도 내가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이는 십만억토(十萬億土)⁶⁴⁾의 사바세계에서 아미타여래의 극락정토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불국토를 지나 서방정토(西方淨土)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니, 내가 처음에 본 당시의 김제는 매우 낙후된 곳이었다. 군산에서 김제로 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죽산이나 남포에서 하역하여 그것을 사람의 어깨나 말 등에 실어 날라야 했다. 반대로 김제에서 생산된 물자를 반출할 때에도 역시 죽산이나 남포 등으로 운반하여 배에 실어 군산으로 보냈다. 군산 상인이 엽전을 배에 싣고 죽산, 남포, 화호 등지에 와서 조선인의 집을 빌려, 죽간을 세워 매입처의 간판처럼 걸어두면, 거기서 벼를 사들였다. 하루에 두 번 있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벼를 쌓은 배(보통 한 척에 약 200석 적재)를 군산으로 보냈다. 김제의 농민들도 이 상인에게 벼를 팔기 위해 어깨에 짊어지고 죽산, 남포, 포교 등지까지 나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유통량은 극히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 김제역

64) 원문에는 ‘十萬億度’로 되어 있으나 ‘十萬億土’가 맞다.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와 극락세계의 중간에 있는 불국토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을 통해 반출되는 쌀의 연간 물량이 50만 가마를 넘었다는 사실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제도 이제는 개방되고 발전한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나를 도와준 보좌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학교조합 출납역으로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씨가 있었다. 그러나 병환으로 인해 1922년 12월 사직하고, 그 후임으로 하시모토 가쓰오(橋本勝雄) 씨가 재임하였으나, 다른 사업이 있어 1923년 4월 사직하였다. 그 뒤를 이어 조합 서기였던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씨가 승진하여 오늘날까지 근속 중이다. 그는 학교조합 출납 업무뿐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교육회 및 부형회의 출납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 또한 1924년 김제신사 창립 발기 당시부터 1926년 오타케(大竹) 신직에게 인계할 때까지 신사의 출납을 비롯한 기타 사무 전반을 맡아왔다. 읍장의 보좌역은 처음에 부읍장 조정희(趙鼎熙) 씨가 있었다. 그는 1931년 김제면장으로 취임하였고, 그해 김제가 읍으로 승격되면서 부읍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33년 12월, 가사 사정으로 사직하고, 그 후임으로 전라북도 경찰부 출신인 이정근(李正根) 씨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무계 주임으로는 전 김제면 서무 주임이던 기쿠타 도스케(菊田藤助) 씨가 있었으나, 역시 가사 사정으로 사직하고, 그 후임으로는 전 금산군 서무 주임이던 이마키 마사타로(今木雅太郎) 씨가 열심히 근무하였다. 그러나 그는 작년 12월에 가사 사정으로 사직하였고, 그 후임으로는 전 무주군 서무 주임인 사루와타리 마사히코(猿渡政彦) 씨가 맡아 성실히 일하고 있다. 나는 이처럼 함께 일해 준 분들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김제 발전책에 대한 사건

모토야 아이지로(本谷愛次郎)

도시라는 것은 저마다 고유한 발전 요소를 갖고 있으며, 그 요소는 각 도시마다 동일하지 않다. 중앙 혹은 지방에서 정치의 중심기관이 소재한 도시,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도시, 항만도시나 특정 공업지대에 위치한 도시 등은 각기 상이한 발전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김제는 앞서 언급한 도시들과 같은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행히 약 3만 정보에 달하는 농지와 1만 7천 정보에 이르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경작하고 활용하는 약 12만 명의 농민을 기반으로 도시 기능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김제에서 공급받으며, 동시에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역시 대부분 김제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김제는 김제군 전체 농업경제의 가공과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에서 보자면, 김제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 도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김제의 미래 발전을 논함에 있어 그 기반이 되는 농촌과 농업의 개선 및 발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투입되어 설립된 동진수리조합의 등장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농업 개량과 생산력 증대가 김제읍 발전을 촉진한 점만 보더라도, 그 파급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大)김제’ 건설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제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 동진강 본 지류의 개수(改修)
- 동진강의 가교
- 선암(仙岩)수리조합의 설립
- 김제역에서 감곡면으로 이어지는 철도 안쪽의 도로 신설
- 사금 채취지 복구 및 이용
- 농업 및 상업용 창고의 확충
-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상거래 개선과 충실화

김제의 발전책을 모색함에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도시로서의 내실 강화, 즉 도로 정비나 상하수도 설치, 그리고 교육·위생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하수구 시설은 공중위생상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김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중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읍 당국과 지방 당국이 서로 협력하여 그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김제 평야를 관통하는 동진강의 범람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어 약 5천여 정(町)의 논이 수해를 입고, 수확이 전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해마다 적어도 백만 원 이상에 달하며, 이는 곧 동진강의 개수가 동진평야의 농촌과 김제 도시 모두에 얼마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암수리조합 설립 문제는 현재 미곡 과잉 시대에 있어 실현이 다소 어렵긴 하나, 해안 지방의 가뭄 피해를 구제하는 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김제역전에서 하리면·오정리·양전리를 거쳐 감곡면으로 통하는 철도 내측 도로가 신설된다면, 동진강에 가교가 놓이는 것과 더불어 김제읍을 중심으로 한 방선형 도로망이 완성될 것이다. 이는 농촌 진흥과 김제읍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에 틀림없다. 더

불어 자금 채취로 인한 수입은 국가적 사업에 속하나, 해마다 채취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그로 인해 황폐화된 토지를 정리하는 일은 농촌 진흥상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한 황폐지를 활용하여 특용작물 재배지로 전환하거나, 특히 이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과제로는 농업 및 상업용 창고를 확충하고, 상거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마치 내지의 산업조합이 구매·판매를 일괄 담당하는 것처럼, 김제 도시가 농촌의 상거래 업무 전반을 대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농촌의 진흥과 농민의 행복뿐 아니라 김제 도시 자체의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제 도시와 농촌이 상호 긴밀히 작용하며 제후를 유지해 나간다면, 김제읍의 장래는 참으로 밝고 희망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제의 장래에 대한 소견

일 기자

20년 전과 현재의 일별(一瞥)

20년 전의 조선과 현재의 조선을 비교해 보면, 문화·교육·통신·교통·산업·경제 수준에 있어서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과 급속한 진보를 이루어낸 것이다. 예전에는 일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조선인이 매우 드물었으며, 생활 상태 또한 흠집에 머무르는 원시적인 수준으로, 마치 새벽에 외로이 떠 있는 별처럼 쓸쓸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본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양장을 입은 젊은이들은 일본인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며 걸어간다. 과거에는 1문(文) 돈을 허리에 두르고 다니며 여행을 떠났고, 양산 하나 그것도 1원 50전짜리 일용품 하나 사서 반나절을 느긋하게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5원짜리 모자를 단번에 사는 사람이 많다. 한때는 석유 한 통에 25전을 아끼기 위해 대구에서 부산까지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왕복하며 직접 짚어지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차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조선 반도 어디를 가더라도 대략 동일한 가격으로, 얇은 채 편히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개항장이 아니면 보기 어려웠던 우체국, 은행, 회사, 경찰, 학교 등이 이제는 벽

지의 작은 마을에까지 들어서 있으며, 원시시대를 연상케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선도 문명국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도시의 발전만 보더라도 20년 전만 해도 토담집 외에는 방이 나뉜 일본식 가옥 하나 보기 어려웠던 대구나 이리, 김제 같은 곳도 이제는 일본 내지의 도시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당당한 도시로 변모했고, 그 발전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조선의 미래가 매우 밝고 왕성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모든 변화가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실로 경탄할 만하다.

김제는 어떠한가

김제가 도시로서 이처럼 위대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이점과 천운을 얻은 데 더하여, 사람들의 단결된 힘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의적절하게 투자하며 능숙하게 이를 이끌어 대세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세계 제일의 부강함을 자랑하는 북미나,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이 반도의 다른 지역을 두고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 크다. 큰 도시는 큰 대로, 작은 도시는 작은 대로 하늘의 때, 땅의 이로움, 사람의 화합이라는 도시 발전의 본질적인 요소는 공통된다는 점에서 근본은 다르지 않다. 이리와 김제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두 지역 모두 해안과 가까

은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건강한 기후를 가지고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남부지방에 속해 있다. 즉 대도시가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이 결여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하늘의 때’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산미증산계획이나 수리 사업 등, 김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여러 정책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다.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 뒤의 장래를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흐름에 맞추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큰 계획을 실현할 만한 배짱과 수완을 가진, 도량 넓고 진보적인 인재가 필요한 것은 절실하다.

독자여, 20년 뒤의 조선과 20년 뒤의 김제를 상상해 보라. 김제의 현재 모습에 대해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 본서가 이미 그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조망해 보면, 지금의 김제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사업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단지 하늘과 땅이 준 조건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라난, 다소 어슬픈 ‘미완의 작은 읍’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김제가 발전하는 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일 것이다. 지방 곳곳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정과 침체의 암운이 김제에도 깔려 있을 수 있다. 이 난관을 뚫고 어둠을 일소하여, 하늘이 내린 혜택을 진정한 대도시 건설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자각이 절실하다.

한 번 시험 삼아 생각해 보자. 유능한 인재들이 결속하고 분기해 이룬 결과가 전혀 예상 밖의 발전상을 가져왔던 북미 대도시의 사례가 바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는 그

래서 세계 제1의 도시 발전 사례로 북미를 예로 든 것이다. 오늘날의 김제는 특별한 식견이나 노력 없이도 비교적 다른 지역 보다 나은 환경 속에 발전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자연이 준 은혜 덕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김제는 다르다.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비전을 지닌 지도자, 문화를 창출하고 산업을 기획할 인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시민적 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자연적인 발달에만 맡겨서는 결코 대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 책 역시 단지 김제의 현재 모습을 두루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제의 전모를 하나의 책에 담아 그 축소판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로써 시민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널리 외부의 주의를 환기시켜 장차 ‘대(大)김제’의 출현을 기대하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현 김제읍장 하시모토 히로시 씨는 1921년 김제학교조합 관리자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16년간, 관리자로서, 그리고 읍장으로서 자신의 사재를 아낌없이 들이며 김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공로자이다. 우리는 김제 시민과 함께 그의 공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지의 자본가는 조선에 투자하라

일 기자

조선의 산업계는 일본 내지에 비해 마치 반제품 상태에 놓여 있다. 병합 이래로 정부 당국은 예의 성실함으로 이를 진흥시키려 힘써왔으며, 시세와 민도에 맞추어 여러 시설들을 추진하였다. 이는 한국시대와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아직은 겨우 발전의 서광을 보기 시작한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앞날은 진운(進運) 양양, 마치 봄바다처럼 넓고 밝다.

예를 들어 「농업」만 보더라도 일본 내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천지 차이를 볼 수 있다. 답(畓, 논) 1반보(反步)⁶⁵⁾의 가격은 내지에서는 700-800원이지만, 조선은 100원도 넘지 않는다.

화전(畑)은 내지에서는 200-300원이지만, 조선은 20-30원 정도이다.

산림은 상등이 15원, 중등 10원, 하등 5원, 최저 2원 정도이다.

조선의 온도는 내지의 같은 위도 지방에 비해 약간 기온은 낮지만, 여름철은 비교적 기온이 높기 때문에 벼 생육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준다.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적지만 6-8월은 장마철로 한 달에 20일 이상 비가 오는 일도 드물지 않아, 관개시설이 부족한 농민에게 유리하다.

태풍의 피해도 내지에 비해 훨씬 적다. 또한 210일·220일과 같은 농업상의 최대 위험 기간도 없다.

65) 약 300평 정도의 넓이

관개(灌溉) 개선, 종자 갱신, 비료 증가, 수확 증대 등에서 개량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반면 내지는 이미 포화 상태로 더 이상 나아갈 여지가 없다.

공사비의 보조는 토지개량사업 보조규칙이란 것이 공포되어 있으며, 관개 개선은 50%, 지형 변경에 25%, 미간지의 개간이나 간척지 개척 등은 50%까지 공사비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상은 단지 현저한 사실만을 열거한 것이지만, 이 외에도 비교해보면 적지 않은 편의와 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간척지나 광대한 황무지로, 그 개답(開畓, 논으로 만듦)이나 간척 등에 있어서 거액을 쓰는 것은 조선 각지에 잔존 유산처럼 남아 있다. 수리사업도 아직 논 총면적 중 3분의 2는 향후의 시설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러므로 만약 어느 정도 안정된 투자의 각오만 있으면 바로 300-500정보 1,000-2,000 정보의 대답(大畓, 넓은 논)을 획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사업계획에 즈음해 정부 당국에서는 이미 개략적인 조사를 마치고, 사업가를 위해 그 조사 결과를 아낌없이 공표하여 마음껏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가능한 호의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 수행 후에는 틀림없이 소정의 사업보조금이 지급되며, 동양척식주식회사나 토지개량회사⁶⁶⁾는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그 사업 전반을 대행하고, 식산은행 및 동척 금융부는 사업비의 융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세상에 이 정도로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은 다른 데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66)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토지의 수리·개간·관개시설 정비 등을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 실제로는 식민지 지배체제 하의 토지 수탈과 농지 구조 재편의 핵심 기관 중 하나였다.

또한 「식림사업」에 관해서 보면, 조선의 임야 면적은 1,588만 정보로서, 육지 전체 면적의 71%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중에서 성림지(成林地)라 불리는, 드문드문 숲이 있는 산림을 포함하더라도 겨우 3분의 1인 548만 정보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가운데 368만 정보는 압록강과 두만강 양 유역 및 척량산맥에 편재한 국유림으로,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하여 아직 이용되지 않은 임야이다. 또한 나머지 1,040만 정보 중 약 3분의 2, 즉 728만 정보는 나무 심기[種樹]가 발생한 곳이지는 하나 지방의 쇠퇴와 감소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나머지 312만 정보는 아예 생산에 관여할 수 없는 미립목지(未立木地)나 황폐지이다. 즉, 현재 실질적으로 산림으로서 기능하는 곳은 전체 임야 면적의 겨우 12%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88%는 이름 뿐인 임야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기후, 풍토, 지질이 나무가 자라기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조림용(造林用) 수종(樹種)으로는 교목(喬木)에 속하는 것만 해도 침엽수 19종, 활엽수 130종에 달하며, 한대에서 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종의 생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수종이든 대체로 생장력이 뛰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2천만 민중의 땀과 수고가 매우 왕성하고, 여기에 한국 시대의 난정(亂政) 이후 산림의 황폐가 극에 달하여, 해마다 수해의 피해를 빈번하게 입고 있다. 국토 보안상 이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하루빨리 산림 정책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삼림령⁶⁷⁾을 발포하고, 남은 조림지(造林地)의 보호, 애림 사상의 함양, 식림의 장려, 사방공사의 시행 등에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

67) 1911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법령으로, 조선의 산림을 국유화하고 조선인 농민의 이용권을 박탈하여 일본의 벌목·임업 이익을 보장한 산림 수탈의 법적 기반이었다.

으며, 국비 및 지방비로 각지에 조림의 모범지를 설치하고 묘포(苗圃, 묘목장)를 두어 해마다 수억 본의 수묘(樹苗)를 무상 또는 저가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국유임야 중 필요 없는 부분은 민간에게 대부하여 조림을 실시하게 하고, 조림이 성공하면 무상으로 이것을 불하하는 등 조림 사업을 크게 장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약 이 사업에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뜻이 깊은 사람이 있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식림 사업에 착수하여, 십수 년 후에는 누구나 조선 내 곳곳에서 데와(出羽)⁶⁸⁾의 대지주 혼마(本間) 가문⁶⁹⁾이나 야마토(大和)의 도쿠라(土倉)⁷⁰⁾처럼 되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인부의 임금이 저렴하여 조림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생산된 목재는 내수 수요가 많을 경우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며, 특히 대소비국인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의외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13도 각지에는 현재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임야도 적지 않으므로, 지금은 실로 조림 사업에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이며, 매우 유망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타 「광산 사업」에 있어 석탄 광업은 아직 거의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온 땅과 산이 모두 석탄층이라 할 수 있는 함북의 석탄 등은 교통·운송 문제로 인해 겨우 일부분만 채굴되고 있을 뿐이다. 이 밖에도 평남·평북 지역의 무연탄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는 각종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대부분 미개발 자원으로 남아 있다.

68) 지금의 아키타(秋田)현과 야마가타(山形)현의 두 지방.

69) 에도시대 일본 최대 지주 가문 중 하나

70) 메이지시대 대표적 임업가 도쿠라 쇼자부로(土倉庄三郎, 1840-1917)

또한 「양잠업」은 기후 조건상 일본 내지의 나가노(長野), 시즈오카(靜岡), 기후(岐阜) 등의 여러 현과 매우 유사하며, 특히 공기가 건조한 점에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로 인해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제사업을 비롯한 각종 「제조공업」, 「수산업」, 「상업」 등에서도, 일본 내지나 기타 선진지역과 비교하면 하나같이 아직 요람기에 있는 상태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선은 일본 내지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조선의 중앙은행도 일본은행에 비하면 항상 약간의 환차익을 얻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일반 유통 금리도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율(高率)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 즉 개인끼리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금리는 놀랄 만큼 고리(高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자율 제한령을 공포하거나, 식산은행이나, 척식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부상환 저리자금을 대출하게 하거나, 또는 전 조선 각지에 약 500여 개의 금융조합을 설립하여 중산계급 이상, 특히 지방 농민에게 소액의 생산자금을 융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조선 내 개인 대금업자의 총 대출고는 무려 4,850만 원에 달하며, 이는 보통 은행의 총 대출고 약 1억 원, 금융조합 전체의 대출금 약 8,500만 원과 비교해도 결코 소액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그 금리는 보통 월 2푼(2%)에서 5푼(5%) 내외이며, 그중에는 월 1할(1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경성, 부산, 대구, 평양 등 대도시에는 여러 은행과 금융조합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대소 금융업자, 전당포, 그리고 시치야(質屋)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존재한다. 각 지방의 소도시나 시장에는 금대업자 혹은 시변(市邊)이라 불리는 월 1할 2푼(12%) 이상의 고리대금을 취급하는 조직(組)조차 있다. 현재 조선에서 성공한 일본인의 절반은 대부분 이러한 대금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 정착한 일본인 중에서는 크든 작든 이 업을 겸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요컨대 조선은 기업 열기는 매우 왕성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며, 일반 경제계의 구조 자체가 높은 금리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에서의 사업 가운데 가장 유리하고 가장 확실하며 또한 가장 성공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금융사업이다.

경제에는 국경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조선은 일본 본토와 같으며 제국의 동일한 영역에 속해 있고, 가까이 일위대수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병합 후 벌써 20년에 달하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조선 진출 인구는 아직 55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투자의 내용도 매우 빈약하며, 특히 2-3 종류의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듯한 실정이다. 이처럼 무한한 자연의 자원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낭비하여, 지금은 그저 타인의 코고는 소리에 의지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는 내지 자본가로서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며 유감천만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 「원인」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조선의 실정이 일본 본토 내지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내지인의 일부는, 조선을 아직도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

1611)⁷¹⁾가 활약하던 시절처럼 호랑이와 표범이 뛰어다니는 미개한 땅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는 토지가 척박하여 산업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반만(半蠻)의 지역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불령한(不逞漢)이나 배일단이 각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위험지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대체로 조선은 내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호랑이와 표범은 창경원 동물원 우리 속에 있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 심산유곡에 가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다. 토지는 수천 년에 걸쳐 경작되어 왔고, 지난날의 가림주구로 생산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신정(新政) 이후 그 면모를 일신하여 지금은 수백만 석의 쌀을 내지로 수출하고, 이는 본국의 인구 식량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선의 대각(大角, 평남 개천시 대각리) 같은 곳은 동양 최대의 전기 산업 기지로 성장하여 산업적으로도 일대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치안 면에서도, 두 개 사단의 정예 병력이 주요 지점마다 배치되어 있으며, 232개의 경찰서와 2,500여 개의 주재소·파출소가 전국에 그물처럼 설치되어 있다. 헌병대 또한 별도로 존재하고, 국경에는 경찰관 출장소가 두어져 불령한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으나, 그야말로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 경계 상태라 할 수 있다. 생활상으로도 위험을 전혀 느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른바 ‘불령선인(不逞鮮人)⁷²⁾의 망동이나 광폭행위 등은 거의 완전히 근절된 상태이다. 또한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 제도도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이 내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71)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선봉에 서서 싸웠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도와 일본 전국의 통일에 기여하였다.

72) 일제강점기 일본 당국과 언론이 독립운동가나 저항적인 조선인을 비하하고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혐오 표현이다.

설치되어 있어, 내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교육기관으로는 정규 계통의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를 비롯하여, 부차적으로 상공업, 농림, 사범, 수산 등 각종 학교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 위생기관으로는 대도시나 중소 도시마다 관립 또는 사립의 의원이나 병원이 있으며, 산간벽지에서도 대개 공의(공중보건 의)나 사의(개인 개업의)를 볼 수 있다. 교통기관으로는 내륙에는 약 1,600리의 관사(官私) 철도와 약 3,000리에 이르는 신설 또는 개수된 1-3등 도로가 있으며, 1,200여 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경성, 부산, 평양의 세 도시에 전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연결로는 일본 내지 및 해외로 향하는 항로가, 연해 각지와 도서 지역으로는 보조항로나 정기항로가 통하고 있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조선 신궁을 비롯하여 신도·불교·야소교(기독교) 등의 종교가 자유롭게 신앙되고 포교되고 있다. 오락적 측면에서도 이른바 기관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문화적으로는 신문이 있고 잡지가 있으며, 여러 사교 단체도 있고, 어느 면에서든 일본 내지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진보와 향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본 내지처럼 완전한 참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이른바 저급한 정당 경쟁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조선은 아직 모든 것이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와 기세가 왕성하고 넘치는 기운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 내지의 지식인들 중에는 이러한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반쯤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사, 부호 계층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총독부 당국자는 원래부터 언론과 문장을 통해 이에 임하고 있으며, 조선 내의 인사들도 이

를 선전하고 해설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조선에 먼저 와 있던 내지인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원래 선주(先住)의 내지인은 어디까지나 성심성의로, 뒤늦게 조선에 진출한 동포 자본가들에게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선량한 보호자이자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종종 그와는 정반대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새로 온 자본가가 조선 내부 사정에 어두운 점을 틈타, 처음부터 자본가 본인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 혼자만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혹은 단지 주선료(알선 수수료)만을 노리고 브로커처럼 행동하는 자들도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자본가에게 큰 손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도리어 그 수완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조차 있다. 결국에는 새로 조선에 진출하려던 내지 자본가로 하여금 “국 끓이다 입을 땀까 봐 거품 보고 놀란다”는 격언처럼 한 번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조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민감한 자본가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게 되어, 결국 원하지 않게 조선의 사업에 손을 대기를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는 조선 개발에 있어 큰 장애로, 정부 당국과 조선에 뜻을 가진 사람들의 깊은 경계와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로 조선인에 대한 불필요한 거리낌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인은 이 신천지(조선)에서 선주민족이며,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행동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며 당연한 일이다. 조선인 또한 내지로부터 지식과 인재, 자본을 이입하여 교통이 촉진되고, 산업이 발달하며, 민도가 향상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 내심에서는 이로 인해 조만간 자신들의 영역이 잠식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분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종 새로운 일본인 이주자에게 원망을 터뜨리고, 혹은 그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태도로 나오는 일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이들 내지인 투자자는 조선인과의 교섭에 있어서 쓸데없는 양보를 하여,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잃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조심일 뿐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느 정도 조선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나아가 조선 개발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원래 한일병합 이후는 하나의 동일한 국가, 동일한 동포이며, 양자 간에 털끝만 한 의심이나 질투가 있을 이유가 없다. 신래자는 자신의 재능에 따라, 자기 능력에 맞게 마음껏 거리낌 없이 활약하더라도 전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치자 역시 이 점에 대한 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승열패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맡긴다는 각오로 백성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제반 원인들이 혼재하고 얹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지 자본가들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의미를 잃게 하여, 결국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본의 아니게 조선 투자를 주저하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선 산업은 크게 진전되어, 매년 수백만 석에 이르는 쌀을 내지로 보내고 있으며, 혹은 동양 제일로 불리는 수전(水電) 공사가 대체로 함경남도에 착수되었고, 또 이보다 더 대규모의 수전 공사가 미쓰비시에 의해 계획되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26

년도 이후 10년 내외에 다음과 같은 거액의 국비를 투자하려 하고 있다.

산미 증식 저자(低資) 3억 4천만원

철도계획 3억 2천만원

도로계획 2천만원

해관공사 1,065만원

사방(砂防)공사 760만원

기수(汽水)공사⁷³⁾ 4,510만원

철도복구 190만원

합계 7억 4천5백여만 원

이외에도 평안남도 무연탄 광산 경영자들에 의해 대연맹이 결성되고, 함경북도의 대규모 탄전 역시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조선의 경기는 해마다 회복되어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산업이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룬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지금은 내지의 부유한 자산가들이 조선에 투자하기에 전례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어진다.

73) 증기 펌프 설치 공사

내지의 청년은 조선에서 활로를 찾아라

일 기자

나는 모국에서 2남·3남 된 청년 여러분께 꼭 한마디 권하고 싶다. 부모가 남겨 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나누어 받아, 시골티 나는 신부를 맞아 분가하고, 두세 명의 아이를 키우며 곧 생활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결국 아무 뜻 없이 인생을 허비할 각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이 얼마나 후하고 큰지,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얼마나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 둘째,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주고자 한다.

첫째, 제군이 하늘에서 받은 은총과 그에 따른 책임

제군이 먼저 하늘에 감사해야 할 것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나 삼남으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만약 제군이 장남으로 태어났다면, 법과 사회의 관습에 얽매어 상속이라는 무겁고 성가신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또한 조상 제사를 모시는 의무를 지고, 장래에 가문의 중심이 될 준비를 강요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군은 이런 모든 속박에

서 벗어나, 한정된 가문의 울타리에 갇힐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인생의 큰길을 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간 세상의 경쟁 속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더구나 제군은, 동해를 마주하고 2,50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금구무결(金甌無缺)⁷⁴⁾의 역사를 지닌 대일본제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 2·3남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늘의 은혜가 큰데, 여기에 더해 일본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뜻이 더욱 깊다. 이러한 은총은 곧 제군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운다. 우리 제국은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짊어지고 정의와 인도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며, 특히 황색 인종의 대표이자 길잡이,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동양 민족을 위해서는 유일한 완전 독립제국으로서 동양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는 임무를 져야 한다. 결국 제국은 전 세계의 평화를 보전하고 인류의 행복을 인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거센 역사의 물결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운명이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명을 수행할 책임은 바로 제군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제군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라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나온 것이다.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이 사명의 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닌 천부적인 재능이 참으로 그러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300여 년간 이어져 온 섬나라 특유의 퇴영적·은둔적 풍조에서 벗어나, 일본 남자의 참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또 하늘이 부여한 중대한 사명을 어떤 영광

74) 외국의 침략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음의 비유

스러운 무대에서 실현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제국은 반드시 그 날개를 해외로 크게 펼쳐, 정의와 인도의 대기치를 전 세계 각지에 세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역사는 대체로 실패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메이지 유신 이전은 차치하더라도 1872년 이래로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들여 홋카이도(北海道) 척식사업을 추진했으나,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완성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선 병합 직후 설립된 동양척식회사는 매년 30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해마다 10만 명의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킬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웅대한 구상은 중도에 무산되어 공상에 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겨우 1,000호 정도의 이주에 그치고 있다. 만주와 몽골에 대해서도 매년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이민을 장려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는 여러 문제들이 누적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논의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매일 폭동과 선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교묘한 중국 관료들의 술책과 중재에 농락당해, 사업은 단번에 실패로 돌아갔으며 협상도 중단되었다. 지금은 그저 참고 견디며 시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처지다. 하와이와 미국에는 가장 많은 이주자가 건너갔으나, 1907년의 신사협정 체결 이후로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몇 해 전 시행된 이민법으로 일본인의 해외 이민은 사실상 전면 금지에 이르렀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이민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영보다 규제와 억제를 목적으로 한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전 이후 유럽의 이민자들은 점차 남미로 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의 이민 제한 정책이 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스페인·이탈리아·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은 자연스럽게 남미를 새로운 정착지로 삼게 되었다. 남미 역시 매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프리랜드(자유지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농업을 비롯한 각종 노동 이민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시점이 도래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정세가 이와 같으니,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인구 증가와 1방리 당 약 2,500명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가진 본국이, 장차 인구·식량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각계의 지식인을 폭넓게 모아 이민 문제를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민 배치와 인종 차별의 부당함과 불의를 전 세계에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무엇보다도 바로 여러분의 분발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세계 인구는 약 16억 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아시아는 지구 육지 면적의 31.5%를 차지하며, 수용 인구 8억 6천만 명으로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3억 9천만 명으로 전 인류의 약 24%를, 아프리카는 5,900만 명으로 약 4%를, 대양주는 3,800만 명으로 약 0.3%에 불과하다. 반면, 남북 아메리카는 육지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겨우 1억 4,4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9%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상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대륙은 남북 아메리카이며, 그 다음이 대양주, 그리고 아프리카 순이다. 유럽과 아시아는 매우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전 세계를 유럽과 아시아 수준의 인구 밀도로 수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32억 명 이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즉, 유럽 아시아가 인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인구 문제는 결코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더 나아가, 지구상의 소위 식민지들은 대부분 백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그들은 식민지를 백인만의 발전 영역으로 간주하여 다른 인종의 이주와 침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구의 육지가 인종과 민족 사이에 극도로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백인들은 인구 과잉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있는 반면, 백인 이외의 황인종과 갈색인종들이 과잉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종들이 주축인 국가들만이 인구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인이 아닌 전 세계 민족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인구 문제에 직면한 여러 국가들을 위해 반드시 결연히 나서야 한다. 대의를 내세워 악인의 욕망이 제멋대로 이루어지 못하게 막을 각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대한 장래 책임이며, 여러분의 책임은 지금도 결코 가볍지 않다.

둘째, 가장 유쾌하고 영광스러우며 행복한 길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대도(大道)’는 이미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결코 신비롭거나 기묘한 것이 아니다. 나는 마술사 쇼코크사이 덴이치(松旭 齊天一, 1853-1912)⁷⁵⁾를 예로 들고 싶다. 것처럼 여러분의 눈과 귀를 현혹하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⁷⁶⁾ 다만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쉽게 이해시키며,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뿐이다.

대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자신의 활동 무대를 조선에서 찾는 것이다. 조선은 바로 여러분의 무대다. 여러분이 한 걸음만 조선에 내딛고, 모든 역량을 조선의 사업에 쏟는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유쾌하며, 가장 행복한 대도인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우주에 하나뿐인 길이며, 둘도 없는 행로다. 바라건대, 내가 이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허락받길 바란다.

여러분이 소·중·대학 과정을 마치고 큰 뜻을 품어 학문을 이루거나, 혹은 국가 요직에서 활동하며 정치 논의를 주도하는 일은 분명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7천만 국민 중 극히 일부, 소위 정치가라고 불리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분야일 뿐이다. 또한 상업·공업·농업·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고향에서 자랑스러운 인물로 칭송받거나 여러 직위와 영예

75) ‘일본 근대 奇術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서양 기술을 미국인 奇術師 조네스에게 배워 1889년 메이지천황 앞에서 공연한 기술계의 제일인이자였다.(清水晴風, 『東京名物百人一首』「奇術師の松旭齊天一」, 1907년 8월)

76) 無中生有. 병법 삼십육계 중 적전계의 제7계를 말한다.

를 누리는 것도 인생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성취는 달팽이 뿔 위에서 벌이는 작은 싸움[蝸牛角上]에 불과하다. 여러분 외에 용기내어 내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장남에게 맡기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이 부여한 중대한 사명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의 경쟁장 속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자유로운 여러분의 활동 무대로서는 매우 부족한 환경이다. 정의와 인도의 깃발을 흔들며 전 세계의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활약할 여러분에게 이러한 환경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조선은 본래부터 보잘 것 없는 반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내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조선은 일본에게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며,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 ② 조선은 동양의 발간반도라 할 만하여, 항상 분란의 근원이 된다.
- ③ 동시에 동양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 ④ 조선에 대한 통치 여하는 야마토 민족의 식민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며, 그 성적은 백인 이외 전 세계 민족들의 장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 ⑤ 2천만 국민 중에는 독립이라는 악몽에 사로잡혀 합방의 대의를 근저부터 전복시키려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있어 준동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은 일본의 백년 안위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다.
- ⑥ 모든 산업과 교육, 그리고 기타 유형·무형의 사업이 아직 미완성 상태이므로, 어떤 사업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⑦ 제국의 인구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거점이자,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명백하며,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조선이라는 이 광대한 터전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어느 분야에서든 활약하는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제국의 미래에 지대한 공헌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제군이 조선에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싸우는 정의의 외침은 전 세계 비인도적 인종에 대한 응징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떨게 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불행히도 이러한 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마련한 화장실 밖에 갈 곳 없는 나약한 인물, 즉 극도의 겁쟁이로 인생을 마친다면, 이는 곧 하늘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를 망치는 자라 일컬어도 결코 지나친 비난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선에서 활약할 방도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늘 뜻에 따르는 일이다. 여러분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어떤 사업에 정진(精進)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 대사명에 순응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을 보호하며 성공으로 인도하는 데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의 노력은 점차 보답을 받고, 전 조선의 모든 미성숙한 부분과 미완성된 일들은 점차 완성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없이 유쾌하고 뜻깊은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명백한 도리를 모를 리 없으나, 아직 조선의 현실이나 세계의 대세가 철저히 이해되지 못해 안이하고 무관심한 태도

로 결핍된 시각을 지니거나, 와우각상(蝸牛角上)의 작은 싸움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많은 선배들이 이 땅에 와서 각 분야 사업에 종사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모두 크고 작게 우리나라의 미래와 동양의 영원한 평화에 공헌하는 자들이다. 제국의 신하로서 태어나 이곳에 와서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을 누리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쾌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이 되어 선배들 이상의 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김제 저명 인물 및 각종기관

김제군수 배석린(裵錫麟) 씨

현재 김제군수로 재임 중인 배석린 씨는 부임 이후 줄곧 지역 산업 개발에 힘써 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최근 김제군의 산업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추고도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자신의 주장을 과도하게 내세우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과감하면서도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훌륭한 군수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민들이 배석린 씨와 같은 인물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것은 지역의 명예이자 큰 행운이라 할 수 있다.

김제경찰서장 이리에 마키오(入江幹夫) 씨

김제경찰서장으로 김제군 내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리에 씨는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현재 관내 경찰서장들 가운데에서도 젊은 세대에 속한다. 그는 근엄하면서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며, 항상 풍기 정화와 각종 사건 해결에 주력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온정과 배려가 넘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읍장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씨

김제읍장 하시모토 히로시 씨는 김제를 키운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1916년 5월, 군산에서 김제로 이주한 뒤 농사를

경영하면서도 김제의 공익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 공적은 실로 크다. 현재 예순을 넘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원기 왕성하고 기개는 오히려 젊은이를 능가한다. 그는 사업을 아들인 타츠미(巽) 씨에게 맡기고 읍장으로서 김제의 발전을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

김제 세토 마사시로(瀬戸政四郎) 씨

세토 마사시로 씨는 비료·석유·잡화업을 운영하며 김제 사업계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김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순박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며, 오늘날 그가 이룬 성공은 전적으로 그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사업에 충실한 이같은 원로가 김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진 사업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사치하지 않고, 건실하게 사업의 전성기를 일군 그의 인생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부르기에 충분하다. 전북에는 히로시마현 출신의 성공한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이처럼 히로시마 사람들이 해외에서 발전하려는 용지를 품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토 씨와 같은 성공자는 고향 청년들의 열정을 북돋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땅은 모국의 연장선이 되었지만, 그가 처음 이곳에 밭은 디뎠을 당시에는 국가의 위상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업신여기거나 모욕적인 눈으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반도에서 성공을 꿈꾸는 일은 일종의 모험이자 도전이었다. 지금 그는 사업의 최전선에서 물러났으나, 자녀들이 협력하여 민첩하고 능숙한 운영으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제 이케 마스미(池眞澄) 씨

농업과 정미업은 조선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다. 김제 쌀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이케 마스미 씨는 오랫동안 김제 미곡상조합의 조합장을 지내며, 조합의 단합된 운영과 효율적인 통제를 이끌었다. 이는 그의 탁월한 수완 덕분임이 분명하다. 그는 신뢰를 중시하며 온정 어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성실하게 교류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진심으로 보답한다.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인품 덕에, 많은 이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다. 고베(神戸)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그는 은행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금융조합의 이사직을 맡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희망과 열정 덕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실업계에 뛰어들은 것은 1919년으로, 그때까지 쌓아온 세련되고 원숙한 수완과 풍부한 경험은 이후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정미소를 설립해 사업을 확장했고, 현재는 김제의 정미업계에서 현물 거래 분야의 최고 자리에 올랐다. 오늘날의 성공 뒤에는 부인의 헌신이 크게 자리한다. 현명하고 정숙한 부인은 스스로 가게의 전면에 직접 나서 체면을 개의치 않고 직원들을 지도했으며, 전표 정리에서부터 거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다. 1934년에는 이리에(入江) 지점을 설립하여 이케(池) 상점의 성과는 한층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이시카와현 농업주식회사 모토야 아이지로(本谷愛次郎) 씨

김제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농업주식회사에는 모토야 아이지로 씨가 있다. 그는 약 3천 명의 소작인들을 지도하고 계몽하며, 산미의 증

산에 힘쓰고 있다. 소작인들에게 비료 자금이나 경작용 소(耕牛)를 대여해 주고 있다. 또한 소작인의 부업을 장려하여 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적은 자연스레 향상되어 매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모토야 씨는 보기 드물게 온화한 인물이다.

아베이치(阿部市) 상점 김제농장 가와사키 도메지로(川崎留次郎) 씨

가와사키씨는 아베농장 설립 초기부터 활동해 온 인물로, 전임 주임인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농장을 이끌고 있다. 그는 소작인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며, 산미의 품종 개량과 증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김제소방조의 조두(組頭, 대장)로서 오랜 세월 동안 소방조를 위해 헌신해 왔다. 온화하고 보기 드문 인격자이며,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다.

마스토미(槇富) 농장 마스토미 타로(槇富太郎) 씨

마스토미 농장은 과거 이토 지배인이 경영을 맡아왔으나, 그의 사임 이후 현재는 마스토미 타로 씨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옛 농장주인 마스토미 안자에몬(槇富安左衛門) 씨의 뜻을 이어받아 소작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꾸준히 산미의 개량과 증산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마스토미 농장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모범적인 농촌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스토미 씨는 의지가 견고하고 두뇌가 치밀하며, 민첩한 실력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신사다.

미조테(溝手) 농장 나카츠카사 기요시(中務潔) 씨

김제 미조테 농장 주임인 나카츠카사 기요시 씨는 농장주인 미조테 야스타로(溝手保太郎) 씨와 같은 오카야마(岡山)현 출신이며, 신진기예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제, 정읍, 논산 등 여러 군에 분포된 경지를 관리하면서, 당국의 산미증식계획에 적극 부응하여 농업의 개량과 부업 장려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소작인들을 항상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다. 그는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능을 겸비한 인물로, 아직 젊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다.

동진수리조합이사 나가토미 야사쿠(長富彌作) 씨

동진수리조합 이사인 나가토미 야사쿠 씨는 전북에서 관방주사와 익산군수를 역임하며 널리 명성을 쌓아온 인물로, 매우 빈틈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때때로 사람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여, 이로 인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의 진정한 성격을 모르는 이들의 오해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는 깊은 신의를 지니고 온정이 넘치는 인물이다. 동진수리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는 이사로서 단호한 리더십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조합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강직한 면모 또한 그의 장점이다.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앞으로 더욱 자애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식산은행 김제지점장 이타바시 가츠미(板橋勝巳) 씨

이타바시 씨는 전임 지점장 이시야(石谷) 씨의 후임으로 1933년에

김제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역 사정을 꼼꼼히 파악하며 가능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는 근검을 좌우명으로 삼아 온화하고 성실하며, 근면과 정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스스로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부하 직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며 신뢰를 쌓아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부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마다 뛰어난 성과를 내며 우수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김제 다카하시 시게도시(高橋重勇) 씨

김제에서 원로이자 김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다카하시 시게도시 씨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김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의 노력은 매우 컸다. 다카하시 씨는 두뇌가 명석하며, 논리적 토론에 능숙하고, 열정적이며 강렬한 논쟁을 펼치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위 관료들과의 청원이나 협의 과정에서 종종 그를 번거롭게 하는 일도 있었으나, 그는 견실한 의지와 풍부한 식견, 깊은 사려를 두루 갖춘 인물이다.

김제 하토모토 우메타로(波戸元梅太郎) 씨

김제에서 미곡상을 운영하며 신뢰와 사업 능력도 겸비한 하토모토(波戸元) 씨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김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실업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온화하고 독실한 성품을 지녔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모난 데 없이 원만하며, 두뇌가 명석하고 수완이 뛰어나다. 또한

견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부귀에 아첨하거나 권세에 굴하지 않는 인물이다. 김제읍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오사카부 센난군(泉南郡) 출신이다.

김제 이치카와 다쓰지(市川辰次) 씨

이치카와 씨는 김제에서 미곡상과 비료상을 운영하며, 이시카와현 출신으로 성실한 발걸음을 이어온 끝에 현재 김제의 일류 실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진실되고 강건한 성품과 굳센 의지를 지닌 노력주의자로,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또한 두뇌가 명석하고 기민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며 자기 수양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진취적인 활동가다. 그의 행운과 더불어 건강과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김제 후루키 도쿠타로(古木徳太郎) 씨

후루키 씨는 1909년 김제를 영주지로 삼아 이주했고, 1914년에는 검산리에 약 5정보의 산림을 매입해 개척한 뒤 과수원 경영에 나섰다. 부근의 약 10정보 수전도 매입해 벼농사에도 손을 댔다. 과수원은 초기에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해충 피해로 대부분의 나무를 베어야 했고, 이후 뽕나무를 심어 양잠업을 시작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조선에 오게 된 경위는 고향인 효고(兵庫)현 경찰부에서 출향 명령을 받아 경성에 부임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관리 생활의 단조로움에 염증을 느끼고 경찰관직을 그만두었으며, 1909년 실업계로

전향해 김제로 오게 되었다. 현재 60세가 넘었지만 건강과 의욕이 왕성하여 매일 현장에 나가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다. 부인 춘자 여사는 현명하고 실무 능력이 뛰어나 모든 대외 업무와 가사, 교섭 등을 맡아 처리하며 큰 내조를 하고 있다.

김제 구로다 겐타로(黒田健太郎) 씨

구로다 재목점(材木店) 주인 구로다 겐타로 씨는 구마모토(熊本)현 구마군(球磨郡) 미즈가미무라(水上村) 출신으로, 1906년 조선에 건너와 인천에 거주했다. 남부지방 출장 중 김제를 방문하고 장래성이 밝다고 판단해, 1913년 김제로 이주해 영주지로 삼았다. 초기에는 토목·건축 청부업에 종사하다가 재목상을 운영했고, 이후 시멘트·판유리·서양 못 등 건축 자재 판매로 사업을 확장했다. 점포 확장과 일용금물부(日用金物部) 신설 등 꾸준한 노력으로 오늘날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의 재목 창고는 항상 물량이 가득 차 있어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했고, 현재 약 3천 평의 토지와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며 김제에서 성공한 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성품은 신망이 두텁고 정의로우며, 사악(邪惡)을 미워하고 의협심과 동정심이 깊어 김제 발전을 위한 공사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올해 5월 30일 화재로 주택과 점포 1채, 창고 3채, 상품 및 가재도구를 전부 잃었고, 몸만 간신히 피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복구에 힘써 불과 몇 달 만에 새 점포·주택·창고를 완비했으며, 현재도 신흥 발전을 향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김제 쿠라사와 가쓰마(倉澤勝馬) 씨

신흥 김제의 성장과 함께 명성을 널리 떨친 야마쿠간장[ヤマク醬油]⁷⁷⁾과 된장은 하루라도 빠질 수 없는 필수 식품으로, 각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양조를 책임지고 있는 쿠라사와 가쓰마 씨는 구마모토시 히루즈마치(晝圖町) 출신으로, 1914년 전북 지역을 시찰하던 중 김제를 처음 방문했다. 그는 김제가 잠재성 있는 지역이라 확신하고 돌아간 뒤, 곧바로 조선에 체재 건너와 김제에 정착했다. 거금을 투자해 간장과 된장 양조업을 시작하며, 회사 상호를 '구마모토옥(熊本屋)'으로, 상품명을 '야마쿠'로 정했다. 이후 21년 동안 재료를 엄선하고 품질 향상에 힘쓰며 양조업에 전념한 결과, 오늘날 야마쿠 간장은 지역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명성을 확보하며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다.

야마쿠 간장은 전북 전역은 물론, 충남·충북·경성 방면까지 판로를 넓혔다. 특히 김제군 내에서는 타사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성격은 온화하고 독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학교 조합원으로 두 차례 연임했고, 소방소 두장·신사 총대·정(町) 총대 등 다양한 공직을 맡아 큰 공적을 남겼다. 쿠라사와 씨의 헌신은 김제의 산업과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김제 오카모토 겐지(岡本健次) 씨

김제에서 미국정미업을 운영하는 오카모토 겐지 씨는 오랜 기간 김제에 정착하며 지역 쌀의 품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

77) 야마쿠는 1894년 쿠지메이세키치(久次米伊勢吉) 상점이 창립되어 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다. 그는 온화하고 독실한 성품의 소유자로, 과묵하지만 대화를 나눌 때는 사려 깊은 준비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준다. 청렴결백하며, 부정이나 불의와 관련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교류를 피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래성이 밝은 그는 앞으로도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발전시켜 큰 성취를 이루길 기대하게 한다.

김제 요시마루 요사쿠(吉丸與作) 씨

김제의 요시마루 요사쿠 씨는 과거 김제군 월촌면에 거주하다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김제읍으로 이주하였다. 이와 함께 장려한 주택을 신축해 새로운 생활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는 히라토미(平富)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온화한 성품과 더불어 정의를 중시하며, 어떠한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기개를 갖춘 인물이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활기찬 태도 덕분에 그는 김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신사로 자리매김하였다.

김제 고바사 도요헤이(小場佐豊平) 씨

전라북도 김제의 미곡업계에서 고바사 도요헤이 씨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그는 규모 있는 정미소를 운영하며, 종업원들을 독려해 정미 생산에 힘쓰고 있다. 확고한 결심과 부단한 노력 덕분에 생산 품질 개선과 제품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품은 소박하면서도 의지가 강한 노력파로, 말보다 실천을 중시한다. 현재 김제학교조합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학무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제 구라하라 이치지(倉原市次) 씨

오랜 기간 김제의 공직자로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온 구라하라 이치지 씨는 무사적 기개를 지닌 신사로 평가된다. 그는 가사에 신경 쓸 틈조차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명석한 두뇌와 논리적 사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논의를 주도한다. 견고한 의지와 깊은 식견, 사려 깊은 성품을 갖춘 그는 현재 김제학교조합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 하라다 요시쓰구(原田吉次) 씨

하라다 요시쓰구 씨는 후쿠오카(福岡)현 출신으로, 김제에서 가장 오랜 기간 미곡상을 운영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다. 그의 경영은 건실하고 안정적이며, 고객이 많아 상점은 늘 활기가 넘친다. 그는 활동적이면서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상점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정철할 만한 의견을 제시한다. 주흥을 즐기는 가벼운 성격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호방하고 정직한 인품을 지녔다. 그의 앞날에 행복과 자애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김제 야마다 가이치로(山田嘉一郎) 씨

야마다 가이치로 씨는 와카야마(和歌山)현 출신으로, 김제 미곡업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독립적으로 미곡 정미 사업을 운영하며, 김제에서 가장 번창하고 활발한 미곡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 그의 뛰어난 활동력과 끈기 있는 성품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룩한 원동력이다. 또한 과거 김제학교조합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공공의 이

익을 위해 헌신했으며, 김제의 발전과 쌀 품질 향상에 항상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 마쓰이 요조(松井與藏) 씨

마쓰이 요조 씨는 김제군청 내무주임으로 재직 중이며, 군산부청에서 김제로 전임해 왔다. 군수를 보좌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항상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차 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진가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

김제 시노기 히데오(篠木秀雄) 씨

김제군청의 서무주임 시노기 히데오 씨는 교만함 없이 온화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모난 데 없이 부지런하다. 그는 업무를 과감하게 처리하며, 항상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로 사무를 진행한다. 시노기 씨는 마츠이 내무주임과 긴밀히 협력하여 군수를 보좌하며 김제군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제 노자가 무네키치(野坂宗吉) 씨

노자가 무네키치 씨는 김제금융조합의 이사로서, 최근 조합이 이룬 비상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는 노자가 씨를 비롯한 전 직원의 부지런한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그는 조합원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조합 건물에 ‘가사 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어 조합원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조합원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온화하고 평민적인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김제 기노시타 다카모리(木下生盛) 씨

김제 기노시타 다카모리 씨는 동진수리조합에서 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시카와현 출신인 그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다”는 속담처럼 꼼꼼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로, 출납 업무에 적합하다. 또한 원만하고 모난 데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외교적 수완과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태도를 겸비한 부지런한 사람이다.

김제 우치야마 도요지(内山豊次) 씨

우치야마 도요지 씨는 김제역전에서 운송업을 운영하며, 군산일보를 비롯한 각종 신문 판매도 병행하는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다.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으로, 처음에는 김제 읍내에서 정미업에 종사했으나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고 현재의 운송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매년 우수한 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재 한창 일할 시기에 있으며, 그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김제 신메이 기요시(新明清) 씨

김제농업창고 주임인 신메이 기요시 씨는 미야자키(宮崎)현 출신으로, 견고한 의지와 온화하며 겸손한 태도로 내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농업창고 이용의 편리함과 유리함을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항상 창고를 가득 채우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김제농업창고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모든 사업은 성실함과 열정이 더해져 신뢰와 감동을 주며, 지역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제 월촌면 사토 테루(佐藤照) 씨

김제군 월촌면에 거주하는 사토 테루 씨는 미야기(宮城)현 출신으로, 김제에 정착한 후 농업 경영에 전념하며 농업 개량에 힘쓰고 있다. 그는 녹비(綠肥, 풋거름) 장려와 경운 기술 개선에 노력하는 등 산미 증식에 오로지 매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김제학교조합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학무 행정에도 참여하며,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온화한 인물이다.

김제 가메다 다다시(龜田正) 씨

김제공립기예여학교의 교장 가메다 다다시 씨는 도시학(道視學, 장학사)에서 여학교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그는 여자 교육에 가장 적합하고 체계적이며 일관된 방식을 실천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가메다 다다시 씨는 여학생들에게 "여자다운 특성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남편을 미소와 만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과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소학교장의 직무도 겸임하며 아동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가정과 긴밀히 소통하며 아동 교육에 열정을 쏟아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이시가와현 출신이다.

김제 요네쿠라 토다(米倉藤太) 씨

김제보통학교장 요네쿠라 토다 씨는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함라보등학교 교장직에서 김제보통학교로 영전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그는 조선인 아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노력으로 아동들의 인격 향상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진심으로 경탄할 만한 일로, 지방 사회에서 미풍양속을 이끄는 중심 인물로서 보통학교장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쾌활한 성격의 교육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김제 도다 고키치(戸田孝吉) 씨

김제역장 도다 고키치 씨는 도야마(富山)현 출신으로, 김제역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 왔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지도 냉정하지도 않은 온화하고 은근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 사교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 또한 화물주들과의 협력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하며, 김제가 전 조선에서 최고의 미곡 이출역으로 자리잡는데 매우 적합한 인물이다.

김제 곤도 스테(近藤捨) 씨

곤도 스테 씨는 김제우편소장으로 돗토리(鳥取)현 출신이다. 토지 개발, 산업 진흥에 따라 통신, 저금, 환전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는 소수의 직원을 독려하며 직접 창구에서 선두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친절과 정중함을 신조로 삼아 대중을 대하며 성실히 임해 평판이 매우 좋다. 아직 젊은 그가 앞으로 더욱 자애롭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김제 아리타 쇼조(有田庄藏) 씨

김제의 토목건설 청부업자로서 아리타 쇼조 씨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오랜 경험과 견실한 방식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그가 주도하여 신축한 김제기예여학교 건물은 그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리타 씨는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많고 의협심이 넘치는 성격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고 보살피는 인물이다. 교토부(京都府) 출신으로, 지금이 그의 역량을 한창 발휘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김제 가네코 야스이치(金子保一) 씨

가네코 야스이치 씨는 아마구치현 사바(佐波)군 이즈모무라(出雲村) 출신으로, 오래전 김제에 정착하여 금융업에 종사해 왔다. 현재 김제에서 손꼽히는 성공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읍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김제 공공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김제 야기 시게지로(八木茂次郎) 씨

김제 야기 시게지로 씨는 가가와(香川)현 출신으로, 과거 교직에 몸담았으나 그 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실업계로 전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는 이미 김제에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성품이 담백하고 사람을 대할 때 거리낌이 없으며, 특히 공공 업무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읍회 의원으로서 김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인물이다.

김제 치하라 리쿠조우(千原隆三) 씨

동진수리조합 기사장 치하라 리쿠조우 씨는 기후(岐阜)현 출신으로, 동진수리조합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왔다. 그는 명석한 두뇌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조합의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 올렸으며, 사무에 정통하고 온화하면서도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기사장으로서 조합 내외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

김제 후카가와 시게이치(深川重市) 씨

후카가와 시게이치 씨는 히로시마(廣島)현 아사(安佐)군 출신으로, 오랜 세월 김제에서 양품과 잡화상을 경영하며 현재는 김제에서 성공한 인물로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의 영업 방식은 매우 견실하여 고객이 많고, 가게는 항상 붐비는 모습이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바쁜 영업을 병행하면서도 김제읍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읍정에 참여하며 김제의 공공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제군 하리면 미야자키 유키(宮崎勇喜) 씨

전북 농업의 중심지인 김제군 하리면에는 미야자키 유키 씨가 있다. 그는 구마모토현 시모마스키(下益城)군 도요다무라(豊田村) 출신으로 조선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며 현재는 김제에서 확실히 성공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누구에게나 온정이 넘치는 태도로 대하며, 지역 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이전보다 더욱 견실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군 하리면 미야자키 미키히사(宮崎幹壽) 씨

김제군 하리면의 미야자키 미키히사 씨는 현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 지방에서 손꼽히는 독농가였던 미야자키 유키(宮崎豊喜)씨의 아들이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고인의 사업을 계승하여 산업입국의 기초를 다지고자 조선 농민들을 지도하며, 산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분투해 주기를 기원하며, 동시에 스스로 몸을 아끼고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

김제 타이라 세이이치(平精市) 씨

오랜 세월 김제에 거주하며 잡화상을 경영해 왔다. 그는 김제읍회 의원과 재향군인 김제분회장을 맡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무사적 품격을 갖춘 전형적인 신사로, 논리적이며 탁월한 설득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결단력은 허끝에서 불을 뿜는 듯한 기개를 자랑하며, 의지가 견고하고 사려가 깊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김제 노자키 히데키(野崎秀喜) 씨

김제의 노자키 히데키 씨는 사진업을 본업으로 하면서도 전북일보 김제지국장으로 활동하며, 김제 지역 발전과 여론 조성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는 온화하고 모난 데 없는 성품을 지녔으며, 언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제군 월촌면 미기다 야스히코(右田保彦) 씨

전라북도 김제군 월촌면 제월리 미기다 농장의 미기다 야스히코(右

田保彦) 씨는 구마모토현 다마나군(玉名郡) 오우즈이무라(王水村) 출신으로, 1912년 3월 구마모토현의 현농회가 조선 이민 모집 계획을 발표하자, 조선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1만여 원을 가지고 결연히 조선으로 이주했다. 이후 김제 지역에 정착하여 농사 경영을 시작했다으며, 농업 개량과 수도(水稻) 종자의 품종 개량, 정조식 보급 등을 통해 조선 농업 발전의 선구자로 활약했다. 현재 약 30정보의 수전을 소유하며 이 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또한 학교조합 의원, 면협 의원, 동진수리조합 평의원 등으로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제군 죽산 **하시모토 가쓰오(橋本勝雄)** 씨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하시모토 가쓰오 씨는 구마모토현 출신으로, 처음에는 김제학교조합의 출납역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직을 내려놓고 현재 거주지로 옮겨 직접 농업 경영에 뛰어들었다. 그는 종자 개량, 비료 연구, 수도 증수에 힘쓰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논리와 설득력이 뛰어나다. 현재 동척 상농조합장, 죽산권업주식회사의 감사역, 김제학교조합회 의원을 맡아 공공 업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제 **미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 씨

김제학교조합 출납역으로 10년간 성실히 봉직해온 미야모토 우이치로 씨가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매우 긴 기간이다. 이 동안 그는 관리자 하시모토 히로시 씨의 앞자리

가 되기도 하고 뒷자리가 되기도 하며, 학교조합을 위해 애써 온 공로가 결코 적지 않다. 구마모토현 출신인 그는 학교조합에서 일하면서도 가정에서는 농업을 경영하며, 인근 농민들을 지도하여 산업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미야모토 씨는 사람을 대할 때 빈말을 하지 않고, 성의를 다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그의 소통방식은 단호하면서도 명쾌하다.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즉석에서 솔직하게 답하며, 타인을 우롱하거나 기만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런 점이 그의 가치와 신뢰를 더하는 요인이다. 김제소학교의 신축과 같은 중요한 사업에서 그는 의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는 관리자를 포함해 미야모토 씨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한다.

김제군 월촌면 마쓰모토 마타키(松本又喜) 씨

전라북도 김제군 월촌면에 새집을 마련한 마쓰모토 씨는 성공한 인물로, 동시에 산업 개척자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진 사람이었다. 씨가 처음 부랑면에 정착했을 당시, 그곳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환경이 적막하며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례로 전답을 매입하고, 스스로 앞장서 조선인을 지도하고 격려했다. 이를 통해 벼의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품종을 개량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오늘날의 생산 성과를 이룬 것이다. 현재 그는 약 70-80정보에 이르는 수전을 소유하고 있

으며, 점차 견고하게 발전을 이루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주식 회사 아베농장의 농감으로서, 동 지역에서 농장의 소유지를 관리하고 있다.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으로, 한 번 옳다고 결단한 일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과감히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그는 동정심과 의협심을 가진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보기 드문 인격자이다. 행운과 더불어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길 기원한다.

김제군 하리면 시로시타 기타로(城下喜太郎) 씨

전라북도 김제군 하리면에 숨은 산업 공로자이자 농업 경영자로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시로시타 기타로 씨가 있다. 그의 동생인 시로시타 스에오(城下末雄) 씨는 형과 협력하여 함께 지역을 개척하고 농사 경영에 착수한 인물이다.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동진수리조합이 설립되면서, 이 지방 농민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농경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로시타 씨 또한 비료 개선과 농경 개량에 헌신하며 농업 생산 증대에 전력을 다해왔다. 그의 노고는 이제 결실을 맺어, 오늘날의 부를 이루게 되었다. 그가 소유한 농지와 산야를 합치면 약 30정보에 달하는데, 이는 그가 실질적으로 성공한 인물임을 증명한다. 일본 내에서도 30정보를 소유한 지주는 많지 않을 것이다. 행운과 더불어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번영하길 기원한다.

김제군 하리면 시로시타 스에오(城下末雄) 씨

시로시타 스에오 씨는 이 지역의 유력자인 시로시타 기타로 씨의 동생으로, 이 지방에서 성실한 농업 경영자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조선의 농업 경영이 장래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과 함께 이 지역에 정착했다. 정착 초기에는 언어 소통이 어렵고 교통도 불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는 스스로 앞장서 인근 농민들을 이끌며 개량 종자의 갱신, 퇴비 제조,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가 소유한 농지는 수전과 밭을 합쳐 약 25정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제 모두 농업 분야의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며, 그의 성공은 노력과 결단력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직 젊은 그는 부지런히 일하며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군 월촌면 쓰쓰미 호우조우(堤寶藏) 씨

“고향을 떠날 때에는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고향의 바람조차 싫어졌다.”는 말처럼, 구마모토현 출신 이민자들이 돗코이 가락[どっこい節⁷⁸⁾]을 듣던 시절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를 돌아보면, 그들의 성취가 결코 쉽게 이룬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척은 1912년과 1913년, 김제군 월촌면에서 부량면에 걸쳐 구마모토현에서 선발된 제1차·제2차 이민자들을 이주시켰다. 이들은 구마모토현 당국이 직접 현 내 농민들을 모집해 조직한 단체로, 이른바 고향의 선

78) 일본의 전통적인 민요나 가요 중 하나로, 리듬감 있고 힘찬 느낌의 노래.

량하고 성실한 인물들이었다. 그만큼 오늘날 이룩한 성과도 뛰어난 수준이며, 상당수가 성공을 거두어 수전 10정보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김제군 월촌면 제월리에 거주하는 쓰쓰미 호우조우 씨다. 조선에서 수전 10정보 소유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한 군에서도 10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는 많지 않다. 그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다. 그는 농업 개선, 비료 품종 개발, 쌀 생산량 증대에 전심을 다했다. 현재 그는 제월상농(堤月尙農)조합장으로서 15명의 조합원을 이끌며 오직 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제군 백산면 쓰카모토 쓰네오(塚本恒雄) 씨

전라북도 김제군 백산면 석교리에 거주하는 쓰카모토 쓰네오 씨는 조선의 농업 경영이 매우 유리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1916년 구마모토현 시모마스키군(下益城郡) 도요다무라(豊田村)에서 이주해 왔다. 그는 현재의 땅을 정착지로 삼아 농업 경영에 전념하는 한편 도정[粳摺] 공장을 신축하여 정미업도 겸하며 견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의 신뢰를 얻으며 성공을 거두었고, 성실한 노력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공직에서도 활동하여 김제학교조합 의원으로 학무 행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김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제 혼고 쓰토무(本郷勳) 씨

김제에 거주하는 일본인 의사로, 혼고(本郷)의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입원실 시설도 갖추고 있다. 그는 온화하고 모난 데가

없는 성품의 소유자로, 의사로서 매우 적합한 인물이다. 환자를 대할 때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며, 내과와 외과 모두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다. 그 덕분에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우 많아,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제 이토 기요미(伊藤清美) 씨

육군보병 예비소위 출신인 이토 기요미 씨는 아마구치현 출신으로, 현재는 김제에서 목재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젊은 실업가이다. 그는 건실한 태도로 영업을 이어가며, 최근에는 신용을 쌓아 사업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군인 출신답게 어디에서나 활기차게 움직이며, 굳건한 의지와 깊은 식견, 사려 깊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의 앞날에 자애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김제 사토가타 스에조(里形末藏) 씨

사토가타 스에조 씨는 구마모토현 출신으로 김제에서 미곡상을 운영하며 상당한 신뢰를 얻고 성공을 거둔 인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가 경영하는 사토가타 정미소는 최근 눈에 띄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사토가타 씨의 치밀한 두뇌와 건실한 계획, 그리고 원활한 대응 능력이 오늘날의 변영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이다. 아직 젊은 그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며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 본다.

김제 나카야마 시게조(中山重三) 씨

김제군에서 미곡상을 운영하는 정미업자 중에 나카야마 시게조 씨

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카야마 씨는 매우 활동적이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면서 여러 점원들을 이끌고 벼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최근에는 높은 신용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세상에서도 이미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자애로운 인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제 마쓰시타 다이로쿠(松下太六) 씨

김제읍 본정(本町) 3정목에 사는 마쓰시타 다이로쿠 씨는 구마모토현 출신으로, 김제에서 오랜 세월 신용과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다. 그는 항상 성실함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냉철하고 기민한 감각을 지닌 진취적인 실업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공 분야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김제학교조합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학무 행정에 힘쓰며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 이토 아이치(伊藤彌市) 씨

김제의 공직자 중 한 명인 학교조합회 의원인 이토 아이치 씨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토 씨는 나가사키(長崎)현 출신으로, 김제에서 성공을 이룬 인물이다. 본정 3정목에 거주하며, 사람을 대할 때 은근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 상하 구분 없이 누구와도 원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성격이 모난 데 없이 온화하고 독실하여 김제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사이며, 공공을 위해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

김제군 죽산 나카무라 류세이(中村龍生) 씨

김제군 죽산공립소학교에는 교장 나카무라 류세이 씨가 재임 중이다. 나카무라 씨는 열정적인 교육가로, 그의 교육 방식은 과장된 몸짓 없이, 진심을 다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과 장래를 살피는 데 있다. 진정한 제2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물을 키워내는 데 늘 마음을 쏟고 있다. 이러한 그의 교육 철학과 실천 덕분에 본교는 아동과 교사가 마치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김제 타다 시게지로(多田繁次郎) 씨

타다 시게지로 씨는 우콘(右近)상사주식회사 남선출장소 김제수납소의 주임으로서, 지주와 소작인 간의 협조를 원만히 유지하며 모리야마(森山) 씨의 지휘와 명령 아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성격이 담백하고 대인관계에서는 격식 없이 솔직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근면하다. 우콘상사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책임자를 얻은 셈이다. 아직 젊은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김제군 월촌면 시모무라 주사쿠(下村重作) 씨

김제군 월촌면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농업 경영에 성공한 인물로 시모무라 주사쿠 씨가 있다. 아이치(愛知)현 출신인 그는 조선 농업의 장래성에 주목해 도래하였고, 이 지역을 정착지로 삼아 농업 경영을 시작했다. 이후 농업 개량과 산미 증산에 전력을 기울인 끝에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부디 자애하시길 바란다.

김제 아카쓰카 다쓰지로(赤塚辰次郎) 씨

김제학교조합회 의원 아카쓰카 다쓰지로 씨는 미에(三重)현 출신으로, 토목·건축 청부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성실한 업무 처리로 두터운 신뢰를 얻었으며, 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격은 강직하면서도 너그러워 사람들과의 협력에 능하고, 남을 위해 힘쓰는 데 주저함이 없다. 바쁜 와중에도 의원으로서 공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제 조재식(趙在執) 씨

조재식은 처음에는 김제읍내에서 잡화상을 운영했으나, 김제가 지세상 전복 쌀의 집산지라는 점에 주목해 1923년 역전 부근에 공장을 세우고 정미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사업은 꾸준히 확장되어 정미업뿐 아니라 자전거, 석유, 비료 등의 판매와 운송업까지 겸하게 되었다. 현재 연간 약 15만 섬의 쌀을 정미하며, 조선 쌀의 명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술 제조에도 참여해, 상점은 날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제군 성덕면 강동희(姜東曦) 씨

전라북도 김제군 성덕면의 대표 인물로 꼽히는 강동희 씨는, 1909년 전주공립보통학교 특별보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7월 군주사 판임관 5등에 임명되어 무장군(현 고창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동군 우체국 촉탁 소장, 1911년 9월에는 전남 진산군 근무를 거쳐, 1912년 1월 관직에서 물러났다. 1913년에는 만경군에 재직한 뒤, 1914년 김제군으로 전직해 6급 봉급을 받으며 일했고, 1920년 4월 사직

후에는 자택에서 농업 경영에 힘썼다. 그가 관여한 사업은 폭넓다. 만경금융조합 감사, 만경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군농회 통상의원, 동진수리조합 평의원, 면협의회원, 김제농사조합 이사 등을 맡았으며, 1920년에는 전북도평의원에도 선출되었다. 김제군 조선인 사회에서 그를 거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김제 노경일(魯景日) 씨

김제읍회 의원으로, 늘 김제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농업 경영에도 종사하는 인격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제 조재돈(趙在敦) 씨

김제읍 교동리에 거주하며 농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김제읍회 의원으로서 읍정에 참여하여 공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제 이기호(李箕鎬) 씨

김제읍 신평리에 거주하며, 김제에서 오랜 세월 널리 신망을 쌓아온 인물이다. 토지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줄곧 최전선에서 헌신해왔으며, 현재는 김제읍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제 박연(朴淵) 씨

김제읍 요촌리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며, 김제읍회 의원으로 지역 사회의 공공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다.

김제 홍종만(洪鐘萬) 씨

김제읍회 의원 홍종만 씨는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며 김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성품이 온순하고 소박하다.

김제 조재희(趙在熙) 씨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는 조재희 씨는 온건하고 착실한 성품의 실업가로, 김제읍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활동하고 있다.

김제 대정(大正)여관

김제 읍내 입구에는 대정여관이라는 웅장한 여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여관은 오랜 세월 동안 영업해 왔으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손님을 맞이하는 데 매우 친절하고 정성스럽기로 유명하다. 덕분에 투숙객들은 여정의 피로를 풀고 큰 만족을 느끼며, 한 번 대정 여관에 머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여관의 주인과 안주인은 인생의 고난과 기쁨을 두루 겪으며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이들로, 손님을 접대하는 데 최적의 적임자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관의 번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제 김만(金萬)자동차조합

김제읍 본정에 영업소를 둔 김만자동차조합은 김기홍(金基弘), 김태수(金泰秀), 김승호(金承鎬) 세 사람이 자본금 15,050원을 전액 출

자하여 1932년 2월에 설립하였다. 초기 운행 노선은 읍내 역 구간과 김제-만경-신창진 간 여객 수송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점차 노선이 확대되어 1933년 8월에 김제-신창진 간 노선이 개통되었고, 1934년 8월에는 김제-원평 간, 김제-동진강 간 노선도 잇달아 개통되었다. 조합은 고객 중심의 운영 방침을 내세워 자동차를 점차 고급 신차로 교체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힘썼다. 현재 보유 차량은 7대이며, 친절과 정중함을 좌우명으로 삼아 교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오늘날의 번영을 이뤘다.

김제 김제미곡상조합

김제 미곡상조합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기원은 1916년에 설립된 김제 미곡상연합회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이 연합회는 동업자들의 복리 증진과 거래 개선 및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처음에는 조합원이 18명에 불과했다. 이후 시대의 발전과 함께 김제도 크게 성장하여 현재는 조합원이 52명에 달하고 있다. 초대 조합장은 이노우에 마타시치(井上又七) 씨였으며, 현재는 이케 마사미(池眞澄) 씨가 조합장으로서 김제 미곡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제 미곡상조합원들은 대량 거래를 주로 담당하며 김제 미곡계의 대표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개개인의 영업 형태는 처음부터 동일하지 않았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동력 설비를 갖춘 정미공장을 중심으로 경영하며, 백미 또는 현미의 수출입을 주로 하면서 고객의 위탁매매도 함께 취급하는 사람이다.

- ② 벼씨 탈곡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으며, 현미를 수출입하거나 지역 시장에 판매하고, 고객의 위탁매매도 겸하는 사람이다.
- ③ 주로 일본 본토의 상인이나 생산지의 상인 또는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 ④ 김제 또는 외곽 지역에서 벼씨 탈곡 공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동 경영하며, 또는 자본가로서 생산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운송편으로 돌아온 현미 또는 백미를 김제에서 판매하거나, 군산 또는 내지에서 고객 위탁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⑤ 직접 매입한 쌀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로 내지의 고정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에 응하며, 일반적으로 고객의 위탁매매도 함께 취급하는 사람이다.
- ⑥ 조선 쌀을 취급하는 동시에, 외국산 쌀이나 만주곡(滿洲粟, 만주산 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상에서 분류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또한 각 조합원의 영업 형태가 위의 분류 중 어느 한 항목에 딱 들어맞는 경우는 드물다. 김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집산지로서, 연간 약 50만 섬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쌀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이는 조선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라 할 수 있다.

김제의 흥망은 곧 김제 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김제의 흥망을 양어깨에 짊어진 미곡상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은 단지 김제 한 지역의 흥망성쇠에만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은 실로 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금 자금 규모 또한 상당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일본)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인 인구와 식량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다행히 조합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김제 김제금융조합

김제금융조합은 1909년 7월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에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관할 구역은 김제, 만경, 태인의 3개 지역이었다.(1914년 3월 부군 통합에 따라, 만경군은 김제에, 태인군은 정읍에 각각 병합되었다.) 이후 1910년에는 태인조합이 신설되었고, 1924년에는 원평조합과 만경조합, 1929년에는 부용조합이 새로 생기면서 관할 구역이 점차 나뉘어, 현재는 4개 면만 관할하고 있다. 조합 사무소는 처음에 교동리 7번지에 있었으나, 1917년 11월 요촌리 420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14년간의 업무 진행 속에서 사무 공간의 협소함과 위치상의 불편함을 절감하게 되어, 1931년 4월 현재의 건물로 옮기게 되었다. 이처럼 설립 이후 23년 동안 조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재계의 격랑 속에서도 노를 저어 나아가며, 창립 당시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업무를 확장해 왔다. 특히 1912년 조합령 공포 이후 두 차례의 대규모 개정을 거치며 각종 업무가 매년 건실한 발전을 이루었고, 오늘날에는 이 지방 서민 금융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제군 청하면 나카시바(中柴)산업주식회사

호남에서 농업 경영의 선구자로 알려진 나카시바산업주식회사는 1905년 9월, 만주의 들판에 점차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시기에 현 사장인 나카노 소자부로(中野宗三郎) 씨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그는 군산 시찰을 계기로 1906년 익명조합 형태의 나카시바산업부를 설립하였고, 이를 나카시바 농장이라 통칭하며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당시 만경군 화포리)에 사무소를 두었다. 이곳에서 일반 농사와 함께 과수원 운영, 위탁 사육 소[頂託牛], 식림 사업 등을 병행하였다. 이후 사회의 발전과 시세의 변화에 맞춰, 1918년 10월에는 자본금 24만원 규모의 주식회사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1921년에는 사업 확장에 따라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점차 사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농장이 협소해지자 현 위치의 토지를 매입하여 1924년에 사무소를 신축·이전하였다. 아울러 충청남도 논산에 출장소를 설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주소: 김제군 청하면 동지산리 793번지
- 사명: 나카시바산업주식회사
- 경영 대표자: 취체역 사장 나카노 소자부로(中野宗三郎)
- 자본금: 공칭 자본금 100만 원/ 불입 자본금 582,000원
- 목적: 농업, 축산, 식림, 개간 및 부대사업
- 현재 임원명
 취체역 사장 나카노 소자부로(中野宗三郎)
 상무 취체역 나카노 소이치(中野宗一)
 취체역 나카시바 만키치(中柴萬吉)
 감사역 시게오카 지스케(重岡治助)
- 소유지 및 관리 토지
 전북: 소유지 972정보/관리지 7정보/총 979정보
 충남: 소유지 93정보/관리지 123정보/총 216정보/합계 1,916정보

나카시바산업회사 사장 나카노 소자부로(中野宗三郎) 씨가 이끄는 농업 경영은 각종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호남지방에서 모범 농장으로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는 아들 소이치(宗一) 씨와 힘을 합쳐,

창립 당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경작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깊이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전답과 임야는 총 1,100여 정(町, 일본식 토지 단위로 약 3,000평)이며, 경작자 수는 1,6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농민들은 나카노 씨를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있으며, 주인과 소작인이 협력하여 농사 개량과 수확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 동 회사가 갖추고 있는 주요 시설들을 기록해 보기로 한다.

경작제도

농민과의 친선: 지주와 경작인이 서로 밀접하고 불가분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개량을 도모하고, 쌍방의 부수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작제도 면에서는 경작인 보증 중심의 방식을 토대로 마름[畝音]을 두지 않으며, 조합 제도를 통해 임원 합의로 불공평을 방지하고, 지주의 직접 지도 아래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 경작 계약을 통해 농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고리대금에 의한 차압 등 폐해를 막고 있다. 아울러 모든 경작인을 금융조합에 가입시켜 자각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경작계약법: 종래의 소작 계약법을 따를 경우, 고리대금 문제로 인해 소작료가 차압되고 그 결과 소작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많은 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러

한 실정을 고려하여, 당사는 1917년에 경작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작 위탁 계약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헐값[安價] 경매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반 농민들로부터도 환영받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 정액 경지료와 검견법(檢見法)⁷⁹⁾: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논(畓)에 대한 검견법을 적용하였으나, 비료 사용[施肥]이 증가하고 특히 자급 비료의 장려가 확산됨에 따라,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과 정액 경지료 방식에 의존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사장 나가노 씨는 1914년에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자신의 모든 소유지에 정액 경지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흉작 시에는 신청에 따라 검견(실제 수확 조사)을 실시하여 경지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수납변당료(收納辯當料)⁸⁰⁾ 지급: 지주와 경작인(소작농)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납변당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납 운반비는 절반으로 경감하였다. 이 제도는 회사 창립 이래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며, 지급 방식은 벼 한 섬을 운반할 경우, 반리(약 2km) 이내면 일정액을 지급한다. 반리를 초과하여 1리(약 4km)까지는 5전을 지급하며, 이후 반리가 늘어날 때마다 5전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79) 검견법은 에도시대의 토지조사 및 수확량 측정 제도로, 실제 수확된 농작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토지의 수확량을 직접 확인(검견)하여 조세를 결정한다.

80) 세금이나 공물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경비

- 우량 경작인 및 조합 임원 표창: 경작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의 지도와 장려 방침에 적극 협력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작자를 선발해, 매년 표창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납 실적에 따라 조합이나 임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하며, 부인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여 이에 대해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농사 개량에 앞장선 부락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경작조합과 그 운용: 마름[畝音]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본 회사는 각 리(里)·동(洞)을 단위로 경작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에는 이사를 두어 해당 지역에 상주하도록 하되, 직책은 명예직으로 하였다. 또한 회사원을 참사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활동의 중심을 조합에 두었으며, 그 위에는 면 단위의 감사를 지정하고, 사원 중 상급자를 감독자로 임명하여 운영을 감시하게 하였다. 조합의 운영은 회의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1919년부터 조직이 시작되어 현재는 전라북도 관내에는 13개 조합, 충청남도 관내에는 8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농사 장려 사업

- 1, 종자 갱신과 개량종 보급
- 2, 정조식(正條植)⁸¹⁾의 보급
- 3, 모내기[苗代]⁸²⁾ 개량과 박파(薄播)⁸³⁾ 장려

81) 나무나 농작물을 곧고 바르게 줄을 맞춰 심는 방식

82) 벼농사에서 모종을 기르는 논

83) 씨앗을 듬성듬성 뿌리는 것

- 4, 피 제거 작업[稗拔取] 및 제초기 보급
- 5, 시비(施肥)법 개선지도
- 6, 자급비 장려와 퇴비, 녹비(綠肥)
- 7, 개량 농구 보급
- 8, 가을 밭갈이[秋耨], 깊이 땅을 갈기[深耕]와 경우(耕牛)의 증가
- 9, 이모작 장려
- 10, 조제(調製) 개량과 인접(粃摺) 실행을 통한 현미 판매
- 11, 지도 논과 밭

농가 부업 장려

양잠 등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 가마니 짜기[呖織]와 같은 작업에 대해 매년 회사 주최로 가마니 짜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수여하여 품질 향상과 다량 생산에 힘쓰고 있다.

농촌개선

- 1, 모범 리 경영
- 2, 구제사업
- 3, 비황(備荒, 흉년에 대비)저축과 자력갱생
- 4, 생활 개선과 부인 노동 장려
- 5, 부락 순회 강화
- 6, 경작인 집단지의 위생
- 7, 품평회
- 8, 강습 및 강화회

위 각 항목에 대해 기술원을 파견하여 지도와 장려에 앞장서며 농촌 개선에 힘쓰고 있다. 현재 비황(備荒) 저축금은 1만 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회사 직영 시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는 시작부(試作部)가 있는데, ‘답부(畓部)’에서는 약 2정보의 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품종 비교 재배, 비료 시험, 이모작, 시험 재배, 다비(多肥) 경작, 조·중생종 벼의 종자 채취 등이다. ‘원종 재배전부(原種 栽培田部)’에서는 약 1정보 규모로 보리, 대두 종자 채취, 소재원, 과수원 등을 구획하여 농업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양돈과 양잠은 시험농장[圃場] 내에서 이루어지며, 비료 자급과 함께 경작인의 자녀에게 기술을 교육하는 목적도 겸하고 있다. 또한 회사 구내에는 미곡 조제 공장을 두고 12마력 증유 발동기를 설치하여 하루 300섬의 쌀을 가공하고 있으며, 이 쌀은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로 직송되고 있다.

김제군 죽산면 하시모토 농장

김제군 죽산면 하시모토 농장은 설립되기 이전부터,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씨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이미 김제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의 친구인 카사이 켄지로(笠井建次郎) 씨가 먼저 조선으로 건너가 김제군 청하면 동지산에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고, 귀국 후 조선의 농사 경영 상황을 전해 들은 하시모토 씨는 유망한 땅이라는 판단 아래 직접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김제 토지를 매입한 뒤, 카사이 씨에게 토지 관리를 맡긴 것이 농장 시작의 계기였다.

1906년 하시모토 히로시 씨는 직접 조선에 건너와 군산에 거주하였으며, 현재의 죽산 지역에 처음 들어오게 된 계기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시찰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는 동진강암(東津江岩)의 미간지에 주목하여 1911년 국유 미간지를 불하받아 곧바로 개간에 착수하였고, 이듬해인 1912년에 공사를 완공하여 논으로 조성하였다. 그가 죽산에 거처를 옮긴 것은 1916년 5월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농업 경영이 시작되었다.

이후 1931년 3월에는 농장의 조직을 개편해 자본금 50만 원 규모의 법인체인 주식회사 하시모토 농장으로 개칭하였으며, 이로써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하시모토 씨의 농장 경영 당시의 고심과 노력은 결실을 맺어 대농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주식회사 하시모토농장
자본금 50만 원
대표 취체역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전무 취체역 하시모토 타츠미(橋本巽)
소유지 답 350정보(개간지 120정보를 포함)
시가지 전 90정보
소작인 550명

- 소작인과 농장: 소작인은 총 550명 중 약 20여 명이 전속 소작인으로, 이들은 일반 소작인과 달리 비료 등 제반 비용을 농장 소유로 간주하여 경작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농장은 소작인의 경작권 안정을 도모하고, 마름 제도를 폐지한 뒤 회사가 직접 운

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동일 토지를 25년 연속 경작하는 소작 인도 10명에 이르고 있다.

- 비료 저리(低利) 대출: 회사는 도작 농가용 비료뿐만 아니라 소작 농을 위한 비료도 저리로 대출하고 있으며, 그 총액은 매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에 달한다. 또한 비료대 회수 실적도 매우 양호하다.

- 농사 개량: 소작인에 대해 모내기[苗代] 개량, 얇게 뿌리기[薄播], 줄 맞춰 심기[正條植], 잡초 뽑기[稗拔]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회사 소유 논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거의 별도의 지도 없이도 이미 이러한 개량이 실행되고 있다.

- 자급 장려: 퇴비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 퇴비틀을 제작하여 소작인들에게 보급하였으며, 현재 소작인 중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퇴비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려와 계몽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 소작인 저금: 농장 개설 이래 소작인 저금을 장려하는 데 힘쓴 결과 성과는 양호하였으나, 1927년 이후 쌀값 폭락이라는 불운을 맞아 소작인들은 극심한 궁핍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작인들이 저금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현재는 저금 제도가 중지된 상태이나, 간신히 부활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 부업 장려: 회사는 가마니 짜는 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하여 소작인들에게 대여함으로써 부업 생산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소작인들은 생활 안정을 이루어 농한기 동안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약간의 저축조차 하지 못하는 소작인들도 있어 틈나는 대로 가마니 짜기에 힘쓰고 있다.
- 보리작 장려: 죽산면은 밭(田)이 적어 보리 재배를 위한 논(畓) 활용이 어려운 농장이 많아, 특히 보리 종자를 대여하여 보리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 비료의 자가 배급: 농장은 다수확을 목표로 이상적인 시비법을 실천하여 다른 농장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며, 1932년부터 비료의 자가 배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료의 배합 비율은 토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표준 배합은 질소 14, 인산 6, 가리(加里, 칼륨) 4 또는 8의 비율로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방식이다.
- 현미의 조제 공장: 농장에서는 1917년 현미 조제 공장을 농장 구내에 설치하였으며, 초기에는 손절구[手擗]를 이용해 조제하였다. 1925년 공장을 확장하면서 6마력과 3마력 발동기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10시간 동안 평균 250섬의 조제 능력을 갖추어 이를 시장에 반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시설 덕분에 소작인과 농장 간의 친목은 날로 견고해졌으며, 농장 역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김제읍의 하시모토 타츠미(橋本巽) 씨 주택 구내에 약 70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고, 이를 김제창고라 명명하고, 이를 죽산창고의 분(分) 창고로 삼았다. 하시모토 히로시(橋本央) 씨는 농업 개량에 힘쓰는 동시에, 노구를 공사에 바쳐 도회(道會) 초대부터 1933년 4월까지 관선 의원으로 중임되어 도정에 힘썼다. 또한 김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시설 문제 해결에 진력하고 있다.

사회특별사업 군청 이전 문제

김제군 청사는 원래 조선식 건물을 이용하여 김제읍 교동리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를 김제역 앞에 신축·이전하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읍내 유지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당시 전 관리자였던 오쿠무라 다케사부로(奥村竹三郎) 씨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1922년 9월 경, 읍내 유지들은 협의하여 대표자 몇 명을 도지사에게 보내 기존 군청 위치에 개축해 줄 것을 진정하였다. 학교조합 관리자였던 하시모토 히로시 씨는 역전과 읍내 간 갈등을 우려하여 민심의 융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는 읍내 대정여관에 약 10일간 머무르며 주야로 움직여, 오쿠무라 씨와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수 김봉두(金奉斗) 씨와 함께 본 도청에 출두해 도지사, 내무부장, 지방과장, 토목과장 등과 협의하였다. 이후 김제로 돌아온 하시모토 히로시 씨는 읍내와 역전 일대 유지 약 40명을 대정여관에 초청하고, 오쿠무라 다케사부로 씨와 김봉두 군수가 입회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군청 위치는 읍내와 역전의 중간 지점인 현재 부지로 결정되었으며, 읍내 측이 부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한편, 수년간 의견이 맞지 않아 방치되었던 신사 부지 문제도, 이 시기 관리자였던 하시모토 씨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되었다.

각설하고, 이처럼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부지 기부 조건에 따라 읍내 유지들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마련 임무를 맡았다. 부지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었기에 여러 차례 갈등과 혼란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미쓰후지 군페이(三藤軍平) 씨는 비록 면적은 적었으나

술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기부를 신청하는 등 미담을 남겼다.

부지 매입비 기부금 모집액은 총 1,541원이었으며, 주요 기부자로는 아베농장의 300원, 하시모토 히로시 씨가 200원, 다테이시 후쿠조(立石福藏) 씨가 100원을 각각 기부하였다. 총 131명의 유자들로부터 기부금이 모였다.

김제 평야의 추억

이노우에 세이키(井上生寄)

김제 평야, 즉 동진강 평야는 실로 광활한 3만 정보의 대규모 농지를 품고 있다.

이 평야 역시 본래는 드넓은 바다였으나, 해마다 홍수와 조류의 작용으로 진흙이 쌓여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비옥한 간척지가 되었다. 전주 평야와 더불어 전북의 보고로 불린다.

동진강 평야 한가운데에는 백산이라는 작은 산이 홀로 솟아 있다. 비록 해발 200척에 불과하지만,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여 평야의 70-80%에 달하는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기복을 이루는 연산(連山)과 아득히 펼쳐진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가까이에는 평야 곳곳에 자리한 마을들이 내려다보여 한 폭의 파노라마와 같은 절경을 이룬다. 이 산은 갑오년(1894년) 동학당이 최초로 봉기한 역사적인 장소로도 유명하다.

또한 원평 지류를 따라 약 1리 길이의 구불구불한 대제방이 있다. 이 제방을 벽골제(碧骨堤)라고 부르는데, 수백 년 전 어느 한 관찰사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멀리 제주도에서 수많은 인부들을 징발해 이 제방을 쌓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긴 제방의 북쪽 끝에는 초혜산(草鞋山)이라 불리는 둥근 작은 산이 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제방을 쌓던 인부들이 구명난 짚신을 벗어 버린 것이 쌓이고 쌓여 이 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과장된 이야기

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이 제방의 목적은 첫째, 조수의 침입을 막는 것이었고, 둘째, 제방 안의 수천 정보에 이르는 토지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모내기 철이 되면 이를 방출하여 그 자리를 수전(水田)으로 활용해 벼를 재배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방출된 물은 멀리 만경 방면의 관개용수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대제방은 동진수리조합의 감제 간선수로의 한쪽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그 일대에 다수의 벚나무를 심어 머지않아 벚꽃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절이 무르익을 무렵 이곳은 더욱 눈부신 경관을 자아낼 것이다.

동진강 평야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주요 농장으로는 구마모토 농장, 이시카와현농업주식회사 농장, 마스토미 농장, 아베 농장, 하시모토 농장, 다키 농장, 동진농업주식회사 농장 등이 있다. 한편 직접 농장을 운영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한 곳으로는 동양척식회사, 우콘상사주식회사, 후지(不二)농업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들 농장은 모두 1907년 이후 설립되었으나, 유일하게 구마모토 농장만은 예외로, 1904년부터 토지 매수를 시작하여 1907년경에는 이미 현재와 같은 규모를 확보하였다. 이후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장 사무소를 정읍군 화호리에 두고 경영을 시작하였다. 화호리는 동진강 평야의 중심지이자, 구마모토 농장 소유지의 중심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구마모토 농장 창업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당시 토지 매수는 매우 수월한 일이었다. 평야 한복판에 나서서 “이번에는 수천 두락의 토지를 사들일 예정”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마

을에 지심(指審)이라 불리는 매매 중개인이 있어 이를 내지 사흘 안에 필요한 매물들을 모아 목록으로 정리해 가져왔다. 매수자는 이 목록을 바탕으로 직접 토지를 답사한 후 적당한 토지만 골라 매입하였다. 매매 절차도 오늘날처럼登記법이 있던 것도 아니고, 매우 간단명료하였다. 군수의 증명만 받으면 되었는데, 당시 군청에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매도·매수 당사자 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뒷면[奧書]에 ‘우증명(右證明)’이라고 붉은 글씨[朱書]를 쓰고, 군수가 대인(大印)을 날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쳤다. 그럼에도 착오나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정직한 성품이었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당시 토지 매물이 많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인이 와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귀국하게 되어, 그때는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없었다. 따라서 토지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가 되면 원래의 매도인이 그 토지를 다시 회수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서 얼마든지 돈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일이다’라는 말처럼, 당시에는 누구나 토지를 팔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일반 농민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따르고 있었다. 각 농장에서의 토지 매입 상황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수 과정에서 특별히 수고하거나 애쓸 일도 거의 없었다.

당시의 농법은 매우 유치한 수준이었기에, 단위 면적당[反當] 수확량이 1섬(石) 내외에 불과하였다. 일반 농민들은 비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으며, 고작 온돌재에 인분뇨를 섞거나 마당에서 끌어모은 먼지와 찌꺼기를 조금씩 논에 뿌리는 정도에 머물렀다. 대부분은 아무런 비료도 이용하지 않고, 이른바 약탈농업을 반복할 뿐이었다. 수확량이 적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시절을 돌아보면 실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김제군 쌍감면 쓰키가와(月川)광업소

쓰키가와 광업소의 주인인 쓰키가와 소시치로(月川蘇七郎)는 전북 김제군 쌍감면 봉월리의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만주 하얼빈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약 1,000여 명의 직원과 광부들로부터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존재로 존경받는 인망가로서, 그의 식견과 의협심은 광산 개설 후 빠른 시일 내에 흔들림 없는 기초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직원과 수백 명의 광부들은 그의 명령 아래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결은 쓰키가와 금광의 밝은 미래를 예고한다.

쓰키가와 소시치로는 나가사키현 미나미마쓰우라군(南松浦郡) 고토(五島) 토기항(戸岐港) 출신으로, 본가는 대대로 고토 지역에서 저명한 수산 사업 가문이다. 그는 청년 시절 나가사키, 나고야(名古屋), 고베, 도쿄 등 대도시에서 사업을 경영하며 다양한 경험과 수양을 쌓았고, 이후 만몽 지역에 진출해 거대한 자본가로 성장했다. 하얼빈 본점을 비롯해 평토펜(奉天),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여러 지점을 총괄하며 무역상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유럽 전란, 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변 당시 하얼빈에서 육군의 공식납품업체[御用達]로서 군수품 수송 등 중대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일반 사업가가 빠지기 쉬운 탐욕을 버리고 군국(君國)을 위해 헌신하였다. 만주사변 당시 군부의 후원을 받아 큰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이는 그의 군센 정신 ‘남일필(男一匹, 남자답게 군세고 의리 있는 사람)’을 모르는 이들의 견해에 불과하다.

그는 실전을 중시하며 스스로 앞장서 사업을 지휘했고, 지역 부락민의 안녕과 행복을 진심으로 염원했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과 빈민구제 등 사회적 시설에 힘써 공헌했으며, 겨울철을 앞두고는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부 숙사를 건설하여 광부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이 광산 내에서는 어떠한 불안이나 불평도 없으며, 활기찬 황금향(黃金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북학총서 19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

초판 1쇄 인쇄 | 2025년 12월 31일

초판 1쇄 발행 | 2025년 12월 31일

지 은 이 | 우쓰기 하쓰사부로(宇津木初三郎)

역 자 | 최혜주

발 행 인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썈로 1696

전 화 | 063-280-7212

홈페이지 | <http://jnstudies.re.kr>

제작 및 디자인 | 더이룸 063-251-3080

ISBN 978-89-6612-598-2

ISBN 978-89-6612-452-7 (세트)

본 저서에 게재된 내용이 (재)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저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학총서

19

호남의 보고

김제발전사

비매품

94910



9 788966 125982

ISBN 978-89-6612-598-2

ISBN 978-89-6612-452-7 (세트)

전북학연구센터